

---

---

조선왕조실록 청백리 명단 중  
全彭齡(金彭齡) 포상기록 착오에 대한 소고(小考)

---

---

2022. 04. 15

작성자 : 옥천전씨 판서공파 종친회이사 전 재 몽



# 목 차

I. 머리말 .....	1
II. 문제점 .....	1
III. 해결방안 .....	2
IV. 분석내용 .....	2
1. 조선시대 청백리 정의 및 선발절차 .....	2
2. 조선왕조실록에 전팽령 엮근피선 내용 파악 .....	3
3. 문헌별 엮근 피선자중 전팽령(全彭齡) 또는 김팽령(金彭齡) 표기내용 파악 .....	5
4. 전팽령선생 청백리관련 옥천전씨 문중 문헌 근거 파악 .....	9
5. 타 문중 전팽령선생 청백리관련 내용 파악 .....	14
(특히 송정 전팽령선생의 외손자인 고암 정립선생의 문헌 분석)	
6. 경주(부령)김씨 김팽령의 벼슬관직 및 청백리 피선자 존재여부 파악과 문중 자문 .....	16
7. 인터넷 매체내용 분석 .....	21
V. 검토결과 .....	27
VI. 별첨	
1. 목록 .....	29
2. 별첨내용 .....	30



# 조선왕조실록 청백리 명단 중

## 全彭齡(金彭齡) 포상기록 착오에 대한 소고(小考)

### I. 머리말

옥천전씨 11세 송정(松亭) 전팽령(全彭齡, 1480년~1560년)선생의 염근(청백리) 피선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의 명종실록 13권에 염근에 피선된자가 행사용(行司勇) 김팽령(金彭齡)이라고 되어 있어, 전팽령선생의 염근피선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점과 분석을 통해 사실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염근리라고도 하는 청백리는 청귀한 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품행이 단정하고 순결하며 자기 일신은 물론 가내까지도 청백하여 오천에 조종되지 않는 정신을 가진 관리를 가리킨다. <고려사>에는 청백리로 유석·왕해·김육·최석·정운·윤해·최영 등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전고대방 典故大方>에 219명, <청선고 淸選考>에 186명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청백리는 유교적 지도이념과 주자학적 실천수행의 도에 철저했던 인물들이었다. 1695년에 영의정 남구만이 청백리 초선을 하면서 살아 있는 경우에는 ‘염근리’, 죽은 후에는 ‘청백리’라고 호칭했다는 기록이 있다. 청백리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은 <증보문헌비고>·<대동장고>·<청선고>·<전고대방>·<조선조청백리지> 등이다.

### II. 문제점

1. 조선왕조실록의 명종실록에 나와 있는 염근(청백리) 선정자 명단에는 전팽령(全彭齡)으로 되어 있으나 피선자 명단에는 행사용 김팽령(行司勇 金彭齡)으로 되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 조선시대 청백리 명단이 정리된 문헌별로도 청백리 피선자자가 일부는 사용 전팽령으로, 일부는 경주김씨 사용 김팽령으로 되어있어 혼란스럽다.
3. 정선전씨 전과웅 종원이 2015년 11월 27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청백리 유권해석 요청 [全彭齡 or 金彭齡]을 하였으나 2015년 12월 1일 아래 내용과 같이 답변을 받았다.

“답변 드립니다 .

청백리 , 두문동 72 현을 올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은 하였습니다 .

예전 기록이면서 자료마다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번에도 정연(鄭淵)의 본관이 동래인지, 광주인지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제시될 경우 각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문헌에 나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청백리 김팽령은 본관이 경주로 되어있고, 관직은 사용(司勇)입니다.

전팽령은 본관이 옥천입니다 . 본관이 경주라면 혹 성씨를 오기한 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데, 실록 기록만으로는 자료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나 수정요청 사항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등록 수정게시판을 통해 문의 ,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고객님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잘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4. 인터넷 매체별로도 청백리 명단이 일부는 옥천전씨 행사용 전팽령으로, 일부는 경주김씨 행사용 김팽령으로 되어있다.
5.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전팽령선생이 상주목사 재직시 염근으로 선정되었다가 상주목사 퇴임 후 후임 상주목사 신잠이 염근에 피선되었고, 사용 김팽령이 염근에 피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송정문집(전팽령) 연보에는 행사용 전팽령이 염근 10인에 피선된 것으로 되어있다. 의문점은 상주목사시 염근관련 특승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셨는데, 통정대부는 조선때 문관(文官),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 부여하는 정3품 관계이고, 목사(牧使)는 조선 때 각 목(牧)의 으뜸벼슬로 정3품 외관직인데 비해, 사용(司勇)은 조선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9품 무관직으로 지방관리도 아니고 품계도 낮고 문관직도 아니어서 염근리(청백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전팽령선생이 상주목사 퇴임 후 다시 사용의 벼슬로 염근에 피선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또한 사용(司勇)은 정9품 하위직이고 무관이고 지방관리도 아닌 경주김씨 행사용 김팽령이 염근에 피선된 것 또한 납득이 어렵다.
6. 옥천전씨 문중과 옥천군청에서는 전팽령선생의 청백리 피선에 대해 의심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혼선이 있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이 후손으로서 선조에 대해 죄송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어 사안을 깊이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 III. 해결방안

1. 조선시대 청백리 정의 및 선발절차 파악
2. 조선왕조실록에 전팽령 염근 피선 내용 파악
3. 문헌별 염근 피선자중 전팽령(全彭齡) 또는 김팽령(金彭齡) 표기내용 파악
4. 전팽령선생 청백리관련 옥천전씨 문중 문헌 근거 파악
5. 타 문중 전팽령선생 청백리관련 내용 파악  
(특히 송정 전팽령선생의 외손자인 고암 정립선생의 문헌 분석)
6. 경주김씨 김팽령, 부안(부령)김씨 김팽령의 벼슬관직 및 청백리 피선자 존재여부 파악과 문중 자문
7. 인터넷 매체내용 분석
8. 검토결과 전팽령선생 염근피선 자료 명백할시 관계기관에 수정 및 참고요청.

### IV. 분석내용

#### 1. 조선시대 청백리 정의 및 선발절차

- 1.1 염근리(廉謹吏) : 청렴하고 근면한 관리
- 1.2 청백리(清白吏) :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
- 1.3 청백리 선발절차

조선전기 경외 2품 이상 관인에게 생존하거나 사망한 인물 대상 중 2인씩 추천하여 육조판서가 심사 후 왕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제도로 조선왕조 500여 년간 222명의 청백리가 선정되었음.

2. 조선왕조실록에 전팽령 염근 피선 내용 파악

<p>관련근거 ① 조선왕조실록 明宗 10卷, 5年(1550 庚戌 / 명 가정(嘉靖) 29年) 10月 5日(乙丑) 1번째기사</p>	<p>청렴 근실하게 고을을 다스린 상주 목사 전팽령의 자급을 높이게 하다. ○乙丑/命增秩尙州牧使全彭齡, 以居官廉謹也. 상주 목사(尙州牧使) 전팽령(全彭齡)의 자급을 높여 주라고 명했다. 그것은 고을 다스리는 것을 청렴 근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87장 B면 【영인본】 19책 722면</p>
<p>관련근거 ② 明宗 12卷, 6年(1551 辛亥 / 명 가정(嘉靖) 30年) 11月 10日(甲午) 4번째기사</p>	<p>삼공이 안현·홍섬·박수량 등 33인을 염근으로 이름을 고쳐 뽑다 ○舍人以三公意啓曰：“清簡之人，難於廣選，故改以廉謹爲號而抄啓矣。且守令不能盡知，令監司抄出，六曹所屬各司，令六曹抄之何如？”傳曰：“可。”被抄，安珪、洪暹、朴守良、李浚慶、趙士秀、李莫、任虎臣、周世鵬、金秀文、李夢弼、李世璋、李榮、金珣、全彭齡、(洪曇)〔洪曇〕、成世章、尹釜、尹鉉、尹春年、鄭宗榮、朴永俊、吳祥、李重慶、金鎧、任輔臣、李滉、安從堧、宋益壽、金雨、卞勳男、辛士衡、姜允權、禹世謙，并三十三人。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청간한 사람은 널리 뽑기가 어려우므로 염근(廉謹)으로 이름을 고쳐서 초계하였습니다. 또 수령은 다 알 수가 없으니 감사로 하여금 초출하게 하고 육조에 소속된 각사(各司)는 육조로 하여금 뽑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뽑힌 자는 안현(安珪)·홍섬(洪暹)·박수량(朴守良)·이준경(李浚慶)·조사수(趙士秀)·이명(李莫)·임호신(任虎臣)·주세봉(周世鵬)·김수문(金秀文)·이몽필(李夢弼)·이세장(李世璋)·이영(李榮)·김순(金珣)·전팽령(全彭齡)·홍담(洪曇)·성세장(成世章)·윤부(尹釜)·윤현(尹鉉)·윤춘년(尹春年)·정종영(鄭宗榮)·박영준(朴永俊)·오상(吳祥)·이중경(李重慶)·김개(金鎧)·임보신(任輔臣)·이황(李滉)·안종전(安從堧)·송익수(宋益壽)·김우(金雨)·변훈남(卞勳男)·신사형(辛士衡)·강윤권(姜允權)·우세겸(禹世謙) 등 모두 33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48장 A면 , 【영인본】 20책 57면</p>
<p>관련근거 ③ 明宗 13卷, 7年(1552 壬子 / 명 가정(嘉靖) 31年) 3月 9日(辛卯) 1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 이몽량이 이희안·조식·전팽령·김취문 등을 천거하다 ○辛卯/慶尙道觀察使李夢亮薦草溪居前典獄參奉李希顏、三嘉居布衣曹植，又舉廉謹守令尙州牧使全彭齡、永川郡守金就文、知禮縣監盧禎。 【希顏，才行卓異，孝友兼篤，母喪三年，一不到家，不脫衰絰。中廟朝薦舉授職，謝恩還鄉，不求聞達，足絕官門，非義不取，一鄉欽服。曹植，方正廉潔，兄弟同居，不私己物，有志學問，不事科舉。父母喪三年，身不脫衰絰，家無甌石，常晏如也。】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몽량(李夢亮)이, 초계(草溪)에 사는 전 전옥 참봉 이희안(李希顏)과 삼가(三嘉)에 사는 선비 조식(曹植)을 천거하고, 또 염근(廉謹)한 수령인 상주 목사(尙州牧使) 전팽령(全彭齡), 영천 군수(永川郡守) 김취문(金就文), 지례 현감(知禮縣監) 노진(盧禎)을 천거하였다. 【이희안(李希顏)은 재행(才行)이 뛰어나고 효</p>

	<p>우(孝友)가 독실하여 모상(母喪)에 3년 동안 한번도 집으로 가지 않고 최질(衰絰)을 벗지 않았으므로 중묘조(中廟朝)에 천거되어 관직을 제수받았으나~</p> <p>【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18장 B면 , 【영인본】 20책 76면</p>
<p>관련근거 ④</p> <p>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11월 4일 <b>임오</b>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p> <p>* 음력간지 1552년 음력 11월4일은 음력간지로 임자(壬子)년 임자(壬子)월 <b>임오(壬午)</b>일이다.</p>	<p>궐정에서 염근인과 근근인들에게 물건을 차등있게 내리다 궐정(闕庭)에서 염근인(廉謹人)에게 일등악(一等樂)을 내리라고 명했는데 근근인(勤謹人)들도 참석하였다. 각기 단목(丹木)·호초(胡椒) 등의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렸고, 저물녘이 되자 각기 백랍촉(白蠟燭) 한 쌍씩을 내렸다. 호조 판서 안현(安玪), 우참찬 박수량(朴守良), 평안도 관찰사 홍섬(洪暹), 【부임하지 않았었다.】 형조 판서 조사수(趙士秀), 대사성(大司成) 이명(李堊), 예조 참의 이몽필(李夢弼), 좌승지 홍담(洪曇), 우승지 성세장(成世章), 대사간 윤춘년(尹春年), 판교(判校) 윤현(尹鉉), 우통례(右通禮) 윤부(尹釜), 장령 유혼(柳渾), 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 우세겸(禹世謙), 사복시 정(司僕寺正) 박영준(朴永俊), 사복시 부정 임보신(任輔臣), 홍문관 교리 정종영(鄭宗榮), 부교리 박민헌(朴民獻), 공조 정랑 이증영(李增榮),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 김몽좌(金夢佐) 이상 19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다.</p> <p>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김사근(金思謹),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 조용(趙容) 이상 2인은 근근(勤謹) 피선되었다.</p> <p>대사헌 이준경(李浚慶),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임호신(任虎臣)과 주세붕(周世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개(金鎧), 전 대사성 이황(李滉), 전한(典翰) 송찬(宋贊), 부장(部獎) 허세린(許世麟), 군기시 별좌(軍器寺別坐) 안잠(安潛), <b>행사용(行司勇) 김팽령(金彭齡)</b>, 사재감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이상 10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다.</p> <p>외임(外任) 염근인(廉謹人)인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영(李榮), 강계 부사(江界府使) 김순(金洵), 나주 목사(羅州牧使) 오상(吳祥), 상주 목사(尙州牧使) 신잠(申潛), 밀양 부사(密陽府使) 김우(金雨), 온양 군수(溫陽郡守) 이중경(李重慶),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종전(安從璵), 강릉 부사(江陵府使) 김확(金擴), 신계 현령(新溪縣令) 유언겸(俞彦謙), 금구 현령(金溝縣令) 변훈남(卞勳男),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약묵(金若默), 지례 현감(知禮縣監) 노진(盧禎), 칠원 현감(漆原縣監) 신사형(辛士衡), 선산(善山)에 사는 전 군수(郡守) 김취문(金就文) 이상 14인에게는 각기 향표리(鄉表裏) 1습(襲)을 하사하였다.</p> <p>【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74장 B면 【국편영인본】 20책 104면</p>

### 3. 문헌별 엮근 피선거종 전팽령(全彭齡) 또는 김팽령(金彭齡) 표기 내용 파악

문헌명	문헌 주요내용	제작시기	청백리 명단	출전근거
<p>관련근거 ①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11월 4일 임오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p>	<p>대사헌 이준경(李浚慶),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임호신(任虎臣)과 주세붕(周世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개(金鑑), 전 대사성 이항(李滉), 전한(典翰) 송찬(宋贊), 부장(部獎) 허세린(許世麟), 군기시 별좌 (軍器寺別坐) 안잠(安潛), 행 사용(行司勇) 김팽령(金彭齡), 사재감 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이상 10인은 엮근으로 피선되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다</p>	<p>1552년</p>	<p>행사용 김팽령</p>	<p>조선왕조 실록</p>
<p>관련근거 ② 대동장고 (大東掌攷)</p>	<p>이는 단군 이래 조선조 순조 때까지의 국 명, 성씨, 연대 등을 적은 책으로 홍경모 가 순조 때에 편찬한 것이며, 그 명단은 121명으로 되어 있다. 전 13책 중 권12에 기록된 "청백"편이 본 연구의 청백리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청백리 관련 명단 이 일괄적인 집성문헌으로서 본 연구를 위 해 사용된 전거 가운데 최고이며 가장 근 거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대학 교 규장각에 소장되어(규956)있다.</p>	<p>저작자 홍경모  순조 연간 (1800년 3월23일 ~ 1834년 12월13일</p>	<p>전팽령 또는 김팽령 기록없음</p>	
<p>관련근거 ③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p>	<p>우리나라 상고로부터 대한제국 말기에 이 르기까지 문물제도를 분류·정리한 250권 50책 인본이다. 최초 편찬은 1770년(영조 46) 홍봉한 등이 왕명에 의해 공사의 실기 를 참고하여 100권을 편찬하였으며, 동국 문헌비고라고 하였다. 1782년(정조6년)에 이르러 이만운에게 명하여 보편하였으며, 그후 고종 때 3차 보편으로 1908년에 간 행하여 "증보문헌비고"라 하였으며, 1957 년 동국문화사에 상·중·하 국판을 영인했 다, 이 문헌비고의 선거록에 청백리 명단 142명이 수록되어 있다.</p>	<p>1903년부 터 1908년 사이에 칙명으로 편찬,</p>	<p>사용 전팽령</p>	
<p>관련근거 ④ 한국역대인물종합 정보시스템 자료</p>	<p>121. 김팽령(金彭齡): 「『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1551) 11월 10일」 기사를 보면 전팽령(全彭齡)이 엮근(廉謹)에 선발된 기사가 있다. 이로 보아 경주인 김팽령이 아니라 청백리는 옥천인 전팽령(全彭齡)이라는 주장이 있음.</p>	<p>한국학중 앙연구원</p>	<p>명종 때 청백리 121번으로 김팽령 (金彭齡)</p>	<p>전고대방, 청선고</p>

문헌명	문헌 주요내용	제작시기	청백리 명단	출전근거
<p>관련근거 ⑤ 청선고(淸選考)</p>	<p>이는 조선 초기부터 구한말까지 동·서양반의 주요 관직 및 직계별로 일대선집한 것으로서 편저자는 확실하지 않으나, 규장각의 주요 존각으로서 열조의 어제, 어필, 어화, 고명 등의 봉안을 전담하여 왔던 봉모당에서 이관되었다. 책 자체가 정제후저에 사자생에 의해 정성껏 필사되어 황색문화문명주로 화려하게 배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각까지도 명주로 여보강되고 제침이 정중하게 첨부되어 있는 점 등 그 책의 전래와 장책의 형태를 아울러 고려하며 피리 규장각에서 사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작성년대는 광무 10년(1906)2월 이후 얼마 안되어 이루어진 것 같고, 여기에는 권7에 청백향이 있으며 189명의 청백리명단이 실려 있다. 수록 대상은 조선 태조 때로부터 영조 때까지이다.</p>	<p>1906년 대한제국 저작자 미상</p>	<p>121번 경주김씨 사용 (司勇) 김팽령 (金彭齡)</p>	<p>권7, [청백(淸白)]</p>
<p>관련근거 ⑥ 전고대방 (典故大方)</p>	<p>우리나라 구지식인들이 국사지식 내지 인물상식을 넓히려고 사전이나 핸드북 같이 사용하던 책으로서 인명록 내지 인물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서의 저자는 대동기문(1926), 동국전란산(1928), 진주강씨제보등의 서를 저작·발간한 강효석이며, 1924년 서울 한양서원에서 연활자본 4권 1책으로 초판된 이래 몇차례나 판을 거듭하였던 유명한 책이다. 청백리록이 2권에 있으며 조선 태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218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서론적인 글이 실려 있으며 명단도 대체로 정확한 편이다.</p>	<p>1924년 강효석이 간행한 전기.</p>	<p>121번 사용 김팽령</p>	<p>권2, [청백리 록 (淸白吏錄)]</p>
<p>관련근거 ⑦ 송정선생문집 (松亭先生文集)</p>	<p>임자년(1552년) 가을에 사용(司勇)주1)에 배수(拜授)되고, 겨울 11월에 영근(廉謹=淸白吏)에 피선되니, 왕명에 의해 대궐의 뜰에서 잔치를 베풀고 일등악(一等樂)을 하사하였으며, 각각 단목(丹木)과 호초(胡椒)를 차등이 있게 하사하고, 어눌때에 이르러 다시 백납촉(白蠟燭)을 각각 1쌍씩을 하사하였으며, 외임(外任) 피선인에게는 각각 표리(表裏) 한습씩을 하사하시었다.</p> <p>영근(廉謹)으로 피선된 사람은 호조판서 안현석(安玄石), 참찬(參贊) 박수량(朴守良), 평안감사 홍섬(洪暹), 좌승지 홍담(洪曇), 우승지 성세장(成世章), 대사간</p>	<p>1968년 5월</p>	<p>행사용 (行司勇) 전팽령 (全彭齡)</p>	<p>송정선생 문집 권2 연보 (松亭先生 文集 年譜)</p>

문헌명	문헌 주요내용	제작시기	청백리 명단	출전근거
<p>송정선생문집 (松亭先生文集)</p>	<p>윤춘년(尹春年), 판교(判校) 윤현(尹鉉), 좌통례(左通禮) 윤부(尹釜), 장령(掌令) 윤훈(尹渾), 제용부정(濟用副正) 우세겸(禹世謙), 사복시정(司僕寺正) 박영준(朴永俊), 사복부정(司僕副正) 임보신(任輔臣),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정종영(鄭宗榮), 부교리(副校理) 박민헌(朴民獻), 공조정랑(工曹正郎) 이증영(李增榮), 내성직장(內膳直長) 김몽좌(金夢佐) 등 19인은 연회(宴會)에 참여를 하였고, 대사헌 이준경(李浚慶), 동지중추(同知中樞) 임호신(任虎臣), 주세붕(周世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개(金鎧), 전대사성(前大司成) 이황(李滉), 전한(典翰) 송찬(宋贊), 부장(部將) 허세린(許世麟), 군기별좌(軍器別坐) 안잠(安潛), <b>행사용(行司勇) 전팽령(全彭齡)</b>, 사재감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등 10인은 병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외임피선인(外任被選人) 회령부사(會寧府使) 이영(李榮), 강계부사(江界府使) 김순(金洵), 나주목사(羅州牧使) 오상(吳祥), 상주목사(尙州牧使) 신잠(申潛), 밀양부사(密陽府使) 김우(金雨), 온양군수(溫陽郡守) 이중경(李重慶), 예천군수(醴泉郡守) 안종전(安從堧), 강양부사(江陽府使) 김확(金擴), 신계현령(新溪縣令) 유언겸(俞彦謙), 금구현령(金溝縣令) 변훈남(卞勳男), 한산군수(韓山郡守) 김약묵(金若默), 지례현감(知禮縣監) 노정(盧禎), 칠원현감(漆原縣監) 신사형(辛士衡), 전군수(前郡守) 김취문(金就文) 등 14인은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p> <p>이상 청백리에 관한 사항은 명종대왕실록에 나오고, 효종조의 명(命)을 고거(考據)하였으며, 명종조 지춘추관사 이후원(李厚源)과 한림(翰林) 홍주삼(洪柱三)이 승명(承命)함을 고거(考據)하였고, 적상산성(赤裳山城)의 사기(史記)에도 나온다.</p>			

문헌명	문헌 주요내용	제작시기	청백리 명단	출전근거
관련근거 ⑧ 조선의 청백리 222	“대동장고 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증보 문헌비고에는 사용(司勇) 전패령으로 되어 있고 청선고와 전고대방에는 김팽령(金彭齡)으로 되어 있는데 명종실록을 보면 염근리로 선정된 사람을 보고 할 때는 전패령, 연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김팽령(金彭齡)으로 되어있으나 명종실록의 전후 기록을 보면 전패령이 맞음”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2012 문학박사 조성린	전패령	
관련근거 ⑨ 별첨25 옥천읍지	상주(尙州)를 말고 있을 때, 대신(大臣)이 학식으로서 천거하여, 특별히 당상계(堂上階)에 올라서 강원감사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조정에서 청백리 10인을 선발하여 궁궐마당에서 하사하였다. 공은 이때 집에 있었는데, 특별히 단목(丹木)과 호초(胡椒)로써 총애를 내렸다.	1824년~ 1834년경 작성	전패령	옥천읍지 2005년 옥천문화 원 발간 번역45쪽 원문25쪽 참조
관련근거 ⑩ 별첨 26 국역 관성사마안 (옥천군 발행)	28)전패령(전패령, 1480년~1560년) : 전패수의 아우. 옥천인, (중략) 조정에서 청백리 10인을 선발하여 궁궐마당에서 하사하였다.(후략)	1627년	전패령	국역 관성사마 안 54쪽

주1) 사용(司勇) : 조선 시대, 오위(五衛)의 정9품(正九品) 군직(軍職). 부사용(副司勇)의 위, 부사명(副司猛)의 아래로 수효는 24명이었다.

#### 4. 전팽령선생 청백리 피선관련 옥천전씨 문중 문헌 근거 파악

##### 4.1 옥천전씨 문중 문헌 청백리 피선근거 파악

문헌명	문헌 주요내용	저자 및 간행시기	출전근거
관련근거 ① 별첨12 송정선생문집 권지 2 연보	壬子先生七十三歲 秋拜司勇冬十一月被選廉謹 命賜宴於闕庭 賜一等樂各賜丹木胡椒有差至昏復~行司勇 全彭齡 司宰監正 姜允權等 十人病未參宴  (임자선생칠십삼세 추배사용동십일월피선염근 명사연어귄정 사일등악각사단목호초유차지훈복~행사용 전팽령 사재감정 강윤권등 십인병미참연)	전윤석, 전일하  1968년	적상산성 사기
관련근거 ② 별첨13 송정선생문집 권지 2 행록	上命選清白十人 賜宴闕庭先生與退溪李先生東臯李先生並 參是選而在外不得參宴  (상명선청백십인 사연귄정선생여퇴계이선생동고이선생 병참시선이재외불득참연)		칠송 (七松) 김경백찬 (金敬伯撰)
관련근거 ③ 별첨14 송정선생문집 권지 2	上命選清白十人 賜宴闕庭先生與退溪李先生東臯李先生並 參是選而在外未參時特頒賞 (상명선청백십인사연귄정선생여퇴계이선생동고이선생병 참시선이재외미참시특분상)		종현손 사산감역 전극념찬
관련근거 ④ 별첨15 송정선생문집 권지 2 유사	朝廷選廉謹十人 賜宴闕庭先生其選中人也 (조정선염근십인 사연귄정선생기선중인야)	고암 정립 (顧菴 鄭瑩) (1554~1640)	출 고암 정립문집
관련근거 ⑤ 별첨16 송정선생문집 권지 2	上選清白十人 賜宴闕庭先生居其一而終不參 (상선청백십인 사연귄정선생거기일이종불참)		출 정원건 문집
관련근거 ⑥ 별첨17 송정선생문집 권지 2	朝廷選廉謹十人 賜宴闕庭先生在家依他受賞 (조정선염근십인 사연귄정선생재가의타수상)		출 삼양록 후애 이시립찬
관련근거 ⑦ 별첨18 송정선생문집 권지 2	全松亭學識廉謹大臣以舉陞堂上 賜清白宴天稟순美自 (전송정학식염근대신이거승당상 사청백연천품순미자)		출 청한 정익경 현지
관련근거 ⑧ 별첨19 송정선생문집 권지 2	命賜廉謹十人宴于 闕庭各 賜胡椒一 斗丹木十五片 松亭則在鄉家病不赴宴 (명사염근십인연우 귄정각 사호초일 두단목십오편 송정즉재향가병불부연)		출 정고암립 일기

문헌명	문헌 주요내용	저자 및 간행시기	출전근거
관련근거 ⑨ 별첨20 송정선생문집 권지 2	先生在 明廟朝以司勇被選廉謹壬子冬十一月 命賜宴於闕庭 賜一等樂各 賜胡椒丹木有差至昏復賜白蠟燭各一雙 (선생재 명묘조이사용피선염근임자동십일월 명사연어귤정 사일등악각 사호초단목유차지혼복사백랍촉각일쌍)		출 적상산 사기
관련근거 ⑩ 별첨21 송정선생문집 권지 2	嘉靖甲申釋褐自平安評事累遷至關東伯不就與選 清白十人 賜宴闕庭公在外未參 (가정갑신역갈자평안평사누천지관동백불취어선 청백십인 사연귤정공재외미참)		출 낙동 명신록
관련근거 ⑪ 별첨22 송정선생문집 권지 2	朝廷選清白十人 賜宴闕庭公時在家特以丹木胡椒寵賜退老 鄉 (조정선청백십인 사연귤정공시재가특이단목호추총사퇴노 향)		출 여지승람
관련근거 ⑫ 별첨23 창주선생문집 권지 2 송정선생 유사(행장)	上命選清白十人 與宴闕庭先生與其薦而在外未參特領賞賜 以寵之先生 (상명선청백십인 여연귤정선생여기천이재외미참특령상사 이총지선생)	전극념 (全克恬) (1597~1660)  간행시기 미상	창주선생 문집 2권 16쪽
관련근거 ⑬ 송정선생문집 연보	1549년(70세) 가을 상주목사에 제배(除拜)	전윤석, 전일하 1968년	
관련근거 ⑭ 송정선생문집 연보	1550년(71세) 1월14일 상주목사시 염근관련 통정대부 에 특승(特陞)	상동	

● 상산지(商山誌) : 상산지는 창석 이준이 최초로 편찬한 경상북도 상주의 읍지(邑誌)로 7권 3책이다.

## 4.2 조선시대 행수법제도와 체아직 제도

### 4.2.1 행수법(行守法)

새로 보임된 관직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이라고 하며 그 직은 '행직'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라고 하며 그 직은 '수직'(守職)이라고 한다.

품계는 관직세계의 위계로서 모든 관리들에게 광범하게 주어지는 데 반해 관직은 일정한 수가 제한되어 있고 관리들의 역량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는 관직제의 운영상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품계와 관직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수법을 실시했다.

그런데 낮은 품계였던 자가 높은 관직을 차지해 관료사회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많아지자, 1449년(세종 31) 6월부터 행수직의 제수범위를 1계(一階)에 국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유정난과 같은 정치사건에서 공을 세워 갑자기 승진한 자가 많아지자 이러한 제한 규정도 곧 무너지게 되었으며, 당상관이면서도 8·9품 군직을 행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경국대전>에 7품 이하는 2계(二階), 6품 이상은 3계(三階) 이상을 수직으로 올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행수법에서 직함을 쓸 때 행·수는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썼는데, 직함을 표시할 때 먼저 품계를, 다음에 행·수를, 그뒤에 관사와 직사를 쓰게 되어있었다.

### 4.2.2 체아직(遞兒職)

조선시대의 관직에는 실직(實職)과 산직(散職)이 있고, 실직에는 녹관(祿官)과 무록관(無祿官)이 있으며, 녹관은 다시 정직(正職)과 체아직(遞兒職)으로 구분된다.

체아직은 예전에 현직을 내놓은 문·무관에게 주는 벼슬을 이르던 말로 조선시대 녹관(祿官)이 일정기간 복무하고 현직에서 체거(遞去)되면, 이들의 신분과 생활을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체아직에게 지급되는 녹봉을 체아록(遞兒祿)이라고 하여 일반 녹관과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체아직은 관청에 이름만 걸어 놓고 녹봉(祿俸)만 받았다. 또한, 세조때 이래 당상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퇴직한 한산자(閑散者)와 불가피하게 관직을 주어야 할 사람이 늘어났고 이들에게 체아직을 주게 되었다.

주1) 체거(遞去) : 벼슬을 내놓고 물러감

### 4.3 분석의견

4.3.1 송정선생문집 연보에 보면 『1552년(임자년) 가을에 사용(司勇)에 배수(拜授)되고, 겨울 11월에 염근(廉謹=清白吏)에 피선되었으며, 대사헌 이준경(李浚慶), 동지중추(同知中樞) 임호신(任虎臣), 주세봉(周世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개(金鎧), 전대사성(前大司成) 이황(李滉), 전한(典翰) 송찬(宋贊), 부장(部將) 허세린(許世麟), 군기별좌(軍器別坐) 안잠(安潛), **행사용(行司勇) 전팽령(全彭齡)**, 사재감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등 10인은 병

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 (중략)  
이상 청백리에 관한 사항은 명종대왕실록에 나오고, 효종조의 명(命)을 고거(考據)하였으며, 명종조 지춘추관사 이후원(李厚源)과 한림(翰林) 홍주삼(洪柱三)이 승명(承命)함을 고거(考據)하였고, 적상산성(赤裳山城)의 사기(史記)에도 나온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특이점은 사용(司勇)은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 9품의 무관직이다. 또한 상주목사 퇴임 후 쉬고 있을 때 염근포상이 있었으므로 최종관직이 상주목사인데 목사는 조선 때 각 목(牧)의 으뜸 벼슬로 정 3품의 문관직이다. 따라서 정3품의 문관직을 지내신분이 정9품의 무관직을 이어 임명받았다는 것이 의아스럽다. 하지만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행수법(行守法)과 체아직(遞兒職)제도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행수법을 보면 세조때 이래 당상관(정3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상관이면서도 8, 9품 군직을 행직으로 주었고, 조선시대 녹관(祿官)이 일정기간 복무하고 현직에서 체거(遞去)되면, 이들의 신분과 생활을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한 체아직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전팽령 선생이 상주목사(정3품) 퇴임 후 체거(遞去) 되면서 체아직제도에 따라 정9품의 사용(司勇)의 벼슬을 받다보니 행수법에 따라 행 사용(行 司勇)이라고 관직명을 붙였고, 이때 청백리에 피선되면서 행사용 전팽령을 행사용 김팽령으로 기록 착오가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4.3.2 송정선생문집에서 출처를 밝힌 송정 전팽령선생의 청백리 10인 피선관련 내용은 특히 송정선생의 따님이 시집가서 송정 전팽령선생의 사위가 된 동강 정유건선생의 문집, 송정 전팽령선생의 외손인 고암 정립문집, 낙동 명신록, 창주선생 문집 2권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또한 160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주선생문집 내용 중 송정선생의 4대 종후손이며 사서 전식선생의 둘째 아들인 창주 극념이 찬한 송정선생의 유사에도 청백리 10인에 피선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팽령이 아닌 전팽령이 확실하다고 사료된다.

4.3.3 위 3. “문헌별 염근 피선자중 전팽령(全彭齡) 또는 김팽령(金彭齡) 표기내용 파악”을 보면 대동장고에는 전팽령 김팽령 기록이 없고, 증보문헌비고에는 “사용 전팽령”으로 되어 있고, 청선고와 전고대방에는 “김팽령”으로 되어있는데, 350여년이 지난뒤 옛문헌을 정리하면서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교통이 편리한 시절이 아닌 1900년초에 작성한 문헌들이라 보니 명종실록의 “사용 김팽령”만 보고 김팽령의 본관을 추적하다 보니 “경주김씨(부안김씨) 김팽령”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먼저 1824년경에 작성한 옥천읍지에도 전팽령선생이 청백리 10인에 선정된 기록과 포상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 1906년에 작성된 청선고와 1924년에 작성된 전고대방의 김팽령 기록보다 신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4.3.4 송정선생문집 연보와 조선왕조실록의 염근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주목사시 1550년 1월에 염근관련 통정대부에 특승 되고, 같은해 10월 청렴근실하게 고을을 다스린 상으로 자급을 높여주라는 조정의 명이 있었고, 다음해 1551년 11월에 염근 33인에

뽑힌 기록이 있고, 다음해 1552년 3월 경상도 관찰사 이몽량이 염근한 수령인 상주목사 전팽령등 4명을 염근으로 천거한 기록, 같은해 1552년 11월 4일 염근인과 근근인들에게 염근포상시 행사용(行司勇) 김팽령(金彭齡), 사재감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이상 10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나와 있다. 따라서 송정 전팽령선생연보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앞뒤 사서 전식 선생의 둘째아들 창주 극념의 문집, 옥천읍지등 여러기록을 볼때 행사용 김팽령이 아닌 전팽령이 확실하다고 사료된다.

5. 타 문중 전팽령선생 청백리관련 내용 파악  
(특히 송정 전팽령선생의 외손자인 고암 정립선생의 문헌 분석)

5.1 고암 정립선생 유고(顧菴 鄭靈先生 遺稿) 검토

문헌명	문헌 주요내용	저자 및 간행시기	출전근거
<p>관련근거 ① 별첨24</p> <p>고암선생유고 권지 2</p>	<p>서(書) 별폭(別幅) 내용 중</p> <p>원문 : 時朝廷選廉謹十人賜宴闕庭公其選中人也 (시조정선염근십인사연궐정공기선증인야) 慙赧不敢進猶以賞賜物件盡分于鄰鄉老病之年謹 勅益嚴子弟 (참난불감진유이상사물건진분우인향노병지년근 칙익엄자제)</p> <p>번역문 : 당시 조정에서 청렴을 선발했는데 겨우 10인 이었습니다. 대궐 뜰에서 연회를 하사 했는데 공(전팽령)은 그 선발된 사람 중의 한사람이 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나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상으 로 하사한 물건들을 모두 마을 이웃에 나누 어 주었습니다. 노병이 든 나이에 경계하여 삼가고 더욱 자제들에게 엄격했습니다.</p>	<p>고암정립 (1554~1640)</p> <p>1935년 후손 정상필편저</p>	<p>역주 고암선생 유고 P. 131 참조 : 옥천군 옥천문화 원 발간</p>
<p>관련근거 ② 별첨31</p> <p>고암선생유고 권지 3</p> <p>부록1권 연보</p>	<p>전팽령선생의 생졸기간은 1480년~1560년이고, 정유건선생의 생졸기간은 1506년~1584년이며, 정립선생의 생졸기간은 1554년~1640년이다.</p>	<p>고암정립 (1554~1640)</p>	<p>역주 고암선생 유고 옥천군 옥천문화 원 발간</p>
<p>관련근거 ③ 고암선생유고 부록1권 연보</p>	<p>정립선생의 아버지는 정유건이고, 어머니는 옥천전씨 (沃川全氏)로 관찰사 전팽령(全彭齡)의 딸이며, 전팽령선생은 정립선생의 외조부이다.</p>	<p>고암정립 (1554~1640)</p>	<p>상동</p>
<p>관련근거 ④ 고암선생유고 부록1권 연보</p>	<p>정립선생이 7세때인 1560년 6월22일에 외조부이신 송 정 전팽령선생의 상을 당했다</p>	<p>고암정립 (1554~1640)</p>	<p>상동</p>
<p>관련근거 ⑤ 고암선생유고 부록1권 연보</p>	<p>정립선생이 31세때인 1584년 3월25일에 부친인 동강 정유건선생의 상을 당했다.</p>	<p>고암정립 (1554~1640)</p>	<p>상동</p>
<p>관련근거 ⑥ 고암선생유고 부록1권 연보</p>	<p>정립선생이 33세때인 1586년 2월16일에 모친인 전부인 (全夫人)의 상을 당했다</p>	<p>고암정립 (1554~1640)</p>	<p>상동</p>
<p>관련근거 ⑦ 별첨32</p> <p>정립선생 문적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 지정 예고관련 기사</p>	<p>정립선생의 문적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04호로 등 록(2020.11.12.)될 정도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p>		<p>뉴시스 신문 (2020.07 .04.)</p>

## 5.2 분석의견

고암(정립)선생유고 내용을 살펴보면 전팽령선생의 따님이 정유건선생에게 시집을 가서 정유건선생이 사위가 되었고, 송정 전팽령선생은 정립선생의 외조부가 된다. 정립선생이 7세에 외조부인 전팽령선생이 돌아가셨으나 정립선생의 어머니는 전팽령선생의 따님으로 외조부인 전팽령선생에 대해 아버지(정유건)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정립선생 나이 31세) 들었을 것이고, 어머니한테도 33세까지 들었을 것이며, 전팽령선생과 정립선생은 고향이 옥천군 동이면으로 같아 외조부인 전팽령선생의 행적은 누구 보다 잘 알 것이다. 특히 고암선생유고 권지 2의 별폭에서 전팽령선생에 대한 인품 및 처신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고, 당시 조정에서 염근 10인을 선발했는데 그중 한분으로 대궐에서 연회시 나아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고암선생유고 역주 131쪽 참조) 고암의 생존기간인 1554년~1640년에 작성된 기록으로 어떤 문헌보다 신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6. 경주(부령)김씨 김팽령 벼슬관직 및 청백리 피선거 존재여부 파악과 문중 자문

### 6.1 부령김씨(부안김씨) 김팽령 검토

구분	주요내용	출전근거
관련근거 ① 김팽령(金彭齡, 1455~1512) 유장	세조 원년 을해(乙亥)생(1455년), 형 팽석은 판관, 병오(丙午)(1486년)식년시 진사, 정덕2년(1507년) 중묘(중종2년) 정묘(1507년) 8월 시과(문과급제), 학정, 기사년 승문원 박사로 승진, 임신(壬申)년(1512년) 봄 별세	부령김씨 족보 박사공(김팽령) 유장
관련근거 ② 부령(부안)김씨 대종회 김창원 회장 통화의견 (청주 전두규 목사님 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안김씨 김팽령의 생졸기간은 1455년~1512년으로 1507년에 문과 급제하여 정7품 승문원 박사가 최종 관직임.</li> <li>- 조선왕조실록에 행사용 김팽령이 염근 10인에 피선 되었으나 건강문제로 불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령김씨 문중에서 염근에 피선된 분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나 김팽령의 형님이 김팽석이 있는데 두분다 문과 급제는 했으나 염근에 피선된 기록은 족보에 없다고 답변하심.</li> <li>- 사용(司勇)은 무과 정9품으로 청백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심.</li> <li>- 부령김씨 과한록에 사용 벼슬한 김팽령이 없음.</li> <li>- 경주김씨 중 김팽령이란 분이 청백리에 피선된 분이 있는지 확인가능여부 문의했으나 경주김씨는 워낙 인구수가 많아 대종회가 없고 파별로 대종회가 있어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하심.</li> </ul>	2021.06.17. 통화내용 요약
관련근거 ③ 김팽령 청백리관련 자료	<p>대사헌 이준경(李浚慶),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임호신(任虎臣)과 주세붕(周世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개(金鎧), 전 대사성 이황(李滉), 전한(典翰) 송찬(宋贊), 부장(部獎) 허세린(許世麟), 군기시별좌(軍器寺別坐) 안잠(安潛), <b>행 사용(行司勇) 김팽령(金彭齡)</b>, 사재감 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이상 10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다</p> <p>현재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백리 명단에 전팽령은 없고 아래내용과 같이 121번 김팽령이 청백리명단에 있다.</p> <p>121 김팽령(金彭齡) 경주(慶州) 중종(中宗) 2년(150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23위, 성종(成宗) 17년(14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p>	<p>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11월 4일 임오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p> <p>- 출전 : 『전고대방(典故大方)』 (국립중앙도서관 [古2513-416]) 권2, [청백리록(清白吏錄)] 『청선고(淸選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603]) 권7, [청백(淸白)]</p>

博士公遺狀

公諱彭齡字頤叟系出扶寧高麗平章事諡文貞公諱坵之十世孫也自文貞歷忠宣公諱汝孟平章事諱恪尚書諱之罔大提學諱龍壽中郎將諱仁鼎世有冠冕為麗名家高祖諱光叙知麗運將訖恥事二姓與伯氏少尹公諱世英大歸貫鄉曾祖諱璫始入李 朝官大護軍祖諱懷慎號草堂文科評事侍直以孝友學行享東林院考諱銑號聽菴堂官直長妣文化柳氏縣監孟江女竹堂處士朴從壽之外曾孫也 世祖乙亥生公于窰井本第公自髫齡孝誠根天奉養母氏靡不用極與伯氏判官公友愛甚篤早承母氏嚴課文藻闡世年三十二以親命中丙午進士第十六人與金濯纓駙孫宋府院君演孫鄭新堂鵬同榜 正德

二年 中廟丁卯八月試科以表策並製登丙科七八柳石軒沃孔大司憲瑞麟羅建溪安世蘇屏菴世良皆為同年共揚清譽朝廷賀得人戊辰由成均學諭輔移學錄學正己巳陞承文院博士堂中廟朝有文治之意擢用趙靜菴諸賢唐虞之治指日可復時南哀沈貞之輩有嫁禍士林之幾故與再從甕泉公錫弘成清湖重淹崔進士弼成同歸鄉園無意仕進處於家塾教誨子弟琴書自娛講究性理蓋金濯纓終為戊午之被禍故逆知其己卯之事而不肯取仕也壬申春考終於家十月日葬于釜池山考墓西過峽從李氏之合兆也配宜人李氏父府使諱生一男禹禎生員后配宜人鄭氏府使思孟女生一男一女男禹祥生員號四友堂乙巳之後除職不就女適參奉孫重老其子弘績文翰林乙巳賢立祠禹禎生二男伯胤仲胤皆參奉禹祥生二男一女男英武參奉次英介女適參奉宋久忠鄭氏墓附公墓有表石謹據家牒而略書

（一）

6.3 김팽령 및 김팽석 과거 및 취재(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The screenshot displays the profile of Kim Pang-ryeong (김팽령) on the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website. The interface includes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with categories like '인물 생애 정보', '과거 및 취재', '문과', '무과', '사마(생원)', '사마(진사)', '잡과', '고려문과', '고려사마', '취재', '음관', '관인정보', '인명용례', and '관직명 사전'.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과거 및 취재' and features a sub-header '김팽령(金彭齡)'. Below this, there are tabs for '상세정보', '자료수정내역', '원문이미지보기', '방목정보', and '오류신고'. The '상세정보' tab is active, showing the following details:

- [문과] 중종(中宗) 2년(1507)[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23위(33/33)**
- [인물요약]**
  - UCI: G002+AKS-KHF\_13AE400330B839U9999X0
  - 자(字): 이숙(爾叔)
  - 본인본관: 부령(扶寧)
  - 거주지: 미상(未詳)
- [관련정보]**
  - [\[진사\] 성종\(成宗\) 17년\(14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 [이력사항]**
  - 선발인원: 33명 [一等3-二等7-三等23]
  - 전력: 진사(進士)
  - 관직: [성균관학정\(成均館學正\)](#)
  -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 미상(未詳)
  - 타고: 성종(成宗) 17년(14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The screenshot displays the profile of Kim Pang-seok (김팽석) on the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website. The interface is similar to the previous one, with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과거 및 취재' and features a sub-header '김팽석(金彭石)'. Below this, there are tabs for '상세정보', '자료수정내역', '원문이미지보기', '방목정보', and '오류신고'. The '상세정보' tab is active, showing the following details:

- [문과] 성종(成宗) 16년(1485) 을사(乙巳) 알성시(調聖試) 3등(三等) 6위(14/16)**
- [인물요약]**
  - UCI: G002+AKS-KHF\_13AE400330C11DU9999X0
  - 본인본관: 부령(扶寧)
  - 거주지: 미상(未詳)
- [관련정보]**
  - [\[생원\] 성종\(成宗\) 14년\(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8위\(38/100\)](#)
- [이력사항]**
  - 선발인원: 16명 [一等3-二等5-三等8]
  - 전력: 진사(進士)
  - 관직: [주부\(主簿\)](#)
  -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 [김여목\(綱與目\)](#)
  - 타고: 성종(成宗) 14년(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8위
- [가족사항]**
  - [부(父)]**
    - 성명: [김선\(金銑\)](#)

6.4 김평령 및 김평석 이력(국립중앙도서관 자료참조)

<p>中宗丁卯</p> <p>見前考一經家高...</p>	<p>司果 朴守紋 <small>元章</small></p> <p>竹火 <small>父安性世租巴別邊</small></p>	<p>生員 任樞 <small>士均 金司馬 翰林司舍人 李李副 李禮恭</small></p> <p>豐川人 <small>父由謙成森巴內邊 母祖李慎世展成子邊</small></p>	<p>進士 孟宗仁 <small>子安 獻納</small></p> <p>新昌人 <small>父福卿 高祖思誠手賜丙寅邊 外祖金重演世康丁卯邊</small></p>	<p>生員 成希周 <small>慈元 金年司馬 康壽正 己亥</small></p> <p>昌寧人 <small>父玩 兄希敬 贈山丙衣 母曾祖李幸福 父 及信</small></p>	<p>進士 金彭齡 <small>頤叔 丙年司馬 學正</small></p> <p>扶安人 <small>父鏡 兄彭石 成保乙巳邊</small></p>	<p>生員 崔重演 <small>潤甫 承旨</small></p> <p>和順人 <small>父榮 頤世租巴內邊 祖士老 世保甲寅邊 兄重演 贈山丙衣邊</small></p>	<p>秉節齋 李權 <small>領叔 典籍</small></p> <p>機張人 <small>父</small></p>	<p>啓功卽 孫台佐 <small>仲卿 尉使</small></p> <p>密陽人 <small>父</small></p>	<p>直長 鄭鐘 <small>和仲 典籍</small></p> <p>奉化人 <small>父叔敬 祖文淵 世保丁卯邊 妻父權 呈橋 庚辰邊</small></p>	<p>都事 朴堪 <small>伯雲 承及正身</small></p> <p>密陽人 <small>父亨林</small></p>
-------------------------------	---	---	---	---	--	--	--	---	--	---

## 6.5 분석의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나와 있는 청백리 121번 김팽령에 대한 과거급제 내용과 부령김씨 김팽령 박사공관련 유장 족보내용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일치한다. 또한 부령(부안)김씨 대종회 김창원 회장 통화내용을 검토해 보면 김팽령이 부안김씨로 병오년 식년시 진사와 정묘년 시과 문과급제의 내용이 일치하고 승문원 박사가 마지막 벼슬이라 하고 청백리를 받은 조상도 없고 김팽령의 유장내용에도 청백리 기록이 없다고 한다. 또한, 부령김씨 과한록의 인물등재내용을 보아도 문과편과 사마편을 보면 김팽령과 그의 형 김팽석이 있고 무과편에는 김팽령이 없다. 사용의 벼슬은 무과이고 김팽령관련 족보의 유장내용을 보아도 사용의 벼슬을 한 내용이 안보이므로 사용 김팽령은 사용(司勇) 전팽령이 확실해 보인다. 설령 부령김씨 김팽령이 청백리에 피선된 것이 맞다고 주장해도 이미 1512년에 사망하신분이 40년 후인 1552년 엮근 포상시 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10인의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더욱더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의 사용 김팽령은 전팽령이 확실하고 기록착오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사료 된다.

참고문헌 : 부령김씨족보 박사공(김팽령) 유장,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11월 4일 임오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전고대방(典故大方)』(국립중앙도서관[古2513-416]) 권2, [청백리록(清白吏錄)],  
『청선고(淸選考)』(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603]) 권7, [청백(淸白)],  
부령(부안)김씨 대종회 김창원 회장 통화의견

## 7. 인터넷 매체내용 분석

### 7.1 한국학중앙연구원(구글)

1480년(성종 11)~1560년(명종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옥천(沃川). 자는 숙로(叔老), 호는 송정(松亭). 아버지는 참판 응경(應卿)이며, 어머니는 작사간 김사렴(金士廉)의 손녀이다. 1504년(연산군 10)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524년(중종 19)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형조와 공조의 좌랑과 정랑을 역임한 뒤, 이어서 사도시첨정(司導寺僉正)·성군관 사성·통례원우통례·평안평사·단천군수, 삼척과 밀양의 부사를 역임하였다. 1550년(명종 5)에 상주목사로 나가 청렴한 처정을 하여 청백리의 별칭인 염근(廉謹)에 선발되어 통정(通政)에 특승되었다. 1559년에 가선(嘉善)에 승직, 부호군이 되었다

### 7.2 조선왕조실록(구글)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10월 5일 을축 1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청렴 근실하게 고을을 다스린 상주 목사 전팽령의 자급을 높이게 하다

상주 목사(尙州牧使) 전팽령(全彭齡)의 자급을 높여 주라고 명했다. 그것은 고을 다스리는 것을 청렴 근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 7.3 조선왕조실록(구글)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3월 9일 신묘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경상도 관찰사 이몽량이 이희안·조식·전팽령·김취문 등을 천거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몽량(李夢亮)이, 초계(草溪)에 사는 전 전옥 참봉 이희안(李希顔)과 삼가(三嘉)에 사는 선비 조식(曹植)을 천거하고, 또 염근(廉謹)한 수령인 상주 목사(尙州牧使) 전팽령(全彭齡), 영천 군수(永川郡守) 김취문(金就文), 지례 현감(知禮縣監) 노진(盧禎)을 천거하였다. 【이희안(李希顔)은 재행(才行)이 뛰어나고 효우(孝友)가 독실하여 모상(母喪)에 3년 동안 한번도 집으로 가지 않고 최질(衰絰)을 벗지 않았으므로 중묘소(中廟朝)에 천거되어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사은(謝恩)하고 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문(官門)에 발길을 끊고 비의(非義)의 물건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온 고을이 모두 흠모하였다. 조식(曹植)은 방정(方正)하고 염결(廉潔)한 사람으로 형제와 같이 살면서 자기의 재물을 사축하지 않았으며, 학문에만 뜻을 두고 과거(科擧)는 일삼지 않았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최질을 벗지 않았으며, 집에 곡식 한 섬 없어도 항상 태연하였다.】

### 7.4 옥천보도자료(구글)

옥천군 두 번째 역사. 문화 인물지 발간 2018.11.06

충북 옥천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한 두 번째 인물지가 발간됐다.

지난 2011년 정지용, 송건호, 정순철 선생 등 옥천 출신 20인의 업적을 담은 첫 번째 인물지 발간 이후 두 번째로, 1집에서 다루지 않은 숨은 인물을 발굴해 엮는데 주력했다.

옥천 출신 또는 옥천과 관련돼 지역을 빛낸 인물로, 이미 작고하신 분들 중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으며 학술적 가치가 높은 24인을 최종 선정했다.

**충절의 역사인물인 송정 전팽령**, 경재 남수문, 괴정 오상규 선생을 비롯해 유학자 수옹 송갑조, 입재 송근수, 고암 정립 선생 등이 수록됐다.

특히, **송정 전팽령(松亭 全彭齡)** 선생은 현 동이면 금암리(1480~1560) 출신 조선시대 성리학자로,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에게 내려진 조선시대 최고의 영예인 청백리상을 받았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전식, 전유 선생을 포함해 전팽령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동이면 금암리 목담영당에서는 매년 춘향제가 열린다.

명성이나 이익을 쫓지 않고, 정의롭고 진실한 생활관으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 온 전팽령 선생이야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지역민의 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의병과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동천 이충범, 김현구, 김철수, 허상기 선생의 업적도 소개돼 있다.

옥봉 이숙원, 육정수, 전형, 이은방 등의 문화예술인과 정구삼, 신각휴, 육인수, 청람 정구영, 박준병 등의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다.

하동철, 석전 육지수, 소정 정구충 등의 교육자와 검도개혁자 이교신, 권투세계 챔피언 이열우 등의 체육인도 수록됐다.

(사)옥천향토사연구회는 이번 책자 발간을 위해 14명의 자문위원과 21명의 집필위원을 꾸려 다양한 역사인물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월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옥천군지, 역사서 등 참고문헌과 수차례의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집필에 들어갔다.

총 585쪽으로, 각 장마다 인물에 대한 업적 설명과 함께 가족과 주변인물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으며 생전 사진 등도 다수 포함돼 기록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과 이 연구회는 책자 600부를 각 학교와 도서관, 기관, 단체 등에 배부해 선각자들의 많은 활동과 학문 사상 등을 널리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하 회장은 “어려운 여건과 한정된 기간 내 역사적인 사실과 옛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위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 주셨다”며 “이번 인물지를 통해 우리 군민들이 새로운 것으로 알고 이해하며 다양한 곳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7.5 2008jsl님의 블로그(구글)

전팽령 | 청백리 222

전팽령 (全彭齡) : 성종 11 년 (1480)~명종 15 년 (1560)

할아버지는 석성현감 전효순(全孝順)이고 아버지는 전응경(全應卿)이며 어머니는 김력(金勵)의 딸이다 . 본관은 옥천(沃川)이고 자(字)는 숙로(叔老)이며 호는 송정(松亭)이다 .

연산군 10 년 (1504) 생원시에 합격하고 중종 19 년 (152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 형조와 공조의 좌랑과 정랑을 지내고 사도시 첨정 (僉正) · 성균관 사성 · 통례원 우통례 · 평안평사 · 단천군수를 거쳐 삼척부 사 · 밀양부사를 지냈다 .

명종 5 년 (1550) 상주목사로 나가 청렴하고 근실하게 고을을 다스린다고 특별 승진하였고 명종 7 년 (1552) 염근리 (廉謹吏)에 선정되고 통정대부가 되었으나 얼마 후 병으로 사직하였다 1559 년 가선대부로 품계를 올려주고 부호군을 제수하였다 .

벼슬을 하면서 항상 삼가고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너그럽고 간편하며 덕으로 다스리니 그가 떠나고 나면 그를 사모하고 그리워하였다 . 말년에 들어서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을 벗 삼아 한가로이 여생을 보냈다 .

\*\* 대동장고 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증보문헌비고에는 사용 (司勇) 전팽령으로 되어 있고 청선고와 전고대방에는 김팽령(金彭齡)으로 되어 있는데 명종실록을 보면 염근리로 선정된 사람을 보고 할 때는 전팽령, 연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김팽령 (金彭齡)으로 되어 있으나 명종실록의 전 후 기록을 보면 전팽령이 맞음 .

[출처]전팽령 |작성자 2008jsl 문학박사 조성린

## 7.6 옥천향수신문 기사(2018.11.23.)

### 올곧은 선비의 자세 후세에 남기다.

옥천향수신문 도복희 기자

어려움 당한 이에게 음식 나누며 빈민구제 성균관별시 장원급제, 삼척부사 등 관직 제수

#### ▲ 송정 전팽령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는 청백리에 선정된 전팽령 선생께서 살던 '반송대가'가 있는 곳이다. 양신정과 목담서원이 있고, 송정공의 아들 전엽의 효자비가 있다. 효자에 대한 설화가 담긴 호천이 있다. 옥천의 자랑인 청백리 전팽령 선생에 대한 행적과 그간 삶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송정 전팽령 선생은 1480년(조선 성종 11년) 11월 10일 옥천의 기사천리에서 출생했다. 선생의 본관은 옥천이고, 자는 숙로이며, 호는 송정이다. 전오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석성현 감 전효순이고, 아버지는 참판 전응경, 어머니는 좌사간 김사렴의 손녀로 김력의 딸이다. 기사천은 선생의 5세조인신 관성군공이 고려의 운이 기움을 당하자 충신은 두 성을 섞기지 않는다는 '불사이군'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옥천으로 내려와 은둔하며 살게 된 것

## 7.7 옥천향수신문 기사(2021.03.04.)

### 강직한 인품의 청백리 송정 전팽령 선생

옥천향수신문 김수연 기자

송정 전팽령 선생(松亭 全彭齡 先生)

송정 전팽령 선생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커 자신의 봉급으로 빈민들의 배고픔을 덜어 주기도 했다.

돈은 자주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수사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고위 관리직들의 뇌물수수 행위가 틈만나면 대서특필되는데 포렌식 복구 방법도 없었던 과거에는 이와 같이 뇌물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를 세우거나 반정을 일으켜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데 성공한 공신들 또한 뇌물을 받는 행위가 빈번했음이 기록에 나와있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단어로는 '매관매직'이 있다.

고위직들이 돈을 받고 과거 시험 합격, 추천 등을 보장하며 관리직을 팔았던 것.

이렇듯 시대와 시대를 꿰뚫고 돈의 유혹이 그치지 않았지만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일컫어 '청백리'라 부른다.

‘청백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모범 관료에게 수여되는 명칭으로 조정에서 청렴결백한 관리로 뽑히는 것이며 동료들의 평가,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정부의 검증절차, 2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 사간원장급의 추천을 통해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 통틀어 총 217명이 선정됐는데 동이면 적하리에서 태어난 송정 전팽령 선생도 그 중 한 사람이다.

1480년 조선 성종대에 태어난 송정은 8세 때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소학을 공부했고 18세부터는 과거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25세에 생원시를 합격하고 관시와 별시에서 연달아 장원으로 합격했으며 7년 후인 32세에는 장악원별시에서 장원급제하는 큰 업적을 이뤘다.

## 7.8 옥천의 역사 인물 - (사)옥천향토사연구회 발간

(사)옥천향토사연구회, 옥천 인물 24인의 생애 담은 인물지 발간

기자명 충북세종 취재본부 조운찬 기자 승인 2018.11.06 15:20 댓글 0

옥천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 생애와 업적 정리

【옥천=서울뉴스통신】 조운찬 기자 = 6일 (사)옥천향토사연구회 따르면, 충북 옥천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한 두 번째 인물지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2011년 정지용, 송건호, 정순철 선생 등 옥천 출신 20인의 업적을 담은 첫 번째 인물 집 발간 이후 두 번째로 1집에서 다루지 않은 숨은 인물을 발굴해 엮는데 주력했다.

옥천 출신 또는 옥천과 관련돼 지역을 빛낸 인물로 이미 작고하신 분들 중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으며 학술적 가치가 높은 24인을 최종 선정했다.

충절의 역사인물인 송정 전팽령, 경재 남수문, 괴정 오상규 선생을 비롯해 유학자 수옹 송갑조, 입재 송근수, 고암 정립 선생 등이 수록됐다.

특히 송정 전팽령(松亭 全彭齡) 선생은 현 동이면 금암리(1480~1560) 출신 조선시대 성리학자로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에게 내려진 조선시대 최고의 영예인 청백리상을 받았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전식, 전유 선생을 포함해 전팽령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동이면 금암리 목담영당에서는 매년 춘향제가 열린다.

명성이나 이익을 쫓지 않고 정의롭고 진실한 생활관으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 온 전팽령 선생이야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지역민의 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의병과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동천 이충범, 김현구, 김철수, 허상기 선생의 업적도 소개돼 있다.

옥봉 이숙원, 육정수, 전형, 이은방 등의 문화예술인과 정구삼, 신각휴, 육인수, 청람 정구영, 박준병 등의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다.

하동철, 석전 육지수, 소정 정구충 등의 교육자와 검도개혁자 이교신, 권투세계 챔피언 이열우 등의 체육인도 수록됐다.

(사)옥천향토사연구회는 이번 책자 발간을 위해 14명의 자문위원과 21명의 집필위원을 꾸려 다양한 역사인물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 1월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옥천군지, 역사서 등 참고문헌과 수차례의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집필에 들어갔다.

총 585쪽으로 각 장마다 인물에 대한 업적 설명과 함께 가족과 주변인물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었으며 생전 사진 등도 다수 포함돼 기록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과 이 연구회는 책자 600부를 각 학교와 도서관, 기관단체 등에 배부해 선각자들의 많은 활동과 학문 사상 등을 널리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하 회장은 “어려운 여건과 한정된 기간 내 역사적인 사실과 옛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위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 주셨다”며 “이번 인물지를 통해 우리 군민들이 새로운 것으로 알고 이해하며 다양한 곳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옥천읍 문정리 명가 컨벤션홀에서는 자문·집필위원과 기관·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간 기념회를 갖고 책자 발간을 축하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조운찬 기자 ycc925@naver.com

## 7.9 나무위키 청백리(다음)

44씨족 , 217명 명단 중 명종조의 청백리록(45)

정연: 동래-군수. 윤부: 파평-병참. 이세장: 전주-관찰사. 정종영: 초계-찬성. 안현: 순흥-좌의정. 박수량: 태인-참찬. 김순: 경주-정랑. 임호신: 풍천-지돈령. 임보신: 풍천-형의. 이명: 예안-좌의정. 이영: 영천-수사. 홍섬: 남양-영의정. 이몽필: 전주-이참. 홍담: 남양-판서. 성세장: 창녕-호판. 윤춘년: 파평-판서. 윤현: 파평-찬성. 류훈: 문화-부정. 우세겸: 단양-부정. 박영준: 고령-이판. 박민현: 함양-참판. 이증영: 전의-공정. 김몽좌: 김해-직장. 이준경: 광주-영의정. 주세봉: 상주-찬성. 김개: 광산-판서. 안잠: 순흥-별좌. 이황: 진성-찬성. 송찬: 진천-중추. 허세린: 양천-좌윤. 김팽령: 경주-사용. 강윤권: 진주-사재정. 오상: 해주-이판. 신잡: 고령-목사. 김우: -부사. 이종경: 광주-이참. 안종전: 죽산-군수. 김광: 영안-부사. 유언겸: 창원-정랑. 변훈남: 초계-현령. 김약목: 강진-집의. 노진: 풍천-판서, 신사형: 영월-목사. 김취문: 선산-대사간. 송익건: 봉화-우의정.

## 7.10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네이버)

인물통계자료 청백리

◆ 청백리(清白吏)

- 출전 : 『전고대방(典故大方)』 (국립중앙도서관[古2513-416]) 권2, [청백리록(清白吏錄)] 『청선고(淸選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603]) 권7, [청백(清白)](論議)

왕대	순번	전고대방 (218)	순번	청선고 (186)	본관 (本貫)	문과	생원	진사	관직 (官職)
명종조	121	사용 김팽령 司勇 金(彭齡)*	121	김팽령 (金彭齡)	경주 (慶州)				사용 (司勇)

28. 김장(金廡): 광산김씨 시은공파(市隱公派) 족보 상권에 청백리 김장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본보 내용에는 나오지 않음. 경주김씨 감사공파 족보에 김장이 출현함.
91. 정연(鄭淵): 『전고대방(典故大方)』 (국립중앙도서관[古2513-416]) 권2, [청백리록(清白吏錄)]과 『청선고(淸選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603]) 권7, [청백(清白)]에는 본관이 동래(東萊)로 기록되어 있으나, 『광산정씨세보(光山鄭氏世譜)』 (1845)에 정연(鄭淵)이 청백리라고 적혀 있음. 족보를 참고하여 본관을 광주(光州)로 수정.
121. 김팽령(金彭齡): 「『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1551) 11월 10일」 기사를 보면 전팽령(全彭齡)이 염근(廉謹)에 선발된 기사가 있다. 이로 보아 경주인 김팽령이 아니라 청백리는 옥천인 전팽령(全彭齡)이라는 주장이 있음.

7.11 분석의견

인터넷 매체 내용을 보면 옥천군청 보도자료(2018.11.06)에 옥천군 두 번째 역사. 문화 인물지 발간 내용에 『충절의 역사인물인 송정 전팽령, 경재 남수문, 괴정 오상규 선생을 비롯해 유학자 수옹 송갑조, 입재 송근수, 고암 정립 선생 등이 수록됐다. 특히, 송정 전팽령(松亭 全彭齡) 선생은 현 동이면 금암리(1480~1560) 출신 조선시대 성리학자로,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에게 내려진 조선시대 최고의 영예인 청백리상을 받았다.』 라고 기록 되어 있으며, 옥천 향수신문 기사에도 2회에 걸쳐 청백리상을 받은것으로 기사화 되어 있다. 2012년 조성린박사가 지은 “조선의 청백리 222인” 명단에 전팽령으로 수정하여 수록하고 있고 “전팽령이 대동장고 예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증보문헌비고에는 사용(司勇) 전팽령으로 되어 있고 청선고와 전고대방에는 김팽령(金彭齡)으로 되어 있는데 명종실록을 보면 염근리로 선정된 사람을 보고 할 때는 전팽령, 연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김팽령(金彭齡)으로 되어있으나 명종실록의 전후 기록을 보면 전팽령이 맞음”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네이버지식백과 국조인물고에 송인선생이 찬한 전팽령의 묘지 내용에 “상주목사(尙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는데, 상주에 재임할때에 조정에서 공이 학행(學行)이 있고 또 청렴하고 근신(謹愼)하다고 여기어 특별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진시켜 포상하였으니, 이때가 경술년(庚戌年, 1550년 명종 5년)이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 V. 검토결과

1. 송정 전팽령선생 문집 연보에 보면 1552년(임자년) 가을에 사용(司勇)에 배수(拜授)되고, 겨울 11월에 염근(廉謹=清白吏)에 피선되었으며, 행사용(行司勇) 전팽령(全彭齡), 사재감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등 10인은 병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특이점은 사용(司勇)은 조선시대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 9품의 무관직으로 선생이 상주목사 퇴임 후 쉬고 있을때 염근포상이 있었으므로 최종관직이 상주목사인데 목사는 조선시대 각 목(牧)의 으뜸 벼슬로 정3품의 문관직이다. 그러므로 정3품의 문관직을 지내신분이 정9품의 무관직을 이어 임명받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행수법(行守法)과 체아직(遞兒職)제도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행수법을 보면 세조때 이래 당상관(정3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상관이면서도 8, 9품 군직을 행직(行職)으로 주었고, 조선시대 녹관(祿官)이 일정기간 복무하고 현직에서 체거(遞去)되면, 이들의 신분과 생활을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한 체아직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전팽령 선생이 상주목사(정3품) 퇴임 후 체거(遞去) 되면서 체아직제도에 따라 정9품의 사용(司勇)의 벼슬을 받다 보니 행수법에 따라 행 사용(行 司勇)이라고 관직명을 붙였고, 이때 청백리에 피선되면서 행사용 전팽령을 행사용 김팽령으로 기록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송정 전팽령선생의 청백리 10인 피선관련 내용은 특히 송정 전팽령선생의 따님이 시집가서 송정 전팽령 선생의 사위가 된 동강 정유건선생의 문집, 송정 전팽령선생의 외손인 고암 정립문집, 낙동명신록, 창주선생문집 2권, 옥천읍지, 관성사마안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또한 160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주선생문집 내용 중 송정선생의 4대 증후손이며 사서 전직선생의 둘째 아들인 창주 극념이 찬한 송정선생의 유사에도 청백리 10인에 피선된 내용이 있다.

3. 청백리 피선자 명단이 대동장고(1800년~1834년 작성)에는 전팽령 김팽령 기록이 없고, 1903년에 작성된 증보문헌비고에는 “사용 전팽령”으로 되어있고, 1906년에 작성된 청선고와 1924년에 작성된 전고대방에는 “사용 김팽령”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350여 년이 지난 뒤 옛 문헌을 정리하면서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교통이 편리한 시절이 아닌 1900년초에 작성한 문헌들로, 명종실록의 “사용 김팽령”만 보고 명종실록에는 본관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김팽령의 본관을 추적하다 보니 “경주 김씨(부안김씨) 김팽령”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1824년경에 작성한 옥천읍지와 옥주사마안에도 전팽령선생이 청백리 10인에 선정된 기록과 포상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 1906년에 작성된 청선고와 1924년에 작성된 전고대방의 김팽령 기록보다 신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4. 전팽령선생의 외손인 고암(정립)선생유고 내용을 살펴보면 정립선생이 7세에 외조부이신 전팽령선생이 돌아가셨으나 정립선생의 어머니는 전팽령선생의 따님으로 외조부인 전팽령선생에 대해 아버지(정유건선생)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선생나이 31세) 들었을 것이고, 어머니한테도 33세까지 들었을 것이며, 전팽령 선생과 정립선생은 고향이 옥천군 동이면으로 같아 외조부인 전팽령선생의 행적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특히 고암선생유고 권지 2의 별폭에서 전팽령선생에 대한 인품 및 처신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고, 당시 조정에서 염근 10인을 선발했는데 그중 한분으로 대궐에서 연회 시 나아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고암선생유고 역주 131쪽 참조) 고암의 생존기간인 1554년~1640년에 작성된 기록으로 어떤 문헌보다 신뢰성이 크다.

5.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나와 있는 청백리 121번 김팽령에 대한 과거급제 내용과 부령김씨 김팽령 박사공관련 유장 족보내용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일치 한다. 따

라서 경주 김씨 사옹 김팽령은 부령김씨 김팽령이 맞으므로 또 다른 경주김씨 사옹 김팽령이 있는 지에 대한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다고 본다. 또한 부령(부안)김씨 대종회 김창원 회장 통화내용을 검토해 보면 김팽령이 부안김씨로 병오년 식년시 진사와 정묘년 시과 문과급제의 내용이 일치하고, 승문원 박사가 마지막 벼슬이라 하고 청백리를 받은 조상도 없고 김팽령의 유장내용에도 청백리 기록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부령김씨 과한록의 인물등재내용을 보아도 문과편과 사마편을 보면 김팽령과 그의 형 김팽석이 있고 무과편에는 김팽령이 없다. 사옹의 벼슬은 무과이고 김팽령관련 족보의 유장 내용을 보아도 사옹의 벼슬을 한 내용이 안보이므로 사옹 김팽령은 사옹(司勇) 전팽령이 확실해 보인다. 설령 부령김씨 김팽령이 청백리에 피선된 것이 맞다고 주장해도 이미 1512년에 사망하신 분이 40년이 지난 1552년 염근 포상시 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10인의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더욱더 논리에 맞지 않다.

6. 인터넷 매체 내용을 보면 옥천군청 보도자료(2018.11.06)에 옥천군 두 번째 역사. 문화 인물지 발간 내용에 『충절의 역사인물인 송정 전팽령, 경제 남수문, 괴정 오상규 선생을 비롯해 유학자 수옹 송갑조, 입재 송근수, 고암 정립 선생 등이 수록됐다. 특히, 송정 전팽령(松亭 全彭齡) 선생은 현 동이면 금암리(1480~1560) 출신 조선시대 성리학자로,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에게 내려진 조선시대 최고의 영예인 청백리상을 받았다.』라고 기록 되어 있으며, 옥천 향수신문 기사에도 2회에 걸쳐 청백리상을 받은것으로 기사화 되어 있다. 2012년 조성린박사가 지은 “조선의 청백리 222인” 명단에 전팽령으로 수정하여 수록하고 있고 “전팽령이 대동장고 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증보문헌비고에는 사옹(司勇) 전팽령으로 되어 있고 청선고와 전고대방에는 김팽령(金彭齡)으로 되어 있는데 명종실록을 보면 염근리로 선정된 사람을 보고 할 때는 전팽령, 연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김팽령(金彭齡)으로 되어있으나 명종실록의 전후 기록을 보면 전팽령이 맞음”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네이버지식백과 국조인물고에 송인선생이 찬한 전팽령의 묘지 내용에 “상주목사(尙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는데, 상주에 재임할때에 조정에서 공이 학행(學行)이 있고 또 청렴하고 근신(謹慎)하다고 여기어 특별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진시켜 포상하였으니, 이때가 경술년(庚戌年,1550년 명종 5년)이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7. 부령(부안) 김씨 김팽령은 최종관직이 승문원 박사이고 사옹의 벼슬을 한적이 없고 염근 포상 당시 40년전인 1512년에 이미 사망했다. 그러나 송정 전팽령선생의 문집 연보에 보면 1552년 가을에 사옹(司勇)에 배수 되었다고 되어있다. 또한 2012년에 발행한 조성린박사의 “조선의 청백리 222인” 책자에 경주인 사옹김팽령을 옥천인 사옹전팽령으로 수정 작성된 사례와 2015년도에 정선전씨 전과옹종인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김팽령을 전팽령으로 수정요청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경주김씨 문중이나 부령김씨 문중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8. 조선왕조실록의 앞뒤 정황, 송정(전팽령)선생문집, 동강 정유건선생문집, 고암 정립선생문집, 창주 전극념선생문집, 증보문헌비고, 옥천읍지, 옥주사마안, 부령(부안)김씨 족보내용, 부령(부안)김씨 대종회회장 증언등을 참고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나와 있는 청백리 121번 김팽령에 대한 과거급제 내용과 부령김씨 김팽령 박사공관련 유장 과거급제 족보내용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일치한다. 그리고 부령김씨 김팽령의 생졸기간이 1455년~1512년으로 염근 포상년도인 1552년보다 40년전인 1512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염근포상시 병으로 참석 못한 청백리 10인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1824년에 작성된 옥천읍지와 옥주사마안에도 전팽령선생의 청백리 10인 포상 기록이 있다. 따라서 여러 문헌의 기록과 정황을 살펴볼 때 조선왕조실록의 행 사옹(行司勇) 김팽령(金彭齡)은 행 사옹(行司勇) 전팽령(全彭齡)이 확실하고, 조선왕조실록 기록 시 착오로 행사옹 전팽령을 행 사옹 김팽령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사료된다.

## VI. 별첨

### 1. 목록

- 별첨 1 전팽령 이력
- 별첨 2 김팽령 이력
- 별첨 3 정유건 이력
- 별첨 4 정 립 이력
- 별첨 5 정원건 이력
- 별첨 6 전극념 이력
- 별첨 7 이충범 이력
- 별첨 8 이시립 이력
- 별첨 9 청백리 유권해석 요청 [全彭齡 or 金彭齡 ]
- 별첨 10 자료별 청백리 명단 222인
- 별첨 11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조성린박사 “조선의 청백리 222인”》
- 별첨 12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연보(72세) 출 적상산사기》
- 별첨 13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행록(칠송 김경백찬)》
- 별첨 14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신도비문(종현손 사산감역 극념 찬)》
- 별첨 15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유사(출 고암정립문집)》
- 별첨 16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출 정원건문집)》
- 별첨 17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출 삼양록 후애 이시립찬)》
- 별첨 18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출 청한정익경현지)》
- 별첨 19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출 정고암립일기)》
- 별첨 20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출 적상산사기)》
- 별첨 21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출 낙동명신록)》
- 별첨 22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송정선생문집 권2 (출 여지승람)》
- 별첨 23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창주선생(극념)문집 권지2 송정 전팽령선생 유사(행장)》
- 별첨 24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고암선생유고 권지 2의 서(書) 별폭(別幅)》
- 별첨 25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옥천읍지(1824년~1834년), 2005년 옥천문화원 번역 발행》
- 별첨 26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국역 관성사마안. 사마안급향약, 2016년 옥천군 옥주사마소 발행》
- 별첨 27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옥천의 역사 인물(2018년 옥천향토사연구회 발간)》
- 별첨 28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기사 《옥천향수신문 (2018.11.23.)》
- 별첨 29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기사 《옥천 향수신문 (2021.03.04.)》
- 별첨 30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내용 《충북 어린이 도청》
- 별첨 31 역주 고암선생 유고 《고암 정립선생 연보》
- 별첨 32 정립선생 문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예고관련 기사
- 별첨 33 ‘정립 문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지정관련 기사
- 별첨 34 역주 고암선생 유고 《고암정립선생 행장》
- 별첨 35 부령김씨 김팽령 자료 및 과한록 등재인물
- 별첨 36 대동장고
- 별첨 37 증보문헌비고
- 별첨 38 청선고
- 별첨 39 전고대방
- 별첨 40 고대관직 및 설명

## 2. 별첨 내용

### 별첨 1 전팽령 이력

전팽령(全彭齡, 1480~1560)의 본관은 옥천(沃川). 자는 숙로(叔老), 호는 송정(松亭). 전오례(全五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전효순(全孝順)이고, 아버지는 참판 전응경(全應卿)이며, 어머니는 좌사간 김사렴(金士廉)의 손녀이다. 1504년(연산군 10)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524년(중종 19)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형조와 공조의 좌랑과 정랑을 역임한 뒤, 이어서 사도시첨정(司隲寺僉正)·성균관사성·통례원우통례·평안평사·단천군수, 삼척과 밀양의 부사를 역임하였다. 1550년(명종 5)에 상주목사로 나가 청렴한 처정을 하여 청백리의 별칭인 엄근(廉謹)에 선발되어 통정(通政)에 특승되었다. 1559년에 가선(嘉善)에 승직, 부호군이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별첨 2 김팽령 이력

김팽령(金彭齡, 乙亥生 1455년~ 1512년)의 본관은 부령(부안), 자 이숙, 본관 부령, 부 김선, 성종 17년(1486년) 병오 식년시 진사, 중종 2년(1507) 정묘 식년시 3등 23위(33/33) 관직 성균관 학정, 기사년 승문원 박사 승진.  
(출처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별첨 3 정유건 이력

정유건(鄭惟謩, 1506년~1584년)의 자는 충경(忠卿)이고, 호는 동강(東江)으로 본관은 하동(河東)이며 **하동정씨 동강파 9세**이고 거주지는 옥천이다. 하동정씨가 옥천 지역에 들어와 유력 성씨들과 통혼 관계를 맺은 것은 세조 때 정소(鄭韶)가 전숙(全淑)의 사위가 되어 영동 풍천에서 옥천 동이면 적하리 기시래에 이거 하면서부터이다.  
정유건은 전팽령(全彭齡, 1480~1560)의 사위로서 아버지는 봉훈랑(奉訓郎) 행 사헌부 감찰(監察)이었던 정연(鄭淵)이고, 동생이 정유심(鄭惟謹), 정유눌(鄭惟訥), 정유의(鄭惟誼), 정유근(鄭惟謹), 정유겸(鄭惟謙), 정유당(鄭惟讜)이고, 아들이 조현의 의병진에 군량을 보급하고 나중에 진해현감과 경상도 도사로 선정을 베푼 정립(鄭瑩, 1554~1640)이다.  
1552년(명종 7) 식년시에 생원 2등 23위(100명 중 28등)으로 급제하였다. 성품이 순수하고 진중하며 학문이 깊어 이름이 있었다. 관찰사가 장계를 올리자 선조가 그의 학행을 가상히 여겨 향현(鄉賢)으로 등용하려고 한 적이 있다. 그가 죽자 성균관에서 생원 진사 13인을 보내와서 호상(護喪)하게 하였다.

### 별첨 4 정립 이력

정립(鄭瑩, 1554~1640)의 본관은 하동(河東). 초명은 방(霧). 자는 군흠(君洽), 호는 고암(顧菴). 옥천 출신. **하동정씨 동강파 10세**이다. 아버지는 찰방 정유건(鄭惟謩)이며, 어머니는 옥천전씨(沃川全氏)로 관찰사 전팽령(全彭齡)의 딸이다. 아버지에게 글을 배워 학문이 성취되었으며, 정온(鄭蘊)·이호민(李好閔) 등과 교유를 맺고 학문을 강론하였다. 1579년(선조 12)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15년(광해군 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성균관학유·전적·좌랑 등을 비롯하여 진해현감·경상도도사를 거쳐 1623년(인조 1) 춘추관기주관 겸 교리와 정랑·군자감정·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고암유고(顧菴遺稿)』 6권 3책이 있다.(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별첨 5 정원건 이력

정원건(鄭元健, 효종 무술생 1658년~?)의 자는 계이(啓而), 호는 각제(覺齋), **하동정씨 동강파 18세**이다.

#### 별첨 6 전극념 이력

전극념(全克恬, 1597년~1660년)의 본관은 옥천, 자(字)는 유안(幼安) 호는 창주(滄洲), 사서 전식(全湜)의 아들이요, 규천 극항의 아우로, 거주지는 상주(尙州)이다. 진사시에 합격하여 감역이 되었으나 벼슬길을 포기하였다. 그의 시에는 우국적인 시가 많음이 특색이다.

인조(仁祖) 11년(1633) 계유(癸酉)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26위(56/100).

#### 별첨 7 이충범 이력

이충범(이충범, 1520년~1598년),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덕린(德隣), 호는 동천(東川). 아버지는 이원량(李元良)이며, 어머니는 함창김씨(咸昌金氏)로 김인손(金寅孫)의 딸이다. 1552년(명종 7)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560년 성환찰방, 1566년에 남해현감, 그 뒤 기장현감을 거쳐 전적이 되고, 경상도사·형조좌랑·문천군수·영서찰방(迎曙察訪)·장단도호 부사·봉상시정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에는 아들과 함께 금산에 있는 조헌(趙憲)의 의진으로 가던 중 적군을 만나자 백병전으로 많은 적을 사살하였고, 그 뒤 쌍봉에서 모병하여 황간에 진을 치고 관군과 합세하여 수많은 적군을 격파하여 수훈(首勳)의 공을 세웠다. 후에 군자정책(軍資正策) 선무 2등공신(宣武二等功臣)으로 녹훈되었다. 죽은 뒤에 예조참의가 증직되었다. 저서로는 『동천유고(東川遺稿)』가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충범(李忠範))]

#### 별첨 8 이시립 이력

이시립(李時立, 1548년~1605년)의 자는 지가(志可)호는 후애(後崖)이니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등제했으며 벼슬은 통훈대부 강진현감에 이르렀다. 명종 3년에 출생하여 광해 13년에 세상을 떠났다. 봉암서원에 향사하였다. 이충범의 장자로 임란때 아버지 이충범을 도와 당서기로 의병활동을 하였다.

별첨 9 청백리 유권해석 요청 [全彭齡 or 金彭齡]

[過程]

① 수정 요청

자료등록수정 /게시판

- 등재를 원하는 인물의 정보를 올려주세요 . 자료의 오류 수정에 대한 의견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No. 15184 [수정요청] 청백리 유권해석 요청 [全彭齡 or 金彭齡]

이름 : 전과웅      등록일 : 2015-11-27      조회수 : 106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청백리 명단에 의하면 명종 때 청백리 121 번으로 金彭齡 으로 되어있습니다 . 출전근거는 『전고대방 (典故大方)』과 『청선고 (清選考)』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全彭齡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출전근거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 확인 중이지만 「증보문헌비고」에도 全彭齡 으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

1. 현재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자료

◆ 청백리 (清白吏)

- 출전 : 『전고대방 (典故大方)』(국립중앙도서관 [古 2513-416]) 권 2, [청백리록 (清白吏錄)] 『청선고 (清選考)』(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603]) 권 7, [청백 (清白)]

121 김팽령 (金彭齡) 121 김팽령 (金彭齡) 경주 (慶州) 중종 (中宗) 2 년 (1507) 정묘 (丁卯) 식년시 (式年試) 3 등 (三等) 23 위 성종 (成宗) 17 년 (1486) 병오 (丙午) 식년시 (式年試) 진사 (進士)

2. 全彭齡 의 근거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明宗 10 卷 , 5 年 (1550 庚戌 / 명 가정 (嘉靖) 29 年 ) 10 月 5 日 (乙丑) 1 번째기사  
청렴 근실하게 고을을 다스린 상주 목사 전팽령의 자급을 높이게 하다

○乙丑 /命增秩尙州牧使 全彭齡 , 以居官 廉謹 也 .

【태백산사고본】 8 책 10 권 87 장 B 면

【영인본】 19 책 722 면

【분류】 \*인사 (人事)

明宗 12 卷 , 6 年 (1551 辛亥 / 명 가정 (嘉靖) 30 年 ) 11 月 10 日 (甲午) 4 번째기사  
삼공이 안현 ·홍섬 ·박수량 등 33 인을 염근으로 이름을 고쳐 뽑다

○舍人以三公意啓曰 : “清簡之人 , 難於廣選 , 故改以 廉謹 爲號而抄啓矣 . 且守令不能盡知 , 令監司抄出 , 六曹所屬各司 , 令六曹抄之何如 ?” 傳曰 : “可 .” 被抄 , 安珪 , 洪暹 , 朴守良 , 李浚慶 , 趙士秀 , 李冀 , 任虎臣 , 周世鵬 , 金秀文 , 李夢弼 , 李世璋 , 李榮 , 金珣 , 全彭齡 , (洪雲) [洪曇] , 成世章 , 尹釜 , 尹鉉 , 尹春年 , 鄭宗榮 , 朴永俊 , 吳祥 , 李重慶 , 金鎰 , 任輔臣 , 李滉 , 安從堧 , 宋益壽 , 金雨 , 卞勳男 , 辛士衡 , 姜允權 , 禹世謙 , 并三十三人 .

【태백산사고본】 9 책 12 권 48 장 A 면

【영인본】 20 책 57 면

【분류】 \*정론 (政論) / \*인사 -선발 (選拔) / \*행정 (行政)

明宗 13 卷, 7 年 (1552 壬子 / 명 가정 (嘉靖) 31 年) 3 月 9 日 (辛卯) 1 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몽량이 이희안·조식·전팽령·김취문 등을 천거하다

○辛卯 / 慶尙道觀察使李夢亮薦草溪居前典獄參奉李希顏、三嘉居布衣曹植, 又舉 廉謹 守令尙州牧使 全彭齡、永川郡守金就文、知禮縣監盧禎。【希顏, 才行卓異, 孝友兼篤, 母喪三年, 一不到家, 不脫衰絰。中廟朝薦舉授職, 謝恩還鄉, 不求聞達, 足絕官門, 非義不取, 一鄉欽服。曹植, 方正廉潔, 兄弟同居, 不私己物, 有志學問, 不事科舉。父母喪三年, 身不脫衰絰, 家無甌石, 常晏如也。】

【史臣曰: “二人學行, 求之於古, 不可多得, 而自己卯以後, 士氣沮喪, 世皆以學問爲諱, 不知善可好、賢可尊, 而沈淪草野, 不求聞達之君子, 屢發於宰相、監司之薦聞, 足見好惡之天, 有所不泯而然也。古人云: ‘才不借於異代。’ 在上之人, 苟能心誠求之, 則才行兼備, 學問該博, 安貧守道, 不求利祿者, 豈止斯二人? 而如金就文、盧禎, 亦皆有學行, 不但以廉謹目之者也。擢而用之, 置諸左右, 尚何不可之有哉? 下焉不尊, 遠焉不近, 當時秉權衡人物之柄者, 不得辭其責也。”】

【태백산사고본】 10 책 13 권 18 장 B 면

【영인본】 20 책 76 면

【분류】 \*인사 -선발 (選拔) / \*인물 (人物) / \*역사 -사학 (史學) / \*행정 (行政)

## ② 회신

자료등록수정 /게시판

- 등재를 원하는 인물의 정보를 올려주세요 . 자료의 오류 수정에 대한 의견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No. 15211 [수정요청] 답변 드립니다 .

이름 : 운영자      등록일 : 2015-12-01      조회수 : 61

안녕하십니까 .

늘 관심을 가지고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

청백리, 두문동 72 현을 올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은 하였습니다 .

예전 기록이면서 자료 마다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먼저 번에도 정연 (鄭淵)의 본관이 동래인지, 광주인지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

정확한 자료가 제시 될 경우 각주로 처리하겠습니다 .

일단 문헌에 나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청백리 김팽령은 본관이 경주로 되어 있고, 관직은 사용입니다 .

전팽령은 본관이 옥천입니다 . 본관이 경주라면 혹 성씨를 오기한 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데, 실록 기록만으로는 자료로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른 문의 사항이나 수정요청 사항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등록 수정게시판을 통해 문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고객님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잘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 별첨 10 자료별 청백리 명단 222인

청백리명단 청백리222

2013. 3. 27

### 자료별 청백리 명단

성명	왕대	명단 수록 자료					비고
		조선 왕조 실록	증보 문헌 비고	청선고	전고 대방	대동 장고	
강백년(姜栢年)	숙종	o	o	o	o	o	보기
강석범(姜錫範)	경종	x	x	x	o	x	(증) 증보문헌비고
강세귀(姜世龜)	숙종	o	o	o	o	o	(청) 청선고
강숙돌(姜叔突)	중종	o	o	o	o	o	(전) 전고대방
강열(姜說)	숙종	o	o	o	o	o	(대) 대동장고
강유후(姜裕後)	숙종	x	o	x	o	x	
강윤권(姜允權)	명종	o	o	o	o	x	
경의(慶儀)	태종	x	o	o	o	o	
곽안방(郭安邦)	세조	x	o	o	o	o	
구곤원(具坤源)	인조	x	x	x	o	x	
구치관(具致寬)	성종	x	o	o	o	o	
권빈(權賓)	중종	x	o	o	o	o	
기건(奇虔)	세조	x	o	o	o	x	(청) 세종대
길재(吉再)	태조	x	x	x	o	x	
김개(金鎧)	명종	o	x	o	o	x	
김겸광(金謙光)	성종	x	o	o	o	o	
김구(金絳)	명종	x	x	o	x	x	(청) 김구(珣)
김덕함(金德諫)	인조	o	o	o	o	o	
김두남(金斗南)	경종	x	x	x	o	x	
김몽좌(金夢佐)	명종	o	o	o	o	x	
김무(金弼)	중종	x	o	o	o	o	(증) 金弼
김상헌(金尙憲)	인조	o	o	o	o	o	
김수(金睟)	선조	x	o	o	o	x	(청, 전) 김수 (睟)

김수문 (金秀文 )	명종	x	x	o	x	x	
김순 (金洵 )	명종	o	o	o	o	o	
김시양 (金時讓 )	인조	o	o	o	o	o	
김신국 (金愼國 )	인조	x	x	x	o	x	
김약묵 (金若默 )	명종	o	o	o	o	x	
김약항 (金若恒 )	태종	x	o	o	o	o	
김양진 (金楊震 )	중종	x	o	o	o	o	
김연수 (金延壽 )	중종	x	x	o	o	o	
김우 (金雨 )	명종	o	o	o	o	x	
김장 (金廡 )	세종	x	x	x	o	x	
김장생 (金長生 )	선조	x	x	x	o	x	
김전 (金詮 )	중종	o	o	o	o	o	
김정 (金淨 )	중종	x	x	o	o	x	
김종순 (金從舜 )	명종	x	o	o	o	o	(청 ) 세종대 (전 ) 세조대
김종직 (金宗直 )	중종	x	x	o	o	x	
김취문 (金就文 )	명종	o	x	o	o	x	
김행 (金行 )	선조	x	x	x	o	x	
김확 (金擴 )	명종	o	o	o	o	x	
김흔 (金訢 )	중종	x	x	o	o	x	(전 ) 金訢
남이형 (南履炯 )	순조	x	x	x	o	x	
노숙동 (盧叔叀 )	세조	x	o	o	o	o	
노진 (盧禎 )	명종	o	o	o	o	o	(증 , 대 ) 선조대
맹사성 (孟思誠 )	세종	x	o	o	o	o	
민불탐 (閔不貪 )	세종	x	o	o	o	o	
민여임 (閔汝任 )	인조	x	o	o	o	o	
민휘 (閔暉 )	성종	x	o	o	o	o	
박강 (朴薑 )	세조	x	x	o	o	o	
박민헌 (朴民獻 )	명종	o	o	o	o	x	
박상 (朴祥 )	중종	x	x	o	o	o	
박서생 (朴瑞生 )	태종	x	o	o	o	o	

박수량 (朴守良 )	명종	o	o	o	o	o	
박신규 (朴信圭 )	숙종	o	o	o	o	o	
박열 (朴說 )	성종	x	o	o	o	o	
박영준 (朴永俊 )	명종	o	o	o	o	x	
박처륜 (朴處綸 )	성종	x	o	o	o	o	(증 , 대 )朴處倫
박팽년 (朴彭年 )	세종	x	o	o	o	o	
백인걸 (白仁傑 )	선조	o	o	o	o	o	
변훈남 (卞勳男 )	명종	o	o	o	o	x	
서견 (徐甄 )	태조	x	x	x	o	x	
서기순 (徐箕淳 )	순조	x	x	x	o	x	
성세장 (成世章 )	명종	o	o	o	o	x	
성영 (成泳 )	선조	x	x	x	o	x	
성이성 (成以性 )	숙종	o	o	o	o	o	
성하종 (成夏宗 )	인조	o	o	o	o	o	
성현 (成倪 )	성종	x	o	o	o	o	
손중돈 (孫仲暉 )	중종	o	x	o	o	o	
송익경 (宋翼璟 )	명종	x	x	o	o	x	
송정규 (宋廷奎 )	경종	x	x	x	o	x	
송찬 (宋贊 )	명종	o	o	o	o	x	
송흙 (宋欽 )	중종	x	o	o	o	o	
신경진 (辛慶晉 )	인조	x	x	x	o	x	
신공제 (申公濟 )	중종	x	o	o	o	o	
신사형 (辛士衡 )	명종	o	o	o	o	x	
신잠 (申潛 )	명종	o	o	o	o	x	
심수경 (沈守慶 )	선조	o	o	o	o	o	
심의신 (沈宜臣 )	순조	x	x	x	o	x	
심희수 (沈喜壽 )	선조	x	o	o	o	x	
안성 (安省 )	태조	x	o	o	o	o	

안자유 (安自裕 )	선조	x	x	o	o	x	
안잠 (安潛 )	명종	o	x	o	o	x	
안종전 (安從璵 )	명종	o	o	o	o	x	
안처 (安處 )	세조	x	x	o	x	x	
안팽명 (安彭命 )	성종	x	o	o	o	o	(청 )安彭年
안현 (安玆 )	명종	o	o	o	o	o	
양관 (梁灌 )	성종	x	o	o	o	o	
양지손 (梁芝孫 )	중종	x	x	o	o	x	
어영준 (魚泳濬 )	중종	x	x	x	o	x	
오상 (吳祥 )	명종	o	o	o	o	x	
오세한 (吳世翰 )	중종	x	o	o	o	o	
오억령 (吳億嶺 )	선조	x	x	x	o	x	
우세겸 (禹世謙 )	명종	o	o	o	o	x	
우현보 (禹玄寶 )	태조	x	o	o	o	o	
유겸 (柳謙 )	세종	x	o	o	o	o	
유경창 (柳慶昌 )	숙종	o	o	o	o	o	
유관 (柳寬 )	세종	x	o	o	o	o	
유구 (柳珣 )	태조	x	o	o	o	o	(전 )柳珣
유빈 (柳濱 )	중종	x	x	o	o	x	
유상운 (柳尙運 )	경종	x	x	x	o	x	
유성룡 (柳成龍 )	선조	o	o	o	o	o	
유언겸 (兪彦謙 )	명종	o	o	o	o	x	
유염 (柳琰 )	세종	x	o	o	o	o	
유찬 (兪僎 )	중종	x	o	o	o	x	
유헌 (柳軒 )	중종	x	o	o	o	o	
유훈 (柳渾 )	명종	o	o	o	o	x	
유훈 (柳墳 )	성종	x	x	x	o	x	
유희철 (柳希轍 )	중종	x	o	o	o	x	(청 )李希轍
윤득재 (尹得載 )	영조	x	x	x	o	x	
윤부 (尹釜 )	명종	o	o	o	o	o	
윤사익 (尹思翼 )	중종	x	x	o	o	o	(대 )尹翼

윤석보 (尹碩輔 )	성종	x	o	o	o	o	
윤용 (尹容 )	영조	o	o	o	o	x	
윤지인 (尹趾仁 )	영조	x	x	o	o	o	(전 ) 숙종대
윤추 (尹推 )	숙종	o	o	o	o	o	
윤춘년 (尹春年 )	명종	o	o	o	o	x	
윤현 (尹鉉 )	명종	o	o	o	o	x	
이겸진 (李謙鎭 )	영조	x	x	x	o	x	
이광정 (李光庭 )	선조	x	o	o	o	o	
이기 (李璽 )	선조	o	o	o	o	o	
이기설 (李基嵩 )	선조	x	x	x	o	x	
이단석 (李端錫 )	정조	x	x	x	o	x	
이명 (李莫 )	명종	o	o	o	o	x	
이명준 (李明俊 )	경종	x	x	x	o	x	
이명준 (李命俊 )	인조	x	o	o	o	o	(칭 )李命後
이몽필 (李夢弼 )	명종	o	o	o	o	x	
이백지 (李伯持 )	태종	x	o	o	o	o	
이병태 (李秉泰 )	영조	o	o	o	o	o	
이상진 (李尙眞 )	숙종	o	o	o	o	o	
이석근 (李石根 )	세종	x	o	o	o	o	(전 ) 李碩根
이선장 (李善長 )	중종	x	o	o	o	o	
이세장 (李世璋 )	명종	x	o	o	o	o	
이세화 (李世華 )	숙종	o	o	o	o	o	
이순 (李淳 )	성종	x	o	o	o	x	(칭 ) 朴淳
이숭원 (李崇元 )	중종	x	x	o	o	x	
이시백 (李時白 )	숙종	o	o	o	o	o	
이시언 (李時彦 )	선조	o	x	o	o	x	
이신효 (李愼孝 )	성종	x	o	o	o	o	
이안눌 (李安訥 )	인조	o	o	o	o	o	

이약동 (李約束 )	성종	x	o	o	o	x	(청 ) 중종대
이언 (李堰 )	세조	x	o	o	o	o	
이언직 (李彦迪 )	중종	x	x	o	o	o	
이영 (李榮 )	명종	o	o	o	o	x	
이우직 (李友直 )	선조	o	o	o	o	o	
이원 (李原 )	태종	x	o	o	o	o	
이원익 (李元翼 )	선조	o	o	o	o	o	
이유중 (李有中 )	선조	x	x	x	o	x	
이의필 (李義弼 )	정조	x	x	x	o	x	
이정보 (李廷備 )	세종	x	o	o	o	o	
이제 (李濟 )	숙종	x	x	x	o	x	
이제신 (李濟臣 )	선조	x	x	o	o	x	
이준경 (李浚慶 )	명종	o	o	o	o	o	
이중경 (李重慶 )	명종	o	o	o	o	x	
이증영 (李增榮 )	명종	o	o	o	o	x	
이지 (李知 )	세종	x	o	o	o	o	
이지온 (李之醞 )	숙종	o	o	o	o	o	
이지직 (李之直 )	태종	x	o	o	o	o	
이직언 (李直彦 )	선조	x	o	o	o	o	
이철균 (李鐵均 )	중종	x	x	o	o	x	
이태영 (李泰英 )	숙종	o	o	o	o	o	
이태중 (李台重 )	영조	x	x	x	o	x	
이하원 (李夏源 )	경종	x	x	x	o	x	
이항복 (李恒福 )	선조	x	o	o	o	o	
이현보 (李賢輔 )	성종	x	o	o	o	o	
이화 (李樺 )	세조	x	x	o	o	x	(전 ) 중종대
이황 (李滉 )	명종	o	o	o	o	x	
이후백 (李後白 )	선조	x	o	o	o	x	

이후정 (李后定 )	숙종	o	o	o	o	o	
이훈 (李埴 )	성종	x	o	o	o	o	
임보신 (任輔臣 )	명종	o	o	o	o	x	
임정 (林整 )	성종	x	o	o	o	o	
임호신 (任虎臣 )	명종	o	o	o	o	x	
장필무 (張弼武 )	선조	o	x	o	o	x	
전팽령 (全彭齡 )	명종	o	o	o	o	x	(청 , 전 )金彭齡
정갑손 (鄭甲孫 )	중종	x	x	o	o	x	
정곤수 (鄭崑壽 )	선조	x	o	o	o	x	(전 )정곤 (峴 )수
정매신 (鄭梅臣 )	중종	x	x	o	o	o	
정문형 (鄭文炯 )	세조	x	o	o	o	o	
정성근 (鄭誠謹 )	중종	x	x	o	o	x	(전 ) 성종대
정연 (鄭淵 )	중종	x	x	o	o	x	(전 ) 명종대
정종영 (鄭宗榮 )	명종	o	o	o	o	o	
정창손 (鄭昌孫 )	중종	x	x	o	o	x	
정척 (鄭陟 )	세종	x	o	o	o	x	
정형복 (鄭亨復 )	영조	o	o	o	o	o	
조경 (趙綱 )	숙종	o	o	o	o	o	
조사수 (趙士秀 )	명종	o	o	o	o	o	(청 , 대 ) 성종대 (전 ) 중종대
조석운 (趙錫胤 )	숙종	o	o	o	o	o	
조속 (趙淩 )	숙종	o	o	o	o	o	
조언수 (趙彦秀 )	성종	x	x	o	x	x	
조원기 (趙元紀 )	중종	o	x	o	o	o	
조지서 (趙之瑞 )	성종	x	o	o	o	o	
조치우 (曹致虞 )	중종	x	o	o	o	o	
주세붕 (周世鵬 )	명종	o	o	o	o	x	

최경창 (崔慶昌 )	숙종	x	x	x	o	x	
최관 (崔寬 )	숙종	o	o	o	o	o	
최만리 (崔萬理 )	세종	x	o	o	o	o	
최명창 (崔命昌 )	중종	x	o	o	o	o	
최사의 (崔士儀 )	태종	x	o	o	o	o	
최여림 (崔汝霖 )	선조	x	x	x	o	x	
최유경 (崔有慶 )	태종	x	o	o	o	o	
최유현 (崔有賢 )	영조	x	x	x	o	x	
최진립 (崔震立 )	인조	x	o	o	o	o	
최흥원 (崔興源 )	선조	o	o	o	o	x	
표빈 (表斌 )	중종	x	x	x	o	x	
한덕필 (韓德弼 )	영조	o	o	o	o	o	
한익상 (韓益相 )	순조	x	x	x	o	x	
한형운 (韓亨允 )	중종	x	o	o	o	o	(증 , 대 )한형원 (元 )
허세린 (許世麟 )	명종	o	o	o	o	x	
허욱 (許頊 )	선조	x	x	x	o	x	
허잠 (許潛 )	선조	o	o	o	o	o	
허정 (許晶 )	영조	o	o	o	o	o	
허종 (許琮 )	성종	x	o	o	o	x	
허침 (許琛 )	성종	x	o	o	o	o	
홍계방 (洪桂芳 )	세종	x	o	o	o	o	
홍담 (洪曇 )	명종	o	o	o	o	x	
홍명하 (洪命夏 )	숙종	o	o	o	o	o	(전 ) 인조대
홍무 (洪茂 )	숙종	o	o	o	o	o	
홍섬 (洪暹 )	명종	o	o	o	o	x	
홍우량 (洪宇亮 )	숙종	o	o	o	o	o	
황효원 (黃孝源 )	세종	x	o	o	o	x	(칭) 황효원 (元 )
황희 (黃禧 )	세종	x		o	o	o	

## 별첨 11 전평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조성린박사 “조선의 청백리 222인”》

조선의 청백리(2008jsl님의 블로그)

문학박사, 사회복지사.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 2008년 정년퇴직 저서 : 고운님 오시는 날엔(시집), 엄마를 위한 우리역사111, 우리나라 복지발달사, 조선의 청백리222, 조선행정이 서양 행정보다 앞섰다. 조선500년 신통방통고사통, 조선시대 사관이 쓴 인물평가, 좌청룡 낙산의 어제와 오늘, 종로의 역사.문화유산, 종로의 표석(標石)이야기. 종로의 인물, 종묘에 배향된 공신들 010-5380-3831

조선의 청백리 222인 2012. 08. 12

조선시대 청백리에 관한 자료는 증보문헌비고 , 청선고 , 대동장고 , 전고대방에 수록되어 있는데 자료간 틀리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자세한 것은 9 월 중 블로그운영자가 발간 예정인 <조선의 청백리 222>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

성명	왕대	출생 . 사망연도	본관	출신별	최고관직	시호
강백년 (姜栢年 )	숙종	1603-1681	진주	문과	판중추부사	문정 (文貞 )
강석범 (姜錫範 )	경종	?	진주	음직	도정	
강세구 (姜世龜 )	숙종	1632-1703	진주	음직 -문과	대사간	문안 (文安 )
강숙돌 (姜叔突 )	중종	?-1515	금천	문과	승문원판교	
강열 (姜說 )	숙종	1624-1691	진주	? -무과	부총관	
강유후 (姜裕後 )	숙종	1606-1666	진주	문과	황해도관찰사	
강윤권 (姜胤權 )	명종	?	진주	문과	사재감정	
경의 (慶儀 )	태종	?-1395	청주	?	평양윤	순절 (順節 )
곽안방 (郭安邦 )	세조	?	현풍	무과	익산군수	
구곤원 (具坤源 )	인조	1550-1608	능성	음직	삭녕군수	
구치관 (具致寬 )	성종	1406-1470	능성	문과	영의정	충렬 (忠烈 )
권빈 (權璵 )	중종	?	안동	문과	사간	
기건 (奇虔 )	세조	?-1460	행주	학행	한성부윤	정무 (貞武 )
길재 (吉再 )	태조	1353-1419	해평	문과	봉상박사	충절 (忠節 )
김개 (金鎧 )	명종	1504-1569	광산	문과	우참찬	
김겸광 (金謙光 )	성종	1419-1490	광산	문과	좌참찬	공안 (恭安 )
김구 (金綬 )	명종	1488-1534	광산	문과	부제학	문의 (文懿 )
김덕함 (金德諫 )	인조	1562-1636	상주	문과	대사성	충정 (忠貞 )
김두남 (金斗南 )	경종	1657-1715	안동	문과	안주목사	

김몽좌 (金夢佐)	명종	1473-?	강릉	?	내섬시직장	
김무 (金礎)	중종	1441-1514	안동	?	강원관찰사	
김상헌 (金尙憲)	인조	1570-1652	안동	문과	좌의정	문정 (文正)
김수 (金睟)	선조	1547-1615	안동	문과	동지중추부사	소의 (昭懿)
김수문 (金秀文)	명종	1506-1568	고령	무과	한성판윤	
김순 (金洵)	명종	?	경주	무과	부산포첩사	
김시양 (金時讓)	인조	1581-1643	안동	문과	강화유수	충익 (忠翼)
김신국 (金薰國)	인조	1572-1657	청풍	문과	영중추부사	
김약묵 (金若默)	명종	1500-1558	강진	문과	양주목사	
김약항 (金若恒)	태종	1353-1397	광산	문과	중추원학사	
김양진 (金楊震)	중종	1467-1535	풍산	문과	동지중추부사	
김연수 (金延壽)	중종	?-1515	안주	문과	병마절도사	
김우 (金雨)	명종	?	?	?	밀양부사	
김장 (金廡)	세종	?	광산	문과	장령	
김장생 (金長生)	선조	1548-1631	광산	학행	형조참판	문원 (文元)
김전 (金詮)	중종	1458-1523	연안	문과	영의정	충정 (忠貞)
김정 (金淨)	중종	1486-1521	경주	문과	형조판서	문간 (文簡)
김종순 (金從舜)	명종	1405-1483	경주	음직 -문과	지중추부사	공호 (恭胡)
김종직 (金宗直)	중종	1431-1492	선산	문과	지중추부사	문간 (文簡)
김취문 (金就文)	명종	1509-1570	선산	문과	대사간	문간 (文簡)
김행 (金行)	선조	1532-1588	강릉	문과	광주목사	
김확 (金擴)	명종	?	연안	문과	첨지사	
김흔 (金訢)	중종	1448-1492	연안	문과	공조참의	문광 (文匡)
남이형 (南履炯)	순조	1780-1854	의령	음직	강화유수	
노숙동 (盧叔仝)	세조	1403-1463	풍천	문과	한성부윤	
노진 (盧禎)	명종	1518-1578	풍천	문과	형조판서	문효 (文孝)
맹사성 (孟思誠)	세종	1360-1438	신창	문과	좌의정	문정 (文貞)
민불탐 (閔不貪)	세종	?	여흥	문과	이조참판	
민여임 (閔汝任)	인조	1559-1627	여흥	문과	공조참판	
민휘 (閔暉)	성종	1450-1505	여흥	문과	대사헌	
박강 (朴薑)	세조	?-1460	반남	?	황해순찰사	세양 (世襄)
박민헌 (朴民獻)	명종	1516-1586	함양	문과	동지중추부사	

박상 (朴祥 )	중종	1474-1530	충주	문과	나주목사	문간 (文簡 )
박서생 (朴瑞生 )	태종	1371-1436	비안	음직 -문과	안동대도호부사	문충 (文忠 )
박수량 (朴守良 )	명종	1491-1554	태인	문과	지중추부사	정혜 (貞惠 )
박신규 (朴信圭 )	숙종	1631-1687	밀양	문과	형조판서	청숙 (淸肅 )
박열 (朴說 )	성종	1464-1517	밀양	문과	좌찬성	이정 (夷靖 )
박영준 (朴永俊 )	명종	1510-1576	고령	문과	우찬성	
박처륜 (朴處綸 )	성종	1445-1502	고령	문과	첨지중추부사	
박팽년 (朴彭年 )	세종	1417-1456	순천	문과	형조참판	충정 (忠正 )
백인걸 (白仁傑 )	선조	1497-1579	수원	문과	지중추부사	문경 (文敬 )
변훈남 (卞勳男 )	명종	?	초계	효행	장악원첨정	
서견 (徐甄 )	태조	?	이천	문과	사헌부장령	
서기순 (徐箕淳 )	순조	1791-1854	대구	음직 -문과	판의금부사	청문 (淸文 )
성세장 (成世章 )	명종	1506-1583	창녕	문과	예조판서	
성영 (成泳 )	선조	1547-1623	창녕	문과	이조판서	양혜 (襄惠 )
성이성 (成以性 )	숙종	1595-1664	창녕	문과	강계부사	
성하종 (成夏宗 )	인조	1573-1645	창녕	무과	병마절도사	
성현 (成峴 )	성종	1439-1504	창녕	문과	좌찬성	문재 (文載 )
손중돈 (孫仲墩 )	중종	1463-1529	경주	문과	우찬성	경절 (景節 )
송익경 (宋益憬 )	명종	?	신평	무과	목사	
송정규 (宋廷奎 )	경종	1656-1710	여산	문과	강원관찰사	
송찬 (宋贊 )	명종	1510-1601	진천	문과	판중추부사	
송흠 (宋欽 )	중종	1459-1547	신평	문과	중추부사	효헌 (孝憲 )
신경진 (辛慶晉 )	인조	1554-1619	영월	문과	예조참판	
신공제 (申公濟 )	중종	1469-1536	고령	문과	동지중추부사	정민 (貞敏 )
신사형 (辛士衡 )	명종	1506-?	영산	문과	상주목사	
신잠 (申潛 )	명종	1491-1554	고령	문과	상주목사	
심수경 (沈守慶 )	선조	1516-1599	풍산	문과	좌의정	
심의신 (沈宜臣 )	순조	1791-?	청송	음직 -문과	경기관찰사	
심희수 (沈喜壽 )	선조	1548-1622	청송	문과	영돈녕부사	문정 (文貞 )
안성 (安省 )	태조	1344-1421	광주	문과	한성부윤	사간 (思簡 )
안자유 (安自裕 )	선조	1517-1588	순흥	문과	지돈녕부사	
안잠 (安潛 )	명종	?	순흥	?	군기시별좌	

안종전 (安從璵 )	명종	1493-1557	죽산	음직	전첨	
안처 (安處 )	세조	?	순흥	?	소윤	
안팽명 (安彭命 )	성종	1447-1492	광주	문과	예빈시부정	
안현 (安玆 )	명종	1501-1560	순흥	문과	좌의정	문희 (文僖 )
양관 (梁灌 )	성종	1437-1507	남원	무과	지돈녕부사	
양지손 (梁芝孫 )	중종	?	남원	문과	참의	
어영준 (魚泳濬 )	중종	1483-1529	함흥	문과	사헌부집의	
오상 (吳祥 )	명종	1512-1573	해주	문과	형조판서	
오세한 (吳世翰 )	중종	?	보성	무과	병마절도사	
오억령 (吳億嶺 )	선조	1552-1618	동북	천거 -문과	좌참찬	문숙 (文肅 )
우세겸 (禹世謙 )	명종	?	단양	?	제용감부정	
우현보 (禹玄寶 )	태조	1333-1400	단양	문과	단양 백	충정 (忠靖 )
유겸 (柳謙 )	세종	1356-1411	진주	문과	직제학	
유경창 (柳慶昌 )	숙종	1593-1662	전주	문과	예조참판	
유관 (柳寬 )	세종	1346-1433	문화	문과	우의정	문간 (文簡 )
유구 (柳均 )	태조	1335-1398	진주	문과	참찬문하부사	정평 (靖平 )
유빈 (柳濱 )	중종	?-1509	진주	문과	경기관찰사	충정 (忠定 )
유상운 (柳尙運 )	경종	1636-1707	문화	문과	영의정	충간 (忠簡 )
유성룡 (柳成龍 )	선조	1542-1607	문화	문과	영의정	문충 (文忠 )
유언겸 (俞彦謙 )	명종	1496-1558	창원	효행	문화헌령	
유염 (柳琰 )	세종	1367-?	문화	문과	이조판서	문간 (文簡 )
유찬 (俞僎 )	중종	?	천녕	문과	곤양군수	
유현 (柳軒 )	중종	1462-1506	전주	문과	대사간	
유훈 (柳渾 )	명종	?	문화	문과	장단부사	
유훈 (柳墳 )	?	1524-1602	전주	문과	평안도관찰사	
유희철 (柳希轍 )	중종	1453-1514	문화	문과	봉상시정	
윤득재 (尹得載 )	영조	1697-1758	해평	문과	병조판서	
윤부 (尹釜 )	명종	1510-1560	파평	문과	동지중추부사	
윤사익 (尹思翼 )	중종	1478-1563	무송	문과	송정대부	공호 (恭胡 )
윤석보 (尹碩輔 )	성종	?-1505	칠원	문과	대사간	
윤용 (尹容 )	영조	1684-1746	파평	문과	공조판서	
윤지인 (尹趾仁 )	영조	1656-1718	파평	문과	병조판서	

윤추 (尹推 )	숙종	1632-1707	파평	학행	사헌부장령	
윤춘년 (尹春年 )	명종	1514-1567	파평	문과	예조판서	
윤현 (尹鉉 )	명종	1514-1578	파평	문과	지돈녕부사	충간 (忠簡 )
이겸진 (李謙鎭 )	정조	1715-?	덕수	문과	대사간	
이광정 (李光庭 )	선조	1552-1629	연안	문과	개성유수	문충 (文忠 )
이기 (李璉 )	선조	1522-1600	한산	문과	지돈녕부사	장정 (莊貞 )
이기설 (李基堯 )	선조	1558-1622	연안	효행	상원군수	
이단석 (李端錫 )	정조	1625-1688	전주	음직 -문과	형조참판	충민 (忠愍 )
이명 (李莫 )	명종	1496-1572	예안	문과	좌의정	정간 (貞簡 )
이명준 (李命俊 )	인조	1572-1630	전의	문과	병조참판	
이명준 (李明浚 )	경종	1658-1715	한산	문과	동래부사	
이몽필 (李夢弼 )	명종	1507-1562	전주	문과	동지중추부사	
이백지 (李伯持 )	태종	1361-1419	용인	문과	전라관찰사	
이병태 (李秉泰 )	영조	1688-1733	한산	음직 -문과	대사간	문청 (文淸 )
이상진 (李尙眞 )	숙종	1614-1690	전의	문과	영중추부사	충정 (忠貞 )
이석근 (李碩根 )	세종	? -1422	전주	익안대군 아들	총의위절제사	
이선장 (李善長 )	중종	?	한산	현량	평창군수	
이세장 (李世璋 )	명종	1497-1562	전주	문과	강원관찰사	
이세화 (李世華 )	숙종	1630-1701	부평	문과	지중추부사	충숙 (忠肅 )
이순 (李淳 )	성종	?	우봉	?	병조판서	
이숭원 (李崇元 )	중종	1428-1491	연안	문과	우찬성	충간 (忠簡 )
이시백 (李時白 )	숙종	1581-1660	연안	공신	영의정	충익 (忠翼 )
이신효 (李愼孝 )	성종	1422-1493	전의	충효	충청관찰사	문열 (文烈 )
이안눌 (李安訥 )	인조	1571-1637	덕수	문과	형조판서	문혜 (文惠 )
이약동 (李約束 )	성종	1416-1496	성주	문과	지중추부사	평정 (平靖 )
이언 (李堰 )	세조	?	흥양	문과	전주부윤	양경 (良敬 )
이언직 (李彦迪 )	중종	1491-1553	여주	문과	좌찬성	문원 (文元 )
이영 (李榮 )	명종	1494-1563	영천	무과	경상도병사	
이우직 (李友直 )	선조	1529-1590	여흥	문과	개성유수	문의 (文懿 )
이원 (李原 )	태종	1368-1430	고성	문과	좌의정	양헌 (襄憲 )
이원익 (李元翼 )	선조	1547-1634	전주	문과	영의정	문충 (文忠 )
이유중 (李有中 )	선조	1544-1602	덕수	문과	공조참판	

이의필 (李義弼 )	정조	1738-1808	전주	문과	광주유수	
이정보 (李廷備 )	세종	?	경주	무과	경기좌도관찰사	
이제 (李濟 )	숙종	1654-1714	전주	음직 -문과	대사간	
이제신 (李濟臣 )	선조	1536-1584	전의	문과	함북병마절도사	평간 (平簡 )
이준경 (李浚慶 )	명종	1499-1572	광주	문과	영의정	충정 (忠正 )
이중경 (李重慶 )	명종	1517-1568	광주	문과	대사헌	
이증영 (李增榮 )	명종	1500-1563	덕산	명종의 스승	청주목사	
이지 (李知 )	세종	?	광주	?	평양판관	
이지운 (李之運 )	숙종	1603-1671	공주	문과	한성부우윤	
이지직 (李之直 )	태종	1354-1419	광주	음직 -문과	형조우참의	
이직언 (李直彦 )	선조	1545-1628	전주	음직 -문과	우찬성	정간 (貞簡 )
이철균 (李鐵均 )	중종	1450-1514	벽진	문과	대사성	
이태영 (李泰英 )	숙종	1631-?	경주	무과	순천군수	
이태중 (李台重 )	영조	1694-1756	한산	문과	호조판서	문경 (文敬 )
이하원 (李夏源 )	경종	1664-1747	광주	음직 -문과	승록대부	
이항복 (李恒福 )	선조	1556-1618	경주	문과	영의정	문충 (文忠 )
이현보 (李賢輔 )	성종	1467-1555	영천	문과	동지중추부사	효절 (孝節 )
이화 (李樞 )	세조	1381-1459	전의	?	판중추원사	양정 (襄靖 )
이황 (李滉 )	명종	1501-1570	진성	문과	이조판서	문순 (文純 )
이후백 (李後白 )	선조	1520-1578	연안	문과	호조판서	문청 (文淸 )
이후정 (李后定 )	숙종	1631-1689	연안	문과	병조참의	
이훈 (李塤 )	성종	1429-1481	한산	효령대군사위	좌참찬	안소 (安昭 )
임보신 (任輔臣 )	명종	?-1558	풍천	문과	형조참의	
임정 (林整 )	성종	1356-1413	평택	녹사출신	형조판서	공혜 (恭惠 )
임호신 (任虎臣 )	명종	1506-1556	풍천	문과	지돈녕부사	정간 (貞簡 )
장필무 (張弼武 )	선조	1510-1574	구례	무과	병마절도사	양정 (襄貞 )
전팽령 (全彭齡 )	명종	1480-1560	옥천	문과	부호군	
정갑손 (鄭甲孫 )	중종	?-1451	동래	문과	좌참찬	정절 (貞節 )
정곤수 (鄭崑壽 )	선조	1538-1602	청주	천거 -문과	판의금부사	충익 (忠翼 )
정매신 (鄭梅臣 )	중종	?	진주	절의 (節義)	사기번조관	
정문형 (鄭文炯 )	세조	1427-1501	봉화	문과	우의정	양경 (良敬 )

정성근 (鄭誠謹 )	중종	1446-1504	진주	문과	좌부승지	충절 (忠節 )
정언 (鄭淵 )	중종	?	광주	문과	태안군수	
정종영 (鄭宗榮 )	명종	1513-1589	초계	문과	우찬성	정헌 (靖憲 )
정창손 (鄭昌孫 )	중종	1402-1487	동래	문과	영의정	충정 (忠貞 )
정척 (鄭陟 )	세종	1390-1475	진주	문과	충청관찰사	공대 (恭戴 )
정형복 (鄭亨復 )	영조	1686-1769	동래	문과	호조판서	
조경 (趙綱 )	숙종	1586-1669	한양	유일 -문과	판중추부사	문간 (文簡 )
조사수 (趙士秀 )	명종	1502-1558	양주	문과	좌참찬	문정 (文貞 )
조석윤 (趙錫胤 )	숙종	1606-1655	배천	문과	동지중추부사	문효 (文孝 )
조속 (趙涑 )	숙종	1595-1668	풍양	공신	상의원정	
조언수 (趙彦秀 )	성종	1497-1574	양주	문과	동지중추부사	정간 (貞簡 )
조원기 (趙元紀 )	중종	1457-1533	한양	문과	좌참찬	문절 (文節 )
조지서 (趙之瑞 )	성종	1454-1504	임천	문과	창원부사	
조치우 (曹致虞 )	중종	1457-1529	창녕	문과	대구부사	
주세붕 (周世鵬 )	명종	1495-1554	상주	문과	동지중추부사	문민 (文敏 )
최경창 (崔慶昌 )	숙종	1539-1583	해주	문과	영광군수	
최관 (崔寬 )	숙종	1613-1695	전주	문과	좌참찬	
최만리 (崔萬理 )	세종	?-1445	해주	문과	집현전부제학	
최명창 (崔命昌 )	중종	1466-1536	개성	문과	황해도관찰사	
최사의 (崔士儀 )	태종	1376-1452	전주	음직	판돈녕부사	양도 (良度 )
최여림 (崔汝霖 )	선조	1524-?	해주	무과	상호군	
최유경 (崔有慶 )	태종	1343-1413	전주	학행	참찬의정부사	평도 (平度 )
최유현 (崔有賢 )	영조	?	삭녕	?	세마	
최진립 (崔震立 )	인조	1568-1636	경주	무과	삼도수군통제사	정무 (貞武 )
최흥원 (崔興源 )	선조	1529-1603	삭녕	문과	영의정	충정 (忠貞 )
표빈 (表 빈 )	중종	1486-1563	신창	문과	김해부사	
한덕필 (韓德弼 )	영조	1696-1771	청주	음직	홍주목사	
한익상 (韓益相 )	순조	1767-1846	청주	문과	병조참판	
한형운 (韓亨允 )	중종	1469-1532	청주	문과	함경도관찰사	효헌 (孝憲 )
허세린 (許世麟 )	명종	1507-1579	양천	무과	오위도총부부총관	
허욱 (許頊 )	선조	1548-1618	양천	문과	좌의정	정목 (貞穆 )

허잠 (許潛 )	선조	1540-1607	양천	천거	동지중추부사	충정 (忠貞 )
허정 (許鼎 )	영조	1670-1740	양천	?	충청수군절도사	
허종 (許琮 )	성종	1434-1494	양천	문과	우의정	충정 (忠貞 )
허침 (許琛 )	성종	1444-1505	양천	음직 -문과	우의정	문정 (文貞 )
홍계방 (洪桂芳 )	세종	?	남양	?	이조참판	
홍담 (洪曇 )	명종	1509-1576	남양	문과	우참찬	정효 (貞孝 )
홍명하 (洪命夏 )	숙종	1608-1668	남양	문과	영의정	문간 (文簡 )
홍무 (洪茂 )	숙종	1615-?	남양	음직	군자감정	
홍섬 (洪暹 )	명종	1504-1585	남양	문과	영의정	경헌 (景憲 )
홍우량 (洪宇亮 )	숙종	1608-?	남양	무과	경상좌수사	
황효원 (黃孝源 )	세종	1414-1481	상주	문과	승록대부	양평 (襄平 )
황희 (黃禧 )	세종	1363-1452	장수	음직 -문과	영의정	익성 (翼成 )

[출처] [조선의 청백리](#) | 작성자 [2008jsl](#)

松亭先生文集卷之二

松亭先生年譜

皇明 憲宗皇帝成化十六年我朝 成宗大王十一年庚子

十一月初十日先生生于沃川耆仕川里第耆仕川即先

生五世祖判書管城君公當麗運之季以不事二姓之義

避于沃川伊南江上仍錫村號以棄仕川後以判書公享

年一百一十有一歲故後人改棄仕為耆仕。載輿誌

辛丑先生二歲

十月初二日丁先考參判公憂先生與伯仲氏鞠養於祖

考參議公

壬寅先生三歲

癸卯先生四歲

生

去矣遂決賦歸之思

辛亥先生七十二歲

春先生自尚州解組而歸時仲氏松塢公亦辭春秋官編脩官之除同為退休日相從遊於聚遠養神二亭覽物遣慮以終餘歲。秋拜司勇冬十一月被選廉謹命賜宴於闕庭賜一等樂各賜丹木胡椒有差至昏復賜白蠟燭各一瓊外任被選人各賜表裏一襲。廉謹被選人戶曹判書安珪石叅贊朴守良平安監司洪暹左承旨洪曇右承旨成世章大司諫尹春年判校尹鉉左通禮尹釜掌令尹渾濟用副正禹世謙司僕寺正朴永俊司僕副正任輔臣弘文校理鄭宗榮副校理朴民獻工曹正郎李增榮內膳直長金夢佐等十九人叅宴大司憲李浚

慶同知中樞任虎臣周世朋同副承旨金鎧前大司成李  
滉典翰宋贊部將許世獮軍器別坐安潛行司勇全彭齡  
司宰監正姜允權等十人病未叅宴外任被選人會寧府  
使李榮江界府使金洵羅州牧使吳祥尚州牧使申潛密  
陽府使金雨溫陽郡守李重慶醴泉郡守安從埤江陽府  
使金擴新溪縣令俞彥謙金溝縣令卞勳男韓山郡守金  
若默知禮縣監盧禎叅原縣監辛士衡前郡守金就文等  
十四人 賜表裏。出 明宗大王實錄 孝宗朝 命  
考 明宗朝清白吏知春秋李厚源翰林洪柱三承 命  
考出赤裳山城史記

壬子先生七十三歲

癸丑先生七十四歲

行錄

七松金敬伯撰

麗朝判書封管城府院君全淑有五世孫諱彭齡字叔老號松亭城化庚子以降翌歲考沒依母以長先生資稟粹美器宇純正在幼穉時自知學善志漸篤實長老見之者知其後日之遠到也博學力行弘治甲子陞上庠其後連魁別試館試策當時考官歎曰觀其物理淵深辭簡意備豈舉子例作乎正德丙寅丁母憂祭葬以禮遠近咸服其誠孝焉己卯以學識聞選於賢良科先生嘆曰虛名可愧遂不赴時人高之後有補其先見嘉靖甲申登大科庚寅自秋曹郎出守端川時端川以採銀玉事邑守連遭罷出者十人迎送之際民力凋弊朝庭特以先生充選上官之日見前案上斗銀問之而知其古郎命掇去以革邑規久遠之弊故以寬簡撫字為先六年之間一境安堵菰滿以

邑民願借之訖加一年丁酉又倅三陟在邑設化風俗丕變咸知事上敬長之道癸卯以司導正出爲密陽府使三年而解歸邑民老幼號泣道路見之者莫不感歎歸去而來其家家無儲糧貸人以舉夕火其行馬驕中一皮座吏爲不持還翌朝先生覺之使人追及於中路其操厲廉介若此戊申由通禮牧尚州治聲藉甚大臣以先生學行廉謹啓於經筵特賜表裏一襲又陞通政而廢之是庚戌歲也自上命選清白十人賜宴闕庭先生與退溪李先生東臯李先生並叅是選而在外不得叅宴命賜胡椒丹木等物以寵之先生即分于親故蹙然不悅曰顧無實德累叨天恩於心安乎况年至致仕可以去矣遂解紱而歸其後朝庭累授顯職又除江原道觀察使終不肯就己未陞嘉善階副護軍尋拜禮曹叅判明年六月二十二

未嘗暫忘居官謹慎治尚寬簡專務以德化民故吁在雖無赫  
赫之譽去後常有遺愛益仕三十七年累典州郡而家無礪石  
之儲猶處之怡然晚節投紱還家以山水自娛 朝庭累授顯  
職終不肯就每與親舊聚濁醪相娛遊月不下三四如是者且  
十年以沒公先娶生員李國衡之女生一男曰燁癸卯生員後  
娶迪順衛金軸之女生一女適生員鄭惟謩內外孫若干皆幼  
神道碑文 從玄孫果毅校尉四山監役克恬

昔聞諸先君子忠簡公曰吾家有偉人學問淵源出自先賢正  
派而踐履深切出處大節為一世補首門庭肅穆如朝庭知其  
為正人君子也惜乎家乘盡灰於壬辰兵火平生言行後學難  
徵惟有礪城尉宋公寅所撰碑文思菴朴公淳所撰行狀記實  
甚詳以其諸文字考之其養生奉先之以孝忘私殉國之以忠

治尚廉耻心存撫字在郡六年一境接堵瓜熟邑民赴闕請留  
仍加一年癸卯 除三陟有邑風丕變儒學始興之謠乙巳由內  
資正爲密陽邑有短布衙用之規先生一無所私典守者進曰  
無益於官積有累於奸吏請循例獻之先生竣辭却之己酉牧  
尚州歲饑幾於相食先生命列釜鼎於城底作粥以賑之躬且  
巡視不遑安席遠近得以回生者不知幾千萬人前後方伯皆  
有廢啓大臣亦啓其學識廉白陞通故堦自 上命選清白十  
人 賜宴闕庭先生與退溪李先生東臯李先生並參是選而  
在外未參時特頒賞 賜以寵之先生曰顧無實效而再叨 天恩  
放心安乎年至致仕可以去矣遂解歸以山水自娛己未陞嘉  
善堦拜副護軍尋拜禮曹叅判自後有定平善山江陵公州江  
原觀察等 除而皆不就 明廟庚申六月二十二日終于正寢

激都事次漢僉知中樞府使次漚展力副尉餘不盡錄先生之  
曾孫漢請記其事以詔來裔余不敢辭謹錄大槩如右銘曰  
襟懷雪月操履冰霜為國盡忠莅民如傷廉貞之風百世彌彰  
孔夫子誕降二千五百十六年乙巳三月 日立

立石告由文

從后孫胤錫

伏以 府君之世垂四百載神道豎碑迄未補制滄翁信筆炳  
然尚在積世未遑事力不逮言念事體痛恨無際肆到今春孱  
孫畫計山重蛟負毛刮龜背載琢載鑄螭龜呈態屹于墓左兆  
域增彩 府君事行可傳永世役雖云晚事若有待先事敢告  
略陳其槩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

遺事

抄出諸賢集中

觀察使松亭全先生天品純美行己處事多暗合古人者簡重

自居喜怒不形人有過惡已播衆聞而家中人及之則必大責止之曰惟己不言可也朝有長老漢吳德指先生爲悃幅無華人聞者皆以爲實德云早以學問二字爲己卯賢良之選辭謝自免不赴其科及宰尚州 朝廷薦學識廉謹特 賜表裏兩度又加堂上資先生自慮其虛名過實必有改削之舉留旬朔間不以章服處之至有朝官未過之責歲末周棄官來歸曰人生七十致仕之年也况虛名有不可留者乎凡內外 除職皆曰休官已矣老病轉甚今再仕苟且遂終始不赴時 朝廷選廉謹十人 賜宴 闕庭先生其選中人也慚報不敢進猶以嘗賜物件盡分于鄉隣老病之年謹勅益嚴門下士每見小學書夙興夜寐箴彼在案上時加快讀至以讀留二詩自遣曰初心賢聖擬同歸善行嘉言矢莫違未免鄉人成一老徒知七十

七年非嘉訓堆床作舌畊非斯無以樂餘生老夫勤讀終何用  
要祛膏中鄙吝萌常居雖隆寒苦熱必黎明盥洗以上衣正冠  
帶端坐入寢始釋又別抄羣聖賢言行切要者題自警之書曰  
羣書要語每以此為跋及之意先生於兄弟其次也居官在家  
以別箱紙榜代考妣神主朔望有奠出入必告行年在七十九

歲祭需必親執焉

出顧菴集

先生諱彭齡字叔老號松亭 成宗朝成化庚子生弘治甲子  
上庠 中宗朝嘉靖甲申擢別試文科先生生翌歲考歿受慈  
教七歲受小學十歲出就外傳學焉十五大覺悟性理之學手  
不釋卷尤精於程朱二書日與賢大夫商確大義雖至貴顯行  
止書生徐孤青起以松亭學問真到實地踐履篤信云正德甲  
戌丁內憂喪制一用家禮 中廟己卯選賢良科先生以學識

七年非嘉訓堆床作舌畊非斯無以樂餘生老夫勤讀終何用  
 要祛膏中鄙吝萌常居雖隆寒苦熱必黎明盥洗以上衣正冠  
 帶端坐入寢始釋又別抄羣聖賢言行切要者題自警之書曰  
 羣書要語每以此為跂及之意先生於兄弟其次也居官在家  
 以別箱紙榜代考妣神主朔望有奠出入必告行年在七十九  
 歲祭需必親執焉出顧卷鄭  
 先生諱彭壽叔老號松亭 成宗朝成化庚子生弘治甲子  
 上庠 中宗朝嘉靖甲申擢別試文科先生生翌歲考歿受慈  
 教七歲受小學十歲出就外傳學焉十五六覺悟性理之學手  
 不釋卷尤精於程朱二書日與賢大夫商確大義雖至貴顯行  
 止書生徐孤青起以松亭學問真到實地踐履篤信云正德甲  
 戌丁內憂喪制一用家禮 中廟己卯選賢良科先生以學識

托林下翥然有終焉之計又有詩曰道在身常泰家貧樂有餘  
高名徹 宸極重疊下宸書云先生嘉靖丙申倅端川銀玉窟  
也知郡者坐職十年九遷以此 朝廷特差遣治尚廉謹政懋  
德化在那六年一境太古瓜熟邑民赴 闕請留仍加一年壬  
寅出補三陟有邑風丕變儒學始興之誼甲辰知密陽敬差官  
蔡無逸誤以差錯罷之無逸之叔判書紹權切責曰不當以小  
節累大賢他日將何顏復見全公無逸大慚悔詣門謝之自  
上選清白十人 賜宴闕庭先生居其一而終不叅於是以胡  
椒丹木等物特 寵賜焉先生之平生嘉言懿行當世所矜式  
遠近類而多成就者嘉靖庚申六月二十二日以疾終享年八  
十有一士林索然無所措疑宋熙老寅撰碑文有云篤學力行  
誠信孝友謹慎寬簡等語己卯錄亦曰全某以學識沃川人立

書院祠之云獨故相國朴思菴淳熙撰行狀記實甚詳焉

出鄭元健

文集

先生諱彭齡字叔老松亭其號也 成宗朝 成化庚子生燕山

時弘治甲子舉生員時年二十五 中廟嘉靖甲申登科別試

第為文簡古醞籍一時補文章家云郭正字詩有是許也赴京

師科再以執事策居魁及新來戲題日三館先生每以詩律補

嘆曰名不虛得云 明宗朝 嘉靖庚申卒享年八十有一

先生天品純美行己處事多暗合古人者若邪私之念矯偽之

迹毫髮不存每簡重自居喜怒不形外則寬和內則通朗望之凝

然粹然知其為厚德君子也人有過惡己播衆聽而家中人及

之則必大責止之曰惟己不言可也待人之際不見以談笑為

歡而忠信之意藹然外敷若其處事慎密臨機判斷則人不能

書院祠之云獨故相國朴思菴淳所撰行狀記實甚詳焉元出鄭健

中文集

先生諱彭發字叔老松亭其號也 成宗朝 成化庚子生燕山  
時弘治甲子舉生員時年二十五 中廟嘉靖甲申登科別試  
第爲文簡古醞籍一時補文章家云郭正字詩有是許也赴京  
師科再以執事策居魁及新來戲題日三館先生每以詩律補  
嘆曰名不虛得云 明宗朝 嘉靖庚申卒享年八十有一  
先生天品純美行己處事多暗合古人者若邪私之念矯僞之  
迹毫髮不存每簡重自居喜怒不形外則寬和內則通朗望之凝  
然粹然知其爲厚德君子也人有過惡己播衆聽而家中人及  
之則必大責止之曰惟己不言可也待人之際不見以談笑爲  
歡而忠信之意藹然外敷若其處事慎密臨機判斷則人不能

適先生特差而至六年後以邑民願借之訖更以加一年此豈無所以也至於白金等物則無一毫私藏其德之廉潔從此可知矣

先生曾莅密陽密陽雄府也邑規有短布收捧之事舊成其例至累十同而爲太守私用者久矣典守監官至衙門曰請循前例納爲衙用先生大責拒之此則細事也於先生無足貴矣而概言其前後清德之清德如此也

先生在尚州時前後觀察使各有廢啓又有大臣等以學識廉謹四字揚前舉之兩度特賜表裏一襲陞堂上階又陞嘉善歲末周萊官來歸曰人生七十致仕年也况虛名可愧有不可留者乎後如定平善山江陵公州牧及江原監司每改除職皆曰休官已決老病轉深今再仕苟且遂終始不赴時自

朝廷選廉謹十人 賜宴 闕庭先生在家依他受賞胡椒丹  
木其物件也在官時雖不聞盛譽而去後必有遺愛豈非德之  
所感者無迹歟尚州民有萬口是碑何用石之句此一驗也

先生於老病之年謹勅益嚴子弟每見其小學書及夙興夜寐  
箴披在案上時加快讀至以小學卷末留自遣云初心賢聖擬  
同歸善行嘉言矢莫違未免鄉人成一老徒知七十七年非又  
云嘉訓堆床作舌耕非斯無以樂餘生老夫勤讀終何用要祛  
膏中鄙吝萌又別抄群聖言行切要題其自警之言曰治身準  
繩題養蒙之書曰羣書要語以獎進後學焉惜其所著書不幸  
爲壬辰亂蕩失無傳也

先生有文集十五卷目錄四卷壬辰亂不保所著詩文無可考  
惟其警句本心著見者僅數絕而已有云衆樹林中松獨秀百

輩或以私意累及耳此則愛惜先生之蘊德慮有外至之謗也  
蘇二相世讓之記有曰冰霜操履雪月襟期辭榮避勢退托林  
下又有詩云道在身常泰家貧樂有餘高名徹宸極重疊下

廢書徐孤青起嘗謂人曰松亭先生學問真到樂易字正者耶  
嘗以爲服仰焉礪城尉宋寅題先生墓碣有云篤學力行誠信  
孝友謹慎寬簡專務德化等語字字皆贊嘉之言也茲七賢之  
論豈皆阿私之意歟實先生令德之著於人者然耳先生之平  
生事蹟載諸故相國朴淳所著行狀而不幸爲兵燹蕩失今無  
可考只依舊藏家乘中若干某某記事處因以爲傳十漏九不

得其詳實也

右十四條載李後崖時  
五所撰而亦載三陽錄

全松亭凝然無俗處事詳密真聖賢之風也又曰寬嚴盛大之

儀望之儼然即之溫然可知厚德君子也

出鄭東江  
惟寒集

全松亭學識廉謹大臣以舉陞堂上 賜清白宴天稟純美自  
中禮法年七十七猶讀小學書至作詩以自警居家每黎明盥  
洗入寢然後始釋冠帶有祭祀必親執享需七十九歲猶然出

清寒廷益  
景賈誌

辛亥正月十四日松亭特授通故蓋前後觀察使皆有廢 啓  
大臣李浚慶南世健亦 啓其學識廉謹自 上有廢典退休  
後以廉謹受賞蓋在尚州 朝廷大臣左相某判書安珪及監司  
有奏矣至壬子冬 命賜廉謹十人宴于 闕庭各 賜胡椒一  
斗丹木十五斤松亭則在鄉家病不赴宴而猶受賞物如其數  
即分于宗族鄉黨己未五月松亭以八十歲兼有耆德受嘉善  
資自尚牧棄來後 朝廷除爲定平善山公州安東江陵禮曹  
叅判江原觀察又每故 除軍職而皆不赴就仕庚申六月二

全松亭學識廉謹大臣以舉陞堂上 賜清白宴天稟純美自  
中禮法年七十七猶讀小學書至作詩以自警居家每黎明盥  
洗入寢然後始釋冠帶有祭祀必親執享需七十九歲猶然出

清寒廷益  
景賢誌

辛亥正月十四日松亭特授通政蓋前後觀察使皆有廢 啓  
大臣李浚慶南世健亦 啓其學識廉謹自 上有廢典退休  
後以廉謹受賞蓋在尚州 朝廷大臣左相某判書安珪及監司  
有奏矣至壬子冬 命賜廉謹十人宴于 闕庭各 賜胡椒一  
斗丹木十五斤松亭則在鄉家病不赴宴而猶受賞物如其數  
即分于宗族鄉黨己未五月松亭以八十歲兼有耆德受嘉善  
資自尚牧棄來後 朝廷除為定平善山公州安東江陵禮曹  
叅判江原觀察又每故 除軍職而皆不赴就仕庚申六月二

十二日病終公天稟純美器宇醇正十五六覺悟性理之學尤精於二程全書心經近思錄精研契悟老病轉深潛心小學日必冠帶儼然端坐望之無一点俗累凝然有古君子之風彩矣

出鄭願卷  
聖日記

先生在 明廟朝以司勇被選廉謹壬子冬十一月 命賜宴於 闕庭 賜一等樂各 賜胡椒丹木有差至昏復 賜白蠟燭各一雙外任被選人各 賜表裏一襲廉謹被選人戶曹判書安珙右叅贊朴守良平安監司洪暹刑曹判書趙士秀大司成李莫禮曹叅議李夢弼左承旨洪曇右承旨成世章大司諫尹春年判校尹鉉左通禮尹奎掌令尹渾濟用副正禹世謙司僕正朴永俊司僕副正任輔臣弘文校理鄭宗榮副校理朴民獻工曹正郎李增榮內膳直長金夢佐等十人叅宴大司憲李浚慶

十二日病終公天稟純美器宇醇正十五六覺悟性理之學尤  
精於二程全書心經近思錄精研契悟老病轉深潛心小學日  
必冠帶儼然端坐望之無一点俗累凝然有古君子之風彩矣

出鄭願卷  
聖日記

先生在 明廟朝以司勇被選廉謹壬子冬十一月 命賜宴

於 闕庭 賜一等樂各 賜胡椒丹木有差至昏復 賜白蠟燭各

一雙外任被選人各 賜表裏一襲廉謹被選人戶曹判書安珪

右叅贊朴守良平安監司洪暹刑曹判書趙士秀大司成李瑩

禮曹叅議李夢弼左承旨洪墨右承旨成世章大司諫尹春年

判校尹鉉左通禮尹奎掌令尹渾濟用副正禹世謙司僕正朴

永俊司僕副正任輔臣弘文校理鄭宗榮副校理朴民獻工曹

正郎李增榮內膳直長金夢佐等十九人叅宴大司憲李浚慶

同知中樞任虎臣周世鵬同副承旨金鎧前大司成李滉典翰  
宋賚部將許世麟軍器別坐安潛行司勇全彭齡司宰監正姜  
允權等十人病未叅宴外任被選人會寧府使李榮江界府使  
金洵羅州牧使吳祥尚州牧使申潛密陽府使金雨溫陽郡守  
李重慶醴泉郡守安從璵江陽府使金擴新溪縣令俞彥謙金  
溝縣令卞勳男韓山郡守金若默知禮縣監盧楨漆原縣監辛  
士衡前郡守金就文十四人 賜表裏

清白吏知春秋李原源翰林洪  
柱三承命考出赤囊山史記

出明宗大王實錄  
孝宗朝命考明宗朝

公字叔老號松亭沃川人管城君淑五世孫 贈吏曹叅判應  
卿子公生 成化庚子稟質粹美器宇純正八九歲心通性理之  
學尤精於程朱之書 弘治甲子司馬 中廟己卯選入賢良科  
公歎曰虛名誤世心實忤忤遂不赴 嘉靖甲申釋褐自平安評

同知中樞任虎臣周世鵬同副承旨金鎧前大司成李滉典翰  
 宋賚部將許世麟軍器別坐安潛行司勇全彭齡司宰監正姜  
 允權等十人病未叅宴外任被選人會寧府使李榮江界府使  
 金洵羅州牧使吳祥尚州牧使申潛密陽府使金雨溫陽郡守  
 李重慶醴泉郡守安從璵江陽府使金擴新溪縣令俞彥謙金  
 溝縣令卞勳男韓山郡守金若默知禮縣監盧楨漆原縣監辛  
 士衡前郡守金就文十四人 賜表裏 出明宗大王實錄 孝宗朝命考 明宗朝  
清白吏知春秋李原源翰林洪 柱三承 命考出赤裳山史記  
 公字叔老號松亭沃川人管城君淑五世孫 贈吏曹叅判應  
 卿子公生 成化庚子稟質粹美器宇純正八九歲心通性理之  
 學尤精於程朱之書 弘治甲子司馬 中廟己卯選入賢良科  
 公歎曰虛名誤世心實怛恹遂不赴 嘉靖甲申釋褐自平安許

事累遷至開東伯不就與選清白十人 賜宴 闕庭公在外  
未叅 命賜胡椒丹木以寵之退老林泉雖隆冬盛暑必黎明  
冠帶讀小學夙興夜寐箴勸益嚴手抄治身準繩一部群書  
要語二部為自警獎進之資詩曰初心賢聖擬同歸善行嘉言  
矢莫違未免鄉人成一老徒知七十七年非公之踐履深工出  
處大節為世補首德溪吳健補悃悞無華實德在內而人不能  
易窺使全令公至今在世人庶幾盡知事君之道慕齋金安國  
賞稱真有德君子退休翁蘇世讓記公養神亭文略曰冰霜操  
履雪月襟期辭榮避勢退托林下翫然有終焉之計又贈詩略  
曰道在身常泰家貧樂有餘高名徹 宸極重疊下宸書及終  
思菴朴公淳撰行狀礪城尉宋公寅撰碑文入享沃川鶯潭院

書見己卯錄及沃川邑誌

出海東  
名臣錄

全彭齡沃川人號松亭自幼志學篤踐力行 弘治甲子生員

嘉靖甲申登第己卯與選賢良科瞿然歎曰虛名誤世心實坦忱

遂不赴及禍作之日人服其先見辛卯 除北評事郎度李思

均素橫恣聞公正直不敢出氣 除端川到官吏以數百兩銀

子置案前恠問之曰古規也即命掇之遂不授 除三陟有邑

風丕變儒學始興之謠後宰尚州大臣 啓學識廉白 特陞

堂上階 除江原監司不就 朝廷選清白十人 賜宴 闕

庭公時在家 特以丹木胡椒寵賜退老鄉第常讀小學夙興

夜寐箴等書勸益嚴因作二絕自遣云初心賢聖擬同歸善

行嘉言矢莫違未免鄉人成一老徒知七十七年非手撰治身準

繩與群書要語爲自警之資享于本郡鷺潭影堂 出興誌 勝覽

全彭齡字叔老號松亭 弘治甲子生員 正德己卯選入賢良科

載然庶使百世之下知吾祖判書之墓云

行狀

嘉善大夫行江原道觀察使松亭先生遺  
事

昔聞諸先君子曰吾家古有偉人其學問淵源  
出自先賢正派而踐履深切出處大節爲一世  
稱首不待處門庭肅穆如朝廷然後知其爲正  
人君子也獨惜乎家乘盡灰於壬辰兵火平生  
言行後學難徵惟有礪城尉宋氏寅之碑文記  
其梗槩之萬一朴思庵所撰行狀記實甚悉而

於陳積有累於奸吏請循例獻之先生峻辭卻  
之在官三年蔡無逸為敬差官誤以差錯罷先  
生其叔父蔡判書紹權切責曰密陽見罷不當  
以小節累賢者他日何面見此賢逸大慙悔到  
門稱謝已酉在尚州時年饑幾於相食先生命  
列釜鼎於城底作粥以賑之躬且巡視不遑安  
席凡百措畫無異治障古事遠邇得以回生者  
不知其幾千萬人也此是儒者能事不必云云  
而亦不可泯泯者也前後方伯皆有褒啓大臣  
亦啓其學識廉白特陞通政階自 上命選清

白十人與宴闕庭先生與其薦而在外未叅特  
頒賞賜以寵之先生曰顧無實効而再叨天恩  
於心安乎年至致仕可以去矣遂辭歸以山水  
自娛己未陞嘉善階拜副護軍自後有定平善  
山江陵公州江原觀察等除拜皆不就退伏者  
已十年矣庚申六月疾終享年八十一士林爲  
之索然無所稽疑若奉常主簿刑工曹佐郎正  
郎司導僉正成均司成內資司饗正通禮院通  
禮皆所履歷而俱載碑文但不言某年爲某官  
盖宋氏之刪煩而後人莫之考也嗚呼先生之

별첨 24 전평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고암선생유고 권지 2의 서(書) 별폭(別幅)》

吾鄉之賤末耳身居父母之邦擅亂乎儒家大事此果情  
 理之本然者乎聖君賢相之世爲一己私計肆然爲欺罔  
 之術生等爲金籥奔走之態不欲觀諸也生等無任被誣  
 冤痛之至謹以書竅罪焉  
 別幅  
 牧使全彭齡天品純美行己處事多暗合古人者簡重  
 自居喜怒不形人有過惡已播衆聞而家中人及之則  
 必大責止之曰惟已不言可也朝有長老指公爲悃悃  
 無華人聞者皆以爲實德云早以學識二字爲己卯賢  
 良之選辭謝自免不赴其科及宰尚州朝廷薦學識廉  
 謹四語特加堂上自慮其虛名過實必有改削之舉

旬朔間不以意服處之至有朝官來過之責歲末周集  
 嘗來歸曰太遲惡乎致健相也况虛名有不可暫者乎  
 有後死內外際職皆曰休官已矣老病轉疾今再仕苟  
 且遂終始不赴時朝廷選廉謹于人賜宴闕庭公其選  
 中人也慙叔不敢進猶以賞賜物件盡分于鄰鄉老病  
 之年謹勅益嚴子弟再見其小學書夙興夜寐箴披在  
 案出時加快讀至以小學卷末雷二詩自遣曰初心賢  
 聖擬同歸善行嘉言矢莫違未免鄉人成一老徒知七  
 十五七年非常居雖嚴寒苦熱必黎明盥洗以上衣正冠  
 帶端坐入寢始釋又別抄羣聖言行切要者題自警  
 之書曰治身準繩養蒙之書曰羣聖要語每以此有跋

아! 두 분 공께서는 우리 선진들의 시대에서 대개 이미 선현이었습니다. 단연코 선진들이 제향을 정한 날로부터 의식이 지금에 이르러 58년 후가 되었습니다. 한 고을에서 두 분 공에 대하여 그 제향을 꾀한 바가 모두 몇 년이며, 그 제향을 거행한 것이 또한 몇 년입니까? 분가을로 분필(芬苾)의 제사<sup>271</sup>가 바야흐로 존모(尊慕)하는 날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약은 우리 고을의 천말(賤末)일 뿐입니다. 자신은 부모의 나라에 살면서 유가의 대사를 멋대로 어지럽힙니다. 이것이 과연 정리(情理)의 본연인 것입니까? 성군(聖君)과 현상(賢相)의 시대에 일개 자신의 사계(私計)를 위하여 멋대로 기망(欺罔)의 술수를 저지릅니다.

생 등은 김약의 분주한 태도를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생 등은 무고할 당하여 원통함이 지극합니다. 삼가 편지를 들고 죄를 기다립니다.

#### ○ 별폭(別幅)

목사 전팽령은 천품이 순미하고 행실과 치사가 옛사람과 일치함이 많았습니다. 엄숙하고 정중함을 자처하며 기쁨과 노여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과오가 있어서 이미 대중에게 전해져 알려졌는데 집안사람이 그것을 언급하면 반드시 크게 질책하여 그치게 하고, “다만 그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조정에서 어떤 장로가 공을 지적하여 곤핍하여 화려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은 모두 진실한 은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일찍이 학식 두 글자로써 을묘년(1555년) 현량으로 선발되었는데 사양하고 스스로 벗어나서 그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주(尙州)의 수령이 되었을 때 조정에서 학식염근(學識廉謹) 네 마디로 추천하여 특별히 당상을 가했는데 스스로 그 허명이 사실보다 지나침을 염려하면서 반드시 개삭(改削)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271) 분필(芬苾)의 제사 : 분필은 제사 음식을 발함. 《시경(詩經)》 소아(小雅) 초초자자(楚楚者茨)에, “정결하고 향기로운 효손의 제사에, 신령이 그 음식을 달게 받았다.[苾芬孝祀 神嗜飲食]”는 말임.

※ 별폭의 을묘년(1555)은 기묘년(1519)로 수정해야 함. (별폭 원문에 己卯年으로 되어 있음)

순삭(旬朔) 동안 머물러 두고 예복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조정의 관리가 와서 과실을 문책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기 전에 관직을 버리고 돌아와서 “인생 칠십은 치사하는 해인데 하물며 허명으로 머물러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중에 여러 내외의 임명된 직책 모두에 대해 “관직을 쉬는 것을 이미 결정했다. 노병이 더욱 심한데 지금 다시 벼슬하는 것은 구차하다”고 하고, 마침내 처음부터 끝까지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청렴을 선발했는데 겨우 10인이었습니다. 대궐 뜰에서 연회를 하사했는데 공은 그 선발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나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상으로 하사한 물건들을 모두 마을 이웃에 나누어주었습니다. 노병이 든 나이에 경계하여 삼가고 더욱 자제들에게 엄격했습니다.

다시 그 『소학』 책을 보았는데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잤습니다. 잠(箴)<sup>272</sup>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때때로 즐겁게 읽었습니다. 『소학』의 권말에 이르자, 2편 시를 남겨서 스스로 술화하기를 “초심은 성현과 함께 돌아가길 본받았고, 선행과 좋은 말을 여기지 않겠다고 맹세했네. 마을 사람으로 한 늙은이가 된 것을 면하지 못하고, 단지 77년이 잘못이었음을 깨닫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비록 모진 추위와 괴로운 무더위에도 반드시 여명에 세수하고, 옷을 걸치고 관대를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있다가 침석에 들어서야 비로소 풀었습니다. 또 여러 성현들의 언행 중에 절요(切要)한 것을 별도로 베껴서 ‘자경지서(自警之書)’라고 제목을 적고 말하기를 “치신(治身)하는 법도이고, 양몽(養蒙)하는 글이다”고 하고, 또 “여러 책의 제요(提要)는 항상 나란히 이루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의 둘째 아들이 관직에 있었는데 집에서는 별도의 상자 안의 지방으로 고비(考妣)의 신주를 대신하고 삭망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출입할 때는 반드시 고했으며, 나이가 79세일 때도 제물을 반드시 친히 차렸습니다.

272) 箴 : 경계하는 말.

별첨 25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옥천읍지(1824년~1834년), 2005년 옥천문화원 번역 발행》



시하기를“나는 내가 연소한 문사로서 일찍이 독서에 뜻을 두고 덕과 도를 이루기를 기약한다고 들었다. 나는 몹시 그것을 가상하게 여겼는데, 네가 관아에서 저녁에 숙직하며 독서에 전념하지 못함이 오히려 염려가 되어, 특별히 호당(湖堂)를 설치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공이 미리 먼저 선발되어 휴기를 받아 독서하였다. 또 산을 유람할 것을 명하고 관에서 비용과 용구를 공급해주도록 하였다. 학문에 뜻을 다하여 크게 쓰이도록 한 것이다. 또 음주를 경계하여 세 작(爵: 잔)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보살핌이 이와 같았다. 정사년에 상소하여 간인(奸人)을 배척하도록 하였다. 임술년에 병으로 죽으니 나이가 35세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임금이 몹시 슬퍼하며 예장(禮葬)을 명하고 재문을 내렸는데, 마음이 담박하고 바르고, 의리 있는 인절(仁傑)이었다는 구절이 있었다. 선묘(先廟)의 임어(臨御) 때에 공과 함께 선왕(先王)을 보좌하였고, 조천(朝天)의 여행을 여러 번 함께 하였다. 이등에 녹훈하고 일자(一資)를 추증하였다. 양눌재(梁訥齋: 梁城之)와 함께 철권(鐵券)을 받았다. 본군 호계서원(虎溪書院)에 제향되었다.

- 곽은(郭垹) : 선산인(善山人)이다. 자호는 용촌(龍村)이다. 성화(成化) 을유년에 생원이 되고, 임진년에 과거에 올라 당시의 기대를 받으며 대각에 출입하였다. 당시 담양(潭陽)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특명으로 부사로 임명되어, 교화(教化)를 밝히고 예속(禮俗)을 두텁게 하여 백성들이 효성과 공경심을 일으켜서 부모처럼 보았다. 명성이 대궐에 들려와서 거듭 승지(承旨)로 특진하였다. 부임하려던 중 갑자기 관청에서 죽었다. 이민(吏民)들이 비통해 하며 슬과 고기를 끊고 서로 조문하였다. 귀장(歸葬)하던 날 거리의 곡성이 이어졌다. 인근의 어상(魚商)들은 담양의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양부사가 죽었으니, 담양의 백성들이 반드시 어육(魚肉)을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봄가을로 제향하였다. 율곡 이이가 공을 칭송하여 참으로 덕이 있으니 전형(銓衡)을 맡을 만하다고 하고, 계를 올려 그 자손들을 등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군 창주서원(滄洲書院)의 별사(別祠)에 제향되었다.

문인적

- 전팽령(全彭齡) : 옥천인(沃川人)이다. 자호는 송정(松亭)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독실하게 이루고 행실을 지켰다. 홍치(弘治) 갑자년에 생원이 되었는데, 기묘년 현량과(賢良科)에 선발되었다. 그러나 탄식하기를 “허명(虛名)이 세상을 그르치니, 마음이 실로 상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나이까지 알았다. 사화(士禍: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갑신년에 과거에 올라, 신묘년에 북평사(北平事)가 되었다. 절도사 이사균(李思均)이 본래 횡사(橫恣: 끼리는 것 없이 제 멋대로 행동함)한 인물이었는데, 공이 정직하다는 소문을 듣고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천(端川)에 임명되어 관에 도착하니 아전들이 수백 량의 은자(銀子)를 당 앞에 놓아두었다. 과상히 여기고 물어보니“옛 관례입니다”라고 하였다. 즉시 거두어 갈 것을 명하고 끝내 받지 않았다.

삼척(三陟)에 임명되어, 읍(邑)의 풍속을 크게 변화시켰다. 유학(儒學)을 처음으로 일으켜서 음란함이 사라졌다. 상주(尙州)를 맡고 있을 때, 대신(大臣)이 학식으로써 천거하여, 특별히 당상계(堂上階)에 올라서 강원감사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조정에서 청백리 10인을 선발하여 궁궐 마당에서 하사하였다. 공은 이때 집에 있었는데, 특별히 단목(丹木)과 호초(胡椒)로써 충애를 내렸다. 늙어서 물러나 고향집에서 항상 『소학』을 독서하였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면서도, 경계하고 칙려(勅勵)함이 더욱 엄하였다. 절구 한 수를 지어 스스로 회포를 풀기를 처음 마음은 성현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서, 선행과 가언을 어기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네. 시골사람을 면하지 못하고 모두 함께 늙어가니, 칠십 칠년이 그릇됐음을 알겠네"라고 하였다. 손수 치신(治身)의 준승(準繩)과 여러 책의 중요한 말을 선발하여 자신이 경계할 자료로 삼았다. 본군의 목담영당(鶯潭影堂)에 제향되었다.

- 관직(郭際) : 은(垠)의 손자이다. 자호는 탄암(坦菴)이다. 타고난 자질이 총영(聰穎)하여, 어려서 『대학』을 배웠는데 책을 마치기 전에 문리(文理)를 스스로 통달하였다. 일찍이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대개 글을 지으면 반드시 성리(性理)의 원론(源論)에 근거하였다. 선유(先儒)의 뜻을 변별하고 태극도설(太極圖說)에 근거하여 반복하여 깨치었다. 모재가 감탄하여 "이는 성리(性理)를 계발한 것으로서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 고명(高明)한 학문은 남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자경(自警) 십조(十條)를 지어서 일용의 경계로 삼았다. 가정(嘉靖) 임오년에 진사가 되고 기해년에 과거에 올라 관직이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이르렀다. 일찍이 강석(講席)에 나갔는데 대간(臺諫)의 현시(顯示)가 자기의 뜻을 구하려 한 것을 알고 자신의 글에 자(字)를 쓰지 않았다. 그 후 김안로(金安老)가 문형(文衡)을 맡아서 매번 출제로 선비들을 시험하여 취사의 뜻을 보이었다. 곧 그 뜻에 반하여 지었는데, 일찍이 "차라리 죽각 폐망하여 기탄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김안로가 폐한 후 비로소 과거에 올라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와 교의가 몹시 두터웠다. 하서가 시를 주기를 "공을 흠모하는 것은 거거(擧擧)한 구름 속 학과 같아서고,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구구(區區)한 우물 속 개구리와 같아서네"라고 하였다. 본군 삼청사(三淸祀)에 제향되었다.



[전맹령 영정]

- 정설(鄭雪) : 하동인(河東人)이다. 자호는 고암(顧菴)이다. 기묘년에 진사가 되고, 을묘년에 과거에 올라 관직은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다. 문장을 잘 지었다. 일찍이 진관(津館)에 있을 때 정인홍

별첨 26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국역 관성사마안. 사마안급향약, 2016년 옥천군 옥주사마소 발행》

로老

유학 전팽령(金彭齡)<sup>28)</sup> : 자는 숙광(叔光), 연산조 홍치 갑자년 생원, 나중에 등제 했고, 호는 송정(松亭)이다. 이국형(李國衡)의 사위이다. 부친은 응경(應卿)이다.

유학 김극광(金克光) : 자는 현보(顯甫), 연산조 홍치 갑자년 생진(生進).

유학 전팽수(金彭壽)<sup>29)</sup> : 자는 중로(仲老), 중종조(中宗朝) 정덕(正德) 경오년 진사, 팽령(彭齡)의 중형(仲兄)이다. 나중에 등제했다. 부친은 응경(應卿)이고 호는 송오(松塢)이다.

유학 이속(李琫) : 자는 가현(可獻), 중종조 정덕 경오년 생원, 우거했음. 문음으로 단성현감(丹城縣監)을 지냈다.

28) 전팽령(金彭齡, 1480~1560) : 전팽수의 아우, 옥천인. 자호는 송정(松亭).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독실하게 어루고 행실을 지켰다. 홍치 갑자년에 생원이 되었는데, 기묘년 현량과에 선발되었다. 그러나 “虛名이 세상을 그르치니 마음이 상할까 실로 두렵다”고 하며 나아가지 않았다.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갑신년에 과거에 올라 신묘년에 북평사가 되었다. 절도사 이사균이 본래 횡자한 인물이었는데, 공이 정직하다는 소문을 듣고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端川에 임명되어 관에 도착하니 아전들이 수백 량의 은자를 당 앞에 놓아 두었다. 괴상히 여겨 물어보니 “옛 관례입니다”라 하니 즉시 거두어 갈 것을 명하고 받지 않았다. 三陟에 임명되어 읍의 풍속을 크게 변화시켰다. 조정에서 청백리 10인을 선발하여 궁궐 마당에서 하사하였다. 늙어서 물러나 항상 “소학”을 독서하였다. 야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면서도 경계하고 직려(勸勵)함이 더욱 엄하였다. 절구 한 수를 지어 회포를 풀기를 “처음 마음은 성현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서 선행과 가언을 어기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네. 시골 사람을 면하지 못하고 모두 함께 늙어가니 칠십 칠년이 그릇됨을 알겠네”라고 하였다. 손수 치신의 준승(準繩)과 여러 책의 중요한 말을 선발하여 자신이 경계할 자료로 삼았다. 본군(옥천군)의 목담영당에 제향되었다.

29) 전팽수(金彭壽) : 전숙(全淑)의 5세손이다. 중종 기묘년 식년시에 발탁되어 학식과 엄공으로써 여러 번 주군(州郡)을 맡았다. 정사가 청간(淸簡)하였다. 관직은 부사에 이르렀고, 나중에 상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아우 팽령과 함께 취임, 양신 두 정자를 지어 놓고 행적을 거두고 조용히 수양하며 담박하게 즐기면서 생을 마쳤다.

## 별첨 27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문헌 《옥천의 역사 인물 - (사)옥천향토사연구회 발간》

(사)옥천향토사연구회, 옥천 인물 24인의 생애 담은 인물지 발간

기자명 충북세종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승인 2018.11.06 15:20 댓글 0

옥천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 생애와 업적 정리



【옥천=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6일 (사)옥천향토사연구회 따르면, 충북 옥천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한 두 번째 인물지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2011년 정지용, 송건호, 정순철 선생 등 옥천 출신 20인의 업적을 담은 첫 번째 인물집 발간 이후 두 번째로 1집에서 다루지 않은 숨은 인물을 발굴해 엮는데 주력했다.

옥천 출신 또는 옥천과 관련돼 지역을 빛낸 인물로 이미 작고하신 분들 중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으며 학술적 가치가 높은 24인을 최종 선정했다.

충절의 역사인물인 송정 전팽령, 경재 남수문, 괴정 오상규 선생을 비롯해 유학자 수옹 송갑조, 입재 송근수, 고암 정립 선생 등이 수록됐다.

특히 송정 전팽령(松亭 全彭齡) 선생은 현 동이면 금암리(1480~1560) 출신 조선시대 성리학자로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에게 내려진 조선시대 최고의 영예인 청백리상을 받았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전식, 전유 선생을 포함해 전팽령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동이면 금암리 목담영당에서는 매년 춘향제가 열린다.

명성이나 이익을 쫓지 않고 정의롭고 진실한 생활관으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 온 전 팽령 선생이야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지역민의 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의병과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동천 이충범, 김현구, 김철수, 허상기 선생의 업적도 소개돼 있다.

옥봉 이숙원, 육정수, 전형, 이은방 등의 문화예술인과 정구삼, 신각휴, 육인수, 청람 정구영, 박준병 등의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다.

하동철, 석전 육지수, 소정 정구총 등의 교육자와 검도개척자 이교신, 권투세계 챔피언 이열우 등의 체육인도 수록됐다.

(사)옥천향토사연구회는 이번 책자 발간을 위해 14명의 자문위원과 21명의 집필위원을 꾸려 다양한 역사인물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 1월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옥천군지, 역사서 등 참고문헌과 수차례의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집필에 들어갔다.

총 585쪽으로 각 장마다 인물에 대한 업적 설명과 함께 가족과 주변인물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으며 생전 사진 등도 다수 포함돼 기록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과 이 연구회는 책자 600부를 각 학교와 도서관, 기관단체 등에 배부해 선각자들의 많은 활동과 학문 사상 등을 널리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하 회장은 “어려운 여건과 한정된 기간 내 역사적인 사실과 옛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위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 주셨다”며 “이번 인물지를 통해 우리 군민들이 새로운 것으로 알고 이해하며 다양한 곳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옥천읍 문정리 명가 컨벤션홀에서는 자문·집필위원과 기관·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간 기념회를 갖고 책자 발간을 축하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조운찬 기자 ycc925@naver.com

## 별첨 28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기사 《옥천향수신문(2018.11.23.)》

을골은 선비의 자세 후세에 남기다.

옥천향수신문 도복희 기자

2018.11.23

어려움 당한 이에게 음식 나누며 빈민구제 성균관별시 장원급제, 삼척부사 등 관직 제수



『목담서원(鰲潭書院) 1776년 건립(영당 1936년 복원)』

### ▲ 송정 전팽령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는 청백리에 선정된 전팽령 선생께서 살던 ‘반송대가’가 있는 곳이다. 양신정과 목담서원이 있고, 송정공의 아들 전엽의 효자비가 있다. 효자에 대한 설화가 담긴 호천이 있다. **옥천의 자랑인 청백리 전팽령 선생에 대한 행적과 그간 삶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송정 전팽령 선생은 1480년(조선 성종 11년) 11월 10일 옥천의 기사천리에서 출생했다. 선생의 본관은 옥천이고, 자는 속로이며, 호는 송정이다. 전오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석성현감 전효순이고, 아버지는 참판 전응경, 어머니는 좌사간 김사렴의 손녀로 김력의 딸이다. 기사천은 선생의 5세조인신 관성군공이 고려의 운이 기운을 당하자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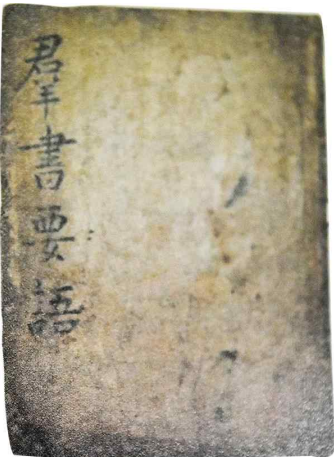
신은 두 성을 첨기지 않는다는 ‘불사이군’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옥천으로 내려와 은둔하며 살게 된 것

## ▲ 어린시절

전팽령은 1485년 6세가 되니 품성이 특출하고, 비범했으며 총명함이 빼어났다. 노는 것도 법도가 있었으니 지역의 원로들이 “모두 미루어 원대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8세 때에는 학문에 뜻을 두고 소학을 공부하니 그르치지 않고 바르게 행동했으며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스스로 힘써 공부하니 보는 자가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14세 때 둘째형을 좇아 조현사에 올라가 중용의 심오한 뜻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1504년 25세 식년 생원에 합격하고, 또 관시와 별시 두 곳에서 연이어 장원으로 합격했다. 32세에는 장악원별시에서 장원급제 했다. 또한 1522년(43세)에 세종황제 가정 원년(조선중종 17년) 겨울에 성균관 별시에 장원급제 했다.

## ▲ 관직

1524년(45세) 봄 세자의 입학을 기념하여 별시 문과에 이효충 방 밑에 28명 중 3등으로 급제했다. 그해 3월21일 경주 훈도에 제수되어 5월에 경주로 부임해 경학을 가르치시니 유품이 크게 진작되었다. 경주에서 그 직이 만기가 되자, 다시 성주의 훈도에 제수 받아 부임



군서요어

하였을 때에 권간 김안노는 권력을 휘두르고 농락하였으나 그에 휘말리지 않고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처신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올곧게 관직을 수행하였다. 1534년(55세) 겨울에는 성균관 사성에 올랐으나 권세 잡은 자들의 횡포에 어진 재상이 좌우에 있었다. 그러나 바르고 사리에 맞지 않은 말에 치우치지 않을 선생께서 은총을 입어 그 자리에 제수되었다. 1536년(57세) 봄에 사도시 정에 발탁되었고, 여름에는 단천군수에 부임하였다. 가을에는 이성의 동당에서 시관에 임명

되어 공평정대하게 인재를 선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니 많은 선비들 간에도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 다음해에 단천의 태수로 있으면서 성심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조처하여 그간에 있었던 온갖 폐단을 제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태평하게 살았다. 선생께서는 군정을 청렴하고 근검하게 운영하여 덕행으로 교화에 힘쓰니 고을이 안도하며 평안하게 되었다.

## ▲ 공덕비

1542년(63세) 정월에 내자시를 경유하여 삼척부사에 제수되었다. 학문에 힘쓰고 인재

를 훈육하니 이에 유학이 비로써 일어나고 읍풍이 크게 변화하여 동요와 민속에 “다 임금을 섬기고, 어른을 공경함을 안다”라고 하였다. 삼척부사직(1542.3~1543.4)을 마치고 돌아오니 읍민들이 세워 주었다.

1548년봄 통례원의 좌통례에 취임하였다. 70세의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주목사에 제배되니 그 해가 흉년이 들어 사라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생은 공적으로 주는 봉급을 헌납하고, 명하여 술을 성의 밑에 벌려서 걸게 하고, 죽을 끓여 어려움을 당한 빈민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올바른 위민 치정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이 다 말하기를 “일만 입이 다 비문이니 어찌 석비가 필요하리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 옥천향토사연구회 이재하 회장.

#### ▲ 옥천향토사연구회 이재하 회장 ‘전팽령’을 말하다

옥천향토사연구회 이재하 회장은 옥천의 역사인물 전팽령 선생에 관해서는 청백리상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연구 전까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했다. 그에 대한 연구 과정을 통해 전팽령 선생이 관직에 있으면서 올곧은 선비로서 지역을 잘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어 공직자의 표상이고 옥천의 인물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옥천의 자랑스런 인물을 널리 알려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자 집필하게 되었다고 의도를 밝혔다. 자료수집이 쉽지는 않았으나 전팽령 선생의 종중에서 문헌이나 자료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뿐 아니라 동이면 금암리 옥천 전씨 판서 공파 후손들의 적극적인 안내로 종중 선산에 선생의 묘와 묘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또한 전팽령 선생의 아들 전업이 살아생전 부모님을 잘 모시고 돌아가셔서 시묘살이를 잘했다고 하사한 효자비 역시 눈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2011년 1집에 20명과 2018년 2집에 25명의 옥천 역사 인물을 우리 세대에 군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다”며 “옥천 군민과 후손들, 역사에 관심 있는 분

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빠진 분들 역시 3집, 4집을 통해 세상에 이름을 알려 옥천이 역사 인물의 고장임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묻혀 가는 인물을 잘 조명해 살아생전의 정신적 사상과 학문적 깊이를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했다. 또한 이 회장은 “옥천의 역사인물 발굴을 통해 그들의 업적과 사상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역사인물 테마공원을 만든다면 후손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옥천의 자랑스런 유적지로 인물의 고장 옥천을 크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별첨 29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기사 《옥천향수신문 (2021.03.04.)》

강직한 인품의 청백리 송정 전팽령 선생

옥천향수신문 김수연 기자

2021. 03. 04.

### 강직한 인품의 청백리

송정 전팽령 선생(松亭 全彭齡 先生)

송정 전팽령 선생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커 자신의 봉급으로 빈민들의 배고픔을 덜어 주기도 했다.

돈은 자주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수사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고위 관리직들의 뇌물수수 행위가 틈만나면 대서특필 되는데 포렌식 복구 방법도 없었던 과거에는 이와 같이 뇌물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를 세우거나 반정을 일으켜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데 성공한 공신들 또한 뇌물을 받는 행위가 빈번했음이 기록에 나와있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단어로는 ‘매관매직’이 있다.

고위직들이 돈을 받고 과거 시험 합격, 추천 등을 보장하며 관리직을 팔았던 것.

이렇듯 시대와 시대를 꿰뚫고 돈의 유혹이 그치지 않았지만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일컫어 ‘청백리’라 부른다.

‘청백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모범 관료에게 수여되는 명칭으로 조정에서 청렴결백한 관리로 뽑히는 것이며 동료들의 평가,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정부의 검증절차, 2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 사간원장급의 추천을 통해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 통틀어 총 217명이 선정됐는데 동이면 적하리에서 태어난 송정 전팽령 선생도 그 중 한 사람이다.

1480년 조선 성종대에 태어난 송정은 8세 때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소학을 공부했고 18세부터는 과거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25세에 생원시를 합격하고 관시와 별시에서 연달아 장원으로 합격했으며 7년 후인 32세에는 장악원별시에서 장원급제하는 큰 업적을 이뤘다.

송정이 40세 되던 해 중종이 등극하고 궁의 분위기와 관습들이 많이 변했다. 특히 경외관의 추천으로 왕이 직접 참관하는 친시를 보게 된 그는 2등에 올랐으나 사양하고 과거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무작정 과거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는 당시 이미 간신들이 정권을 잡고 현자들이 큰 고통을 받으리라는 것을 예언했고 이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3년 후 송정은 성균관 별시에 장원 급제하고 다시 2년 뒤 세자 입학 기념 별시 문과에 3등으로 급제했다.

경주에 부임해 경학을 가르쳤던 송정은 48세가 되던 해 임금에게 향축을 문제삼았다가 파면당하고 본직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수많은 관직 임명을 거쳤지만 지병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양하거나 취임하지 못했다.

그는 52세에 평안도 평사에 발탁돼 부임했는데 이듬해 봄 성균관 전적검 중학교수로 발탁, 이어 형조좌랑, 공조좌랑, 형조정랑 순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가 56세에 그의 큰형을 잃고 상을 치르러 옥천에 돌아왔는데 작은 형 송오공 또한 병을 얻어 고향에 돌아와있었다. 둘은 큰 형의 죽음을 슬퍼하며 한동안 취원정에서 강회를 가지며 형제의 정을 나눴다.

이후 그는 62세에 단천군수직, 63세에 삼척부사직, 65세에 밀양부사직을 마치고 이듬해 옥천으로 돌아왔다.

68세, 송정은 이미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조정에서 불러 상경하니 정3품의 관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상주목사로 부임하는데 그 해에 사람이 서로 잡아먹을만큼 끔찍했던 대기근이 시작됐다. 선생은 공적으로 주는 봉급을 헌납하고 성 밑에 술을 걸어 죽을 끓여 빈민에게 나눠 줬던 최대한 굶는 사람이 없게끔 처리했다.

이렇듯 큰 일을 모두 처리한 선생은 1560년 옥천 양신정에서 눈을 감았다.

송정 전평령 선생의 학문에 대한 열의와 일을 처리하는 지혜로움, 청렴하고 올곧은 기개는 지금까지도 옥천 군민에게 큰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출처 : 옥천향수신문(<http://www.okhsnews.com>)

별첨 30 전팽령 청백리 피선관련 내용 《충북 어린이 도청》

자랑스런 충북인 전팽령(1480년~1560년)



전팽령은 1480년 11월 10일(조선성종 11년 경자년)에 옥천군 동이면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숙로(叔老)이고, 호는 송정(松亭)이며 본관은 옥천이다. 그는 연산군 갑자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중종 갑신년에는 문과에도 합격한 문인이다.



『송정 전팽령 선생 영정』

전팽령은 이로부터 벼슬길로 올라 내직으로는 형조, 공조의 좌랑과 정랑을 비롯하여 사도, 사성, 통례원의 우통례 등 여러 분야의 관리로 지내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바르게 펴 나갔다.

또한 그는 외직으로 평양감사에 올랐는데 일찍이 단천군수, 삼척, 밀양등지의 부사를 거쳐 상주목사로 있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억울하고 불편한 점을 파헤쳐 줌으로써 인정과 덕을 베푸는 관리로 지냈다.

당시 전팽령 목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 채, 남루한 옷차림으로 이웃아저씨 처럼 혼자 민정 시찰을 하면서 백성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나날을 보내 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전팽령은 주막에서 막걸리를 먹는 농부들 틈에 끼어 지나가는 나그네로 행세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렸다. 그러노라면 사회의 밑바닥까지 상세히 알 수 있었고,

때로는 전팽령 목사 자신의 그릇됨을 비평하여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어도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는 중간에 살며시 막걸리 값을 지불하고 갈 길이 멀다며 작별인사를 나누면 농부들은 고개를 절로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전 목사는 바로 관청에 들어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분석해 보고 잘못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주고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의 청을 모두 들어주고 백성들의 손발 노릇을 해주는 어진 관리였다.

어느날 새벽, 전팽령 목사가 여느 때처럼 남루한 옷차림으로 순시를 하던 중, 아기의 울음 소리와 아낙네의 울음 소리가 함께 울려와 그의 귓전을 때렸다. 울음 소리가 나는 집 근처에 가까이 가 보니 아낙네는 아기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허름하게 옷을 입은 전팽령 목사는 문앞에 다가가 큰 기침을 하면서

"게, 아무도 없느냐?"

라고 몇 번을 불렀다.

"뉘신가요?"

전팽령 목사는 목을 가다듬으면서 점잖은 목소리로

"갈가는 과객이오. 모녀가 하도 슬피 우시기에 여쭙는 바입니다."

그제서야 아낙네는 눈물을 거두고 과객에게

"실은 보릿고개라 식량도 떨어져 배를 굶주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애기 까지 병이 나 밤새껏 울기에 저도 아기를 붙들고 한없이 울면서 오직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옵니다."

전팽령은 방에 들어가서 아기의 모습을 두루 살핀 후, 자신이 갖고 다니던 허름한 붓짐 안에서 약을 꺼내어 아기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이 약 좀 아기에게 먹이시지요."

라고 말을 건넸다. 아기 어머니는 과객에게 고맙다고 말한 후, 물과 수저를 챙겨서 아기에게 약을 먹였다. 어느새 아기는 회복하여 금방 생기가 돌면서 방긋방긋 웃어 주기까지 하였다.

이튿날, 전팽령 목사는 고을을 샅샅이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일을 바로잡아 주고, 나아가 해결해 주는 고을의 책임자이니 백성들 모두가 따르고 신임하면서 그를 무척 좋아했다.

이 같은 전팽령 목사의 미담이 돌고돌아 조정에게까지 알려지기에 이르렀다.

전팽령은 37년간 관직에 몸담으면서 네 차례나 고을을 다스렸지만, 그에게는 항상 검소하였고 매사에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고 행정 관리자에게는 항상 엄하고 사리가 분명했다.

한편 백성들에게는 관용과 인정이 넘치면서 손과 발이 되어 억울한 일이나 아픈 곳을 그때마다 해결해 주는 청백리로 그의 높은 열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출처> **충북 어린이 도청** 내가 사는 충북은 => 자랑스런 충북인

▣ 고암선생유고부록 1권 (顧菴先生遺稿附錄卷之一)

◇ 연보(年譜)

○ 출생

명나라 세종 황제 가정 33년 갑인년(1554년, 명종9년) 11월 초8일 사시에 선생이 충청북도 옥천군 이북면 사관촌(현 東二面) 적하리)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5세조 흠곡공 소가 영동에서 이곳으로 옮겨 살았다. 자손들이 이로 인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부친은 동강선생 유건(惟審)이고, 모친 전부인(全夫人)은 송정선생 팽령의 따님이다.

○ 34년 을묘년(1555년) (선생 2세)

영오(穎悟)하고 장중함이 능히 장자(長者)와 같았다.

○ 35년 병진년(1556년) (선생 3세)

11월 초4일에 백씨(伯氏) 장사랑공(將仕郎公)의 상을 당했다.

특별히 일기에다 이 잔치를 기록하는 것은 기쁨과 두려움의 마음 때문이다”고 했다.  
3월 25일에 동강선생의 상을 당했다. 여러 형제들과 함께 여막을 지키며 예법을 다하고 곡읍하였다. 슬픔으로 건강을 해쳐서 사람들이 차마 볼 수 없었다.

5월 12일에 동강선생을 옥천 북리면 보로동에 장례했다. 한결같이 예제를 따라서 유감이 없는 바였다. 말하기를 “애통하구나! 유명이 이로부터 서로 막히게 되었다”고 했다.

○13년 을유년(1585년) (선생 32세)

3월 25일에 동강선생의 소상(小祥)을 행했다. 6월 초3일에 동강선생의 묘에 비석을 세우고 글로써 고유했다. 12월에 동강선생의 일기 추록서를 지었다.

○14년 병술년(1586년) (선생 33세)

2월 16일에 전부인(全夫人)의 상을 당했다. 그 애통함이 간절하고, 예제를 갖추어 한결같이 이전의 상과 같이 하였다. 3월 25일에 동강선생의 대상(大祥)을 행했다. 이전 상복으로써 기제례(忌祭禮)에 의거하여 제사를 올린 것은 전부인을 아직 장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월 9일에 전부인을 동강선생 묘 옆에 장례하고 위례(衛禮)를 행했다. 4월 13일에 정해에 백의와 백립 차림으로 동강선생의 대상을 행했다.

○15년 정해년(1587년) (선생 34세)

2월 16일에 전부인의 소상(小祥)을 행했다.

○16년 무자년(1588년) (선생 35세)

2월 16일에 전부인의 대상(大祥)을 행했다. 3월 초10일에 동강선생의 묘에 예제를 올리고 글로써 고유했다. 4월 초4일 정사에 전부인의 담제를 올렸다.

○17년 기축년(1589년) (선생 36세)

5월 초8일에 조 중봉이 길주로 유배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주었다. 8일

별첨 32 정립선생 문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예고관련 기사  
 옥천 '정립 문적', 충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등록 2020-07-04 10:00:03



[옥천=뉴스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 향토전시관에 보관된 '정립 문적(鄭靈 文籍)'이 충북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된다.

4일 군에 따르면 정립 문적은 이 지역 출신 정립 선생이 남긴 고문서 4점으로 고암기(顧菴記, 1586~1592년, 일기), 개명첩(改名帖), 교첩, 교지이다.

개인의 생활사, 당시 지역문화와 정치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사료다. 도보 고시 후 3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립(鄭靈, 1554~1640)의 본관은 하동(河東), 초명은 방(霧), 자는 군흠(君洽), 호는 고암(顧菴)이다. 1579년(선조 12) 진사시에 합격했다. 진해현감·경상도도사를 거쳐 1623년(인조 1) 춘추관기주관 겸 교리와 정랑·군자감정·판사 등을 역임했다.

임진왜란 때 조헌(趙憲)·이충범(李忠範)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군량미를 보급했고 정묘호란 때에는 김장생(金長生)의 휘하에서 의병 활동을 했다.

'고암기'는 1586년부터 1592년까지 정립 선생이 쓴 일기로 임진왜란 때 기록이 수록됐다.

목판으로 제작한 개명첩은 진사 정방의 이름을 정립으로 바꾸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kipoi@newsis.com

## 별첨 33 '정립 문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지정관련 기사

2021년도 보존처리 및 고암기 국역 등 사업 계획

-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승인 2020.11.12 09:08



▲ '정립 문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옥천군은 향토전시관 소장 '정립 문적'이 문화재 지정예고를 거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04호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립 문적은 옥천 출신의 정립 선생이 남긴 고문서 4점으로 고암기와 개명첩, 교첩, 교지로서 정립 선생의 11대 후손인 정수병氏가 1990년대 향토전시관에 기증한 자료이다.

군에 따르면 정립 문적은 정립의 관직생활 및 임진왜란 전후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임과 동시에 목판본으로 제작된 개명첩 등은 조선시대 관문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옥천군은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정립 문적에 대한 보존처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종이 기록물의 특성 상 오염 및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클리닝 및 결손부위 보강, 습도조절 등의 보존처리를 통해 더 이상의 손상 및 변화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충청도 지역의 난중일기로 평가받는 일기인 '고암기'의 국역 사업을 추진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지난날을 추모하니 슬픈 감정이 많고  
 이에 중각(重刻)할 계획을 어찌 헛되이 늦출 것인가  
 공역의 완성은 다만 새 영윤(永尹)에 힘입었는데  
 축하의 말이 떠들썩하게 읍 마을에 비등했네

금년 늦봄에 삼종제(三從弟) 지환(趾煥)이 마침 성산 땅에 가서 의춘 간송 조임도의 소지(小識)를 얻어가지고 왔다. 곧 선조께서 관직을 그만두었을 때의 일이었다.

읍을 떠나던 날에 읍인들이 공이 떠나감을 애석해 하며 쟁기를 풀고 호미를 던지고, 근심하며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다. 저 조 씨는 우리 선조와 오랜 친분도 없고, 시대도 차이 나고, 지역의 거리가 또한 먼데 그 문자에 휘식(徽飾)한 것이 이와 같았다. 그 정중함으로써 선조께서 당일에 다스리고 교화함이 성실하여 사경(四境)에 널리 퍼지고, 더욱 오래되어도 없어지지 않음을 더욱 징험할 수 있다. 해읍(海邑) 십실(十室)을 다스린 성적(聲積)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만약 선조에게 반칙<sup>949</sup>의 대임(大任)을 위임하여 맡겼다면 거의 평일의 온축함을 펴서 그 정치 교화의 아름다움이 어찌 이에 그쳤겠는가?

정미년 중춘 하한(下澣)에 불초손 기환(基煥)이 삼가 발문을 쓰다.

20년  
 추에 이름이 같이다  
 ◇행장(行狀)

공의 성은 정씨이고, 처음 이름은 방이고, 호는 고암이시다. 계통이 하동에서 나왔는데 고려 숙종조에 손위(遜位)가 5 왕조에 이어서 출사하여 관직이 정현대부 지예부사를 지냈다. 이분이 비조이시다. 세유께서는 관직이 형부상서에 이르렀고,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소라는 분이 있는데 관직이 흡곡 현령<sup>950</sup>에 이르렀다. 학행이

949) 盤錯 : 반근착절(盤根錯節)의 준말이다. 서린 뿌리와 얽켜려진 마디라는 뜻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비유한다.

950) 흡곡 현령(歙谷縣令) : 조선시대 강원도 금양군(지금의 통천군) 영현이며 1910년 통천군에 편

있고, 여묘살이를 3년을 했다.

주좌(周佐)는 승사랑을 지냈고, 효우로써 세상에 드러났다. 양승은 관직이 사헌부감찰에 이르렀고, 절행이 있어서 출사하지 않으려고 했다. 연은 문장과 학행으로써 조정에 추천되어 관직이 비안현감에 이르렀는데 간신의 질투를 받아서 마침내 출사하지 않고 재야에 은둔했다. 이분들이 공의 고조와 증조이다.

공의 부친은 유건이신데 임자년(155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임천에 덕을 감추고 문달을 구하지 않았다. 힘써 복례를 배워서 사림에서 중시를 받았다. 선조 때 많은 선비들이 학행으로써 관찰사에게 알리니, 도신이 장계로 알리자 즉시 상운승<sup>951</sup>에 임명되었다. 곧 관직을 버리고 옛 집으로 퇴거하여 시례로써 스스로 즐겼는데 호는 동강이다.

공의 모친은 의인 옥천 전씨인데 고려조 판도판서(숙의 후손이고, 가선대부 강원감사 팽령의 따님)이다. 팽령은 기묘명현<sup>952</sup>으로서 호는 송정선생이다. 공은 가정 갑인년(1554년) 10월 초8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빼어나게 영리했는데 6세에 문장을 지을 수 있었고, 8세에 독서하며 대의에 통했고, 한 번 보면 곧 기억하였다. 만력 기묘년(1579년)에 시와 부로써 모두 진사에 합격했다. 임오년(1582)에 이조에 아뢰어 립으로 개명했고, 자는 균흡이다. 천성이 엄중근후하여 평거에 종일 단정히 앉아있었는데 비록 집안사람의 자제들일지라도 몸을 기대고 있는 해이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옛날 성현의 글을 낱낱이 보고 반드시 뜻을 변별하고 이치를 천명하고, 정밀하게 연구하여 깨닫지 않음이 없었다. 그 지은 문장은 준특기괴하고 뇌락굴강했는데 당세 5문장(五文章) 중에 공이 그 중 하나를 차지했다.

입됨.

951) 祥雲丞 :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상운역의 책임자인 종6품의 찰방을 말하며 상운도는 강원도 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으로 이어지는 소로에 속한 역포이다.

952) 己卯名賢 : 1519년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림들을 가리키는 말로 그 당시 신진사류인 조광조 일파의 개혁정책에 반발한 남곤, 심정 등 보수 세력의 공격으로 김정(金宗瑞)의 후손인 김육의 <己卯諸賢傳>에는 218명이 화를 당했고 주로 개혁정치를 주도한 조광조, 김안국, 김굉필 문인이 주축을 이룸.

## 별첨 35 부령김씨 김팽령 자료 및 과한록 등재인물

1) 김팽령 (金彭齡) 경주 (慶州) 중종 (中宗) 2년 (1507) 정묘 (丁卯) 식년시 (式年試) 3등 (三等) 23위 성종 (成宗) 17년 (1486) 병오 (丙午) 식년시 (式年試) 진사(進士)

2) 부안 김씨(扶安金氏) 또는 부령 김씨(扶寧金氏)는 전라북도 부안군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 역사

시조 김경수는 경순왕의 후예로, 고려조에 호장 동정을 역임하였다.[1] 그의 아들 김춘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워 부령부원군에 봉해졌다고 한다. 이후 부령현(扶寧縣)이 부안현(扶安縣)으로 합쳐짐에 따라 본관을 부안(扶安)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증손 김작신은 《고려사》에 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설에는 이부상서 우복야를 지냈는데 간신들의 고자질에 의해 고향 부령으로 낙향하여 호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1785년 신해보는 옳은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2]

5세손 김구는 문과에 급제하고 제주판관을 역임하였는데, 조부가 중이었기 때문에 대간이 될 수 없었으나 재주를 인정받아 1263년(원종 4) 우간의대부를 역임하고 태보에 올랐다.[3] 시호가 문정공으로 서원에 배향되었다. 이후 가문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현출(顯出)되었다. 상계는 문헌이 없어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4]

분적 부여 김씨

### 본관

부안은 삼한시대에 마한의 지반국이 있던 지역으로 백제 시대에는 개화현이라 했다. 757년(경덕왕 16)에 부령현이라 하여 고부군에 예속시켰다. 고려 1018년(고려 현종 9)에 보안으로 고쳐졌으며 한때 낭주라 불렸다. 고려 1018년(현종 9)에 감무를 두고 보안현을 예속시켰다.

### 과한록

#### ○등재인원

- 高麗朝 15명

- 朝鮮朝 667명

문과편 31명, 무과편 55명, 사마편 110명, 문음편 502명(소윤공 104명, 군사공 311명, 소감공 87명. 낭장, 좌승지, 시승공파는 제외된 수치이다.)

(高麗朝)

□선계편 : 15명

김경수, 김춘, 김인순, 김작신, 김의(김정립), 김구, 김여우, 김종화, 김숙우, 김승인, 김격, 김지경, 김용수, 김인정, 김신정

※ 김의(金宜)는 고려문과에 3위를 하였으며 같은 문과에서 동관인 부령인으로 김정립(金鼎立)이 2위를 하였으며 김의(金宜)의 초명과 이명이 정립이라는 기록이 있어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다.

※ 김구(金丘)는 12세로 고려의 최연소 진사이다. 문과에서는 모두 장원을 밟았으나 지공거 김양경(김인경)이 "장원이 마땅하나 의발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과거 성적과 같은 2위로 선발하였다"고 말한 고사가 전해진다.

※ 김종화(金宗燾)는 고려문과에 장원하였다.

※ 김승인(金承印)은 고려사마(진사시)에 장원하였다.

(朝鮮朝)

□문과편:31명

김회신, 김보적, 김보철, 김직손, 김팽석, 김홍덕, 김팽령, 김석필, 김서성, 김계, 김경덕, 김익복, 김치원, 김현, 김지성, 김명열, 김택, 김승액, 김일좌, 김궐, 김성연, 김대, 김운, 김동직, 김규하, 김한익, 김양묵, 김한정, 김상래, 김헌제, 김용현

※ 김현(金灑)은 문과에 장원하였다.

□무과편:55명

김관, 김절, 김태지, 김인지, 김우선, 김석손, 김인강, 김여, 김윤손, 김방주, 김응정, 김린, 김상건, 김담, 김립, 김유경, 김기경, 김기원, 김득인, 김우신, 김순, 김옥신, 김이원, 김기룡, 김세정, 김거, 김의건, 김몽두, 김응건, 김용발, 김호발, 김세방, 김득일, 김태검, 김익룡, 김응룡, 김효증, 김시좌, 김기룡, 김진규, 김하운, 김진위, 김수한, 김남전, 김남준, 김신일, 김석황, 김광수, 김한두, 김광하, 김환감, 김낙구, 김련, 김현식, 김병갑

※ 김환감(金煥鑑)은 무과에 장원하였다.

□사마편 : 110명

김진경, 김회신, 김진효, 김연수, 김직손, 김팽석, 김완, 김선, 김팽령, 김종, 김질, 김석필, 김익손, 김석홍, 김척, 김석옥, 김석량, 김응추, 김열, 김경도, 김경문, 김경장, 김우정, 김승정, 김점, 김수복, 김익복, 김원복, 김충복, 김형복, 김우상, 김응권, 김승복, 김전, 김중의, 김응별, 김대련, 김국번, 김횡, 김승복, 김익복, 김파, 김협, 김태복, 김홍원, 김정복, 김대일, 김진명, 김화, 김련, 김명, 김이복, 김여, 김삭, 김대건, 김우세, 김현, 김연, 김지순, 김단, 김정로, 김호, 김국검, 김지명, 김지성, 김처백, 김지백, 김찬, 김만수, 김극흠, 김지중, 김택, 김정옥, 김흠, 김호겸, 김진적, 김추, 김서경, 김일좌, 김홍탁, 김성연, 김수종, 김덕수, 김민학, 김석경, 김석창, 김수겸, 김후, 김운, 김손, 김수함, 김박, 김홍필, 김수민, 김성규, 김복남, 김옥, 김용필, 김취질, 김설, 김경휘, 김성발, 김상성, 김종택, 김륙, 김정수, 김기재, 김형근, 김봉호, 김영술부안 김씨

扶安 金氏

## 별첨 36 대동장고

대동장고  
大東掌攷

시대	조선
저작자	홍경모
창작/발표시기	순조 연간
성격	역사서
유형	문헌
권수/책수	13책
분야	역사/조선시대사
소장/전승	규장각 도서

**요약** 조선후기 문신·학자 홍경모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고사를 정리하여 수록한 역사서.

목차

1. 서지적 사항

1. 내용

서지적 사항

13책. 필사본.

내용

내용은 특히 조선시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조선시대 각 임금별로 인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1책 '역대고(歷代攷) 1'에서는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내용을 보면 각 왕별로 중국과의 연대비교 및 이름·생물년·재위기간·파계(派系)·왕비·능·치적·사적·고이(攷異) 등의 형식으로 역사를 정리하였다. 둘째로 각 왕조의 인물, 셋째로 속국(屬國) 등을 정리하였다.

한국고대사 인식체계는 삼조선(三朝鮮 :檀君朝鮮·中朝鮮·後朝鮮)-삼한(三韓)-삼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역대고 2'에서는 조선시대를 '역대고 1'의 첫 번째 형식으로 정리하였는데 목조(穆祖) 이하 정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2책은 초액고(椒掖攷 : 태조 이하 각 임금의 后妃)·종영고(宗英攷 : 왕자)·국구고(國舅攷)·의빈고(儀賓攷)·보상고(輔相攷)·국초검교정승(國初檢校政丞)·총재고(冢宰攷), 제3책은 사마고(司馬攷)·문형고(文衡攷)·별천문형(別薦文衡)·문형권점록(文衡圈點錄 : 선조 이후) 등으로 되어 있다.

제4책은 문임고(文任攷)·호당고(湖堂攷)·옥서고(玉署攷)·강관고(講官攷)·국자고(國子考), 제5책은 중서고(中書攷 : 舍人·檢詳·銓郎攷), 제6책은 내한고(內翰攷) 등으로 되어 있다.

제7책은 용원고(戎垣攷 : 訓將·別將)·기사고(耆社攷)·휴퇴고(休退攷), 제8책은 사훈고(司勳攷 : 功臣錄), 제9책은 방백고(方伯攷 : 경기·해서·호서), 제10책은 방백고(관동·영남·호남), 제11책은 방백고(관서·관북)·사성고(使星攷) 등으로 되어 있다.

제12책의 대동장고 별편(別編)은 신라부터 조선까지의 유림고(儒林攷)·시인고(詩人攷)·필원고(筆苑攷)·화가고(畫家攷)·청리고(淸吏攷)·명장고(名將攷) 등으로 되어 있다. 이어 대동장고 외편(外編)은 태묘종향고(太廟從享攷)·문묘종향고(文廟從享攷)·계성사종향고(啓聖祠從享攷)·장릉배식고(莊陵配食攷) 등으로 되어 있다. 제13책은 대동장고 외편이 계속되며, 내한천권록(內翰薦圈錄)·내각고(內閣攷)로 구성되었다.

각 인물은 일정한 형식에 의해, 첫째 자·호, 둘째 본관·시호, 셋째 특기 사항(배향어부·공신·국구 등), 넷째 선조 중 유명인, 다섯째 출신·과거, 여섯째 생몰·사마시·대과·주요 관직경력 등이 서술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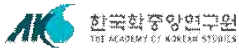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 참고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국학 지식 백과사전이다.



## 별첨 37 증보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

시대	근대
창작/발표시기	1903년부터 1908년 사이
성격	유서(類書)
유형	문헌
권수/책수	250권
간행/발행	박용대, 조정구, 김교헌, 김택영, 장지연 등 33인(찬집), 박제순 등 17인(교정), 한창수 등 9인(감인), 김영한 등 3인(인쇄)
분야	역사/조선시대사

요약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칙명으로 편찬, 간행된 장고(掌故) 집성의 유서(類書).

목차

1. 서지적 사항
1. 편찬/발간 경위
1. 내용

서지적 사항

총 16고(考) 250권. 신활자로 간행되었다.

장고의 유서는 조선 초기·중기까지 『문헌통고(文獻通考)』와 같은 중국측의 것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우리 것의 편찬이 요청되어 1770년(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편찬, 간행되었다.

1769년에 왕명으로 시작된 편찬 사업은 서명응(徐命膺)·채제공(蔡濟恭)·서호수(徐浩修)·신경준(申景濬) 등이 주도해, 반년여 만에 상위(象緯)·여지(輿地)·예(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시적(市糴)·선거(選舉)·재용(財用)·호구(戶口)·학교(學校)·직관(職官) 등 총 13고 100권으로 완성되어, 1770년 8월에 인쇄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체재가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의 소략과 착오 등이 많아,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재 편찬에 들어갔다. 당시 박학강기(博學強記)로 이름난 이만운(李萬運)을 기용해 진행된 사업은 1790년에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증보의 작업이 이어졌다.

증보 사업은 1797년에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명응의 손자이자 호수의 아들인 유구(有榘)도 참여했다. 이후에도 이만운의 아들 유준(儒準)의 보완 작업이 따랐으나, 기본 골격은 앞에서 이미 갖추어진 대로였다.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 또는 『증보동국문헌비고』로 불리는 이 책은 앞의 13고에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諡號)·예문(藝文) 등 7고를 더해 총

20고 146권을 이루었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이다.

1903년 1월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의 건의가 채택되어, 홍문관 안에 찬집소(纂輯所)를 두고 박용대(朴容大)·조정구(趙鼎九)·김교헌(金敎獻)·김택영(金澤榮)·장지연(張志淵) 등 33인이 찬집을, 박제순(朴齊純) 등 17인이 교정을, 한창수(韓昌洙) 등 9인이 감인(監印)을, 김영한(金榮漢) 등 3인이 인쇄를 각각 맡아 5년 만에 완성시켰다.

개찬의 결과 250권으로 양은 늘어났으나, 분류는 줄어들어 상위(12권)·여지(27권)·제계(帝系, 14권)·예(36권)·악(19권)·병(10권)·형(14권)·전부(13권)·재용(7권)·호구(2권)·시적(8권)·교빙(交聘, 13권)·선거(18권)·학교(12권)·직관(28권)·예문(9권) 등의 16고로 되었다.

### 편찬/발간 경위

『문헌비고』의 편찬 목적은 영조 때의 찬진에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실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고 말하고, 광무 연간의 찬진에서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진실로 경국제세의 실용을 위했다.”고 진언하였듯이, 치세(治世)의 실용적인 면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기 이후 실학의 한 면모에 해당되는 것이다.

### 내용

편집 형식은 고별로 역대의 사실을 공사(公私)의 사적(史籍)에서 넓게 뽑아 편년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보(補)’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1790)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다. ‘속(續)’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 이후의 사실 보충에서부터 쓴 것으로서, 광무 연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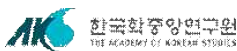
- ·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
- · 『증보문헌비고영인서』(신석호, 동국문화사, 1959)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 창고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국학 지식 백과사전이다.



## 별첨 38 청선고

청선고

清選考

시대	조선
저작자	미상
창작/발표시기	1906년
성격	인명록, 선생안
유형	문헌
권수/책수	15권 15책
분야	종교·철학/유교
소장/전승	장서각 도서, 규장각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요약 조선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동·서 양반의 주요 관직 및 직계별로 4만여 명을 수록한 인명록. 선생안.

목차

1. 서지적 사항
1. 내용
1. 의의와 평가

서지적 사항

15권 15책. 필사본. 『한국고서종합목록』에 의하면, 이 제명(題名)이 붙여진 인명록은 장서각 도서본 15책, 규장각 도서본 9책·14책, 국립중앙도서관본 5책(2종), 연세대학교 도서관본 3책 등이 있으나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장서각 도서본이다. 편자와 편찬 연대는 미상이나, 인명이 수록된 하한 연대로 볼 때 1906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권1에는 대보단(大報壇)·문묘(文廟)·계성사(啓聖祠)·숭절사(崇節祠)·숭의묘(崇義廟), 남·동·북 관제묘(關帝廟), 선무사(宣武祠) 등 각종의 단(壇)·묘(廟)·사(祠)·전(殿), 그리고 고종 당시의 각 도 사액서원 및 휘철서원에 배향된 인물을 모두 기록하였다.

권2에는 대사(臺司)·이상(貳相)·주사유사(籌司有司)·주사부유사(籌司副有司)·주사부제조(籌司副提調)·녹훈(錄勳) 등과 무위도통사·훈련대장·금위대장·어영대장·수어사·통제사 등 각종 서반 관직 및 국구(國舅)·부마(駙馬)의 인명을 왕조별로 수록하였다. 그 가운데 대사, 즉 삼정승에 관해서는 자·호·생년간지·본관·과시년(科試年) 및 종별·전직·현직·시호·부조명(父祖名)·제배년(除拜年)·생몰년 등을 비교적 상세히 수록하였다.

권3에는 육조의 관안(官案)으로 천관(天官)에 이조판서, 아전(亞銓)에 참판, 삼전(三銓)에 참의, 전랑(銓郎)에 정·좌랑을 각각 수록하고, 본병(本兵)에 병조판서, 장부(掌賦)에 호조판서 등을 수록하였다. 수록 범위는 조선 초기에서 고종 때까지의 명안을 왕조별로 열기(列記)하고, 제배년을 간지로 표시하였다.

권4에는 문형(文衡)·제학(提學)·부학(副學)·한림(翰林)·호당(湖堂)·규각(奎閣)·괴원부제조(槐院副提調)·빈객(賓客)·설서(說書) 등의 인명을 수록하였다. 이 가운데 문형은 생몰년·자·호·본관·과시년 및 종

별 등 인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권5에는 반장(伴長)·동성균(同成均)·죄주(祭酒)·사업(司業)·찬선(贊善)·경연관(經筵官)·사(師)·부(傅)·보양관(輔養官)·경연(經筵)·전한(典翰)·도헌(都憲)·간장(諫長)·지신(知申)·주서(注書) 등의 선생안, 권6에는 옥당(玉堂)·동벽(東壁)·남대(南臺)·음정(蔭正)·입학집사(入學執事) 등의 선생안이 있다.

권7에는 기사(耆社)·휴퇴(休退)·치사(致仕)·청백(清白)·사궤장(賜几杖)·문과회방(文科回榜)·연괴(蓮魁)·화사(華槎)·수로조천(水路朝天)·사개(使价)·통신사(通信使) 등의 선생안이 있다. 이 가운데 「화사」에는 중국 사신을 접대한 원접사(遠接使)·종사(從事)·관반(館伴), 그리고 선편(船便)으로 중국에 간 사신인 수로조천, 중국에 간 정사·부사·서장관, 일본에 간 통신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

권8에는 번진(藩鎭)으로 팔도 관찰사의 선생안, 유후(留後)로 강화·광주·화성·송도 등의 사류선생안(四留先生案), 권9에는 시법(諡法) 및 증시(贈諡), 권10~12에는 동반(東班)으로 문과에 통과한 당상관 이상의 직계별 선생안이 있다. 권13에는 동반 음직(蔭職)의 당상관 이상 직계별 선생안과 서반으로 무과에 통과한 종2품 이상의 직계별 선생안, 권14·15에는 갑오경장 이후 신관제에 따른 동·서양반의 주요 관직별 선생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의의와 평가

이 책의 수록 범위는 『조두록(俎豆錄)』을 비롯해 조선조 500년에 걸친 동·서 양반의 주요 관직 및 직계별 선생안으로 약 4만 명을 포괄하고 있다. 현존하는 다른 어떤 인명사서(人名辭書)도 이를 따를 수 없다. 특히, 한말의 인명록이 전무한 실정에서 이 방면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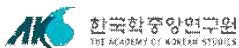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체항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 창고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국학 지식 백과사전이다.



## 별첨 39 전고대방

전고대방

典故大方

시대	근대
저작자	강효석
창작/발표시기	1924년
성격	전기
유형	문헌
권수/책수	4권 1책
분야	종교·철학/유교

요약 일제강점기 학자 강효석이 우리나라 역대 인물에 대한 전거를 밝혀 1924년에 간행한 전기.

### 내용

4권 1책. 활자본. 1924년에 간행되었다. 권두에 윤희구(尹喜求)의 서와 권말에 편자와 고응한(高應漢)의 발이 있다.

권1은 역대편(歷代篇)·전궁원묘(殿宮園墓)·만성시조편(萬姓始祖篇), 권2는 상신(相臣)·문형(文衡)·호당(湖堂)·청백리(清白吏)·공신(功臣)·명장(名將)·등단(登壇)·문무제곤록(文武制閫錄)으로 이뤄졌다.

권3은 경연관초선록(經筵官抄選錄)·유현연원도(儒賢淵源圖)·문인록(門人錄)·문장가(文章家)·서화가(書畫家), 권4는 종묘배향록(宗廟配享錄)·문묘배향록(文廟配享錄)·서원향사록(書院享祀錄)·두문동칠십이인(杜門洞七十二人)·사색당파원인약설(四色黨派原因略說)·북관칠의사(北關七義士)·십이사화록(十二士禍錄)·임진란순절제인(壬辰亂殉節諸人)·기의승병장(起義僧兵將)·의기(義妓)·의병장(義兵將)·순절신(殉節臣)·척화신(斥和臣)·강도순절부녀(江都殉節婦女)·배종팔장사(陪從八壯士)·임오우해인(壬午遇害人)·갑신피화육대신(甲申被禍六大臣)·동원록(東援錄)·통신사(通信使)·외국인내공(外國人來貢)·외국인내사(外國人來仕)·명인귀화(明人歸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내용 자체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신라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건별로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을 들고 소전(小傳)을 붙이고, 또한 요점만 들어 알기 쉽게 편찬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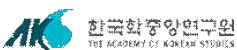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 창고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국학 지식 백과사전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별첨 40 고대관직 및 설명

관직명	해설
가감역관(假監役官)	조선시대 때 토목(土木), 영선(營繕)을 담당하던 종9품의 임시관직
가덕대부(嘉德大夫)	조선시대 때 종 1품의 종친에게 주던 관계(官階).
가선대부(嘉善大夫)	조선시대 때 관계(官階). 종 2품으로 문 무반, 종친이 받음.
가의대부(嘉義大夫)	조선시대 때 관계(官階). 종 2품으로 처음에는 가정대부(嘉靖大夫)라 하였다
각간(角干)	신라의 최고 관급(官級). 상대등(上大等)과 같이 17개 관등과는 별개의 관급.
감관(監官)	조선시대 때 관아(官衙), 궁방(宮房)에서 금전의 출납 맡아보던 관리.
감군(監軍)	조선의 군직(軍職)으로 군인들의 순찰을 감시하던 임시 벼슬
감독관(監牧官)	조선의 외관직(外官職), 지방의 목장(牧場)일을 맡아 보았다.
감무(監務)	고려 때 현령을 둘 수 없는 작은 현(縣)의 감독관.
감사(監史)	고려 때 소부시(小府寺), 군기시(軍器寺)의 관원.
감사(監事)	조선위 춘추관에 두었던 정 1품의 관직.
감사(監司)	관찰사(觀察使)의 별칭으로 각 도(道)의 우두머리로 종 2품의 관직.
감서(監書)	조선의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관직.
감수국사(監修國史)	고려 때 춘추관(春秋官)의 최고 관직으로 시중(侍中:종 1품)이 겸임
감역관(監役官)	조선 때 종 9품의 벼슬로 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감진어사(監賑御使)	조선 때 지방에 파견된 어사.
감찰(監察)	조선 때 사헌부의 정 6품의 벼슬.
감창사(監倉使)	고려 때 창고를 감찰하던 관리.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춘추관 감사, 조선 때 춘추관의 정 1품 관직.
건공장군(建功將軍)	조선의 종 3품 무관에게 주는 품계.
건신대위(建信隊尉)	조선 때 무관에게 주는 정 6품의 품계.
건충대위(建忠隊尉)	조선의 정 5품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검관(檢官)	조선의 형조 소속으로 시체를 검사하는 관리.
검교사(檢校使)	신라 때 중앙관부의 장관(長官) 인 영(令)
검독(檢督)	조선의 지방관직으로 지금의 읍, 면장에 해당하는 관직.
검률(檢律)	조선 때 형조에 소속된 종 9품의 벼슬.
검열(檢閱)	고려 때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의 정 8품에서 정 9품의 벼슬. 조선 때 예문관의 정 9품의 벼슬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맡았다.
겸교리(兼校理)	조선 때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된 종 5품의 관직.
겸교수(兼教授)	조선 때 종 6품의 벼슬.
겸도사(兼都事)	조선 때 충훈부(忠勳府)에 속한 종 5품의 관직.
겸보덕(兼輔德)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 3품의 관직.
겸사복장(兼司僕將)	조선 무관의 관직으로 종 2품 으로 뒤에 정 3품이 되었다.
겸필선(兼弼善)	조선 초기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를 교육을 담당한 정 4품의 벼슬.
경력(經歷)	고려 때 4-5품의 관리. 조선 때 종 4품의 관리.
경사교수(經史教授)	고려 때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에 속했던 관직.
경학박사(經學博士)	고려 때 지방관민의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해 둔 교수직.
계사(計士)	조선 때 호조에 속한 종 8품의 관직, 처음에는 산원(算員)이라 하였다.
계사랑(啓仕郎)	조선 때 동반(東班:무관)의 관계(官階)로 정 9품의 벼슬.
계의관(計議官)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 소속의 정 7품 관직.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고려 때 정 3품 무산계(武散階).
관찰사(觀察使)	조선 때 지방장관으로 지금의 광역시장, 도지사과 같다.
광덕대부(光德大夫)	조선의 품계로 의빈부(儀賓府)에 속했던 1품 관계(官階)
광성대부(光成大夫)	조선 때 정 4품의 관계(官階).
교감(校勘)	고려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종 9품의 관직. 조선때 승문원(承文院)의 종 4 품의 관리.
교검(校檢)	조선 때 승문원(承文院)의 정 6품의 관리.
교리(校理)	조선의 관직으로 홍문관(弘文館)과 승문원(承文院)의 종 5품의 벼슬.
교서랑(校書郎)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정 9품의 관리.

교수(教授)	조선 때 부(府)와 목(牧)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는 종 6품의 관리.
국별장(局別將)	조선 때 훈련도감에 소속된 정 3품의 무관직.
군수(郡守)	조선 때 각 군(郡)의 우두머리로 종 4품의 지방관직.
권독(勸讀)	조선 때 세손(世孫)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종 5품의 벼슬.
근절랑(謹節郎)	조선 때 동반종친(東班宗親)의 품계로 종 5품의 관리.
금위대장(禁衛大將)	조선 때 금위영(禁衛營)의 주장(主將)으로 종 2품 무신관직.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고려 문산계(文散階)의 하나로 종 2품 관리.
금자숭록대부(金紫崇大祿夫)	고려 문산계(文散階)의 하나로 종 1품의 품계.
금자흥록대부(金紫興大祿夫)	고려 문산계(文散階)의 하나로 종 1품의 품계.
급사중(給事中)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된 종 4품의 벼슬.
기거랑(起居郎)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관직으로 종 5품의 벼슬.
기거사인(起居舍人)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관직으로 종 5품, 후에 정 5품이 되었다.
기거주(起居注)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관직으로 종 5품, 후에 정 5품이 되었다.
낭관(郎官)	조선의 6품관(六品官).
낭사(郎舍)	고려 문하성(門下省)에 소속된 간관(諫官)의 총칭.
낭장(郎將)	고려 때 정 6품의 무관직.
낭중(郎中)	신라 때 관직으로 사지(舍知:13등급)에서 내마(奈麻:11등급)까지 역임. 고려 때 6부(六部)에 소속된 정 5품의 벼슬.
낭청(郎廳)	조선 때 비변사(備邊司)에 속한 종 6품의 관직.
내급사(內給事)	고려 때 전중성(殿中省)에 소속된 종 6품의 벼슬.
내사사인(內史舍人)	고려 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에 소속된 종 4품의 벼슬.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 2품 벼슬.
내시(內侍)	고려 때 재주와 용모가 뛰어난 세족자제(世族子弟)들을 임용하여 숙위(宿衛) 및 근시(近侍)의 일을 맡던 관원. 조선 때 환관의 별칭.
내신좌평(內臣佐平)	백제의 1품 관직. 시중(侍中)과 같은 수상(首相)과 같다.
내직랑(內直郎)	고려 때 동궁(東宮:세자의 거처)에 소속된 종 6품의 벼슬.
영원장군(寧遠將軍)	고려 때 정 5품의 무산계(武散階:무신의 품계).
녹사(錄事)	고려 때 정 5품의 무관 벼슬. 조선 때 각 관아에 속한 하급이속(吏屬).
대사간(大司諫)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충간(忠諫)하는 일을 하는 정 3품의 벼슬.
대사성(大司成)	조선 때 성균관의 최고직, 유학(儒學)에 관한 일을 맡아하던 정 3품의 관리.
대사헌(大司憲)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의 수장으로 정 2품 관리.
대장(大將)	조선 때 정 2품의 무관직, 호위청(扈衛廳)에는 정 1품의 관리를 임명하였다.
대장(臺長)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정 4품)과 지평(持平:정 5품)을 가르키는 말.
대장군(大將軍)	신라 무관직의 으뜸. 고려 때 종 3품의 무관직.
대정(隊正)	고려 때 무관의 벼슬, 최하위 군관으로 종 9품의 벼슬.
대제학(大提學)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에 소속된 정 2품의 관직.
대호군(大護軍)	고려 무관직으로 종 3품. 조선의 무관직이며 종 3품의 벼슬.
도사(都事)	고려 때 종 7품의 관직, 조선 때 관리의 감찰을 담당하던 종 5품 관리.
도선(導善)	조선 때 종학(宗學)에 소속된 정 4품의 벼슬.
도순문사(都巡問使)	고려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주(州), 부(府)의 장관을 겸했다.
도순찰사(都巡察使)	조선의 군관직. 정 2품, 종 2품의 관찰사가 겸임한 임시직.
도승지(都承旨)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 3품의 관리.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도원수(都元帥)	고려, 조선 때 전시에 군대를 통괄하던 임시 무관직.
도정(都正)	조선의 관직, 종친부(宗親府), 둔령부(敦寧府)에서 종친 사무를 담당하던 정 3품의 벼슬.
도제조(都提調)	조선 때 각 관청의 정 1품의 벼슬.
도청(都廳)	조선 때 준천사(瀆川司)에 속한 정 3품의 당상관(堂上官)

도체찰사(都體察使)	조선 때 관직, 전시에 의정(議政)이 겸임하는 최고 군직.
도총관(都總管)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摠總府)의 우두머리로 정 2품의 관리.
돈신대부(敦信大夫)	조선 때 종 3품의 품계를 가진 문관 벼슬로 의빈(儀賓)에게 내린 벼슬.
돈용교위(敦勇敎尉)	조선 때 무관의 관계(官階)로 정 6품의 벼슬.
돈의도위(敦義徒尉)	조선 때 무관의 토관계(土官階)로 정 7품의 벼슬.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 3품의 벼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소속된 종 2품의 벼슬.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조선 때 돈녕부(敦寧府)에 속한 종 2품의 벼슬.
동지사(同知事)	조선 때 종 2품의 관직으로 이들의 직함은 소속 관청명 위에 동지(同知)를 쓰고 관청 밑에 사(事)를 사용 하였다.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	조선 때 삼군부에 소속된 종 2품의 벼슬, 대장(大將)이 겸한다.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조선 때 성균관에 속한 종 2품의 벼슬.
동지원사(同知院事)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에 속한 종 2품의 벼슬.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조선 때 의금부에 소속된 종 2품의 벼슬.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조선 때 춘추관에 소속된 종 2품의 벼슬.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조선 때 절도사(節度使)에 소속된 종 4품의 무관직.
만호(萬戶)	고려, 이조 때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정 4품의 무관직.
명덕대부(明德大夫)	조선 때의 관계(官階)로 승덕대부(崇德大夫)를 개칭한 것 임.
명선대부(明善大夫)	조선 초기 중친들에게 하사하던 관계(官階)로 정 3품의 당상관(堂上官).
명신대부(明信大夫)	조선 초기에 의빈(儀賓)에게 주던 종 3품의 관계(官階).
목 사(牧 使)	조선 때 각 목(牧)의 으뜸 벼슬로 정 3품의 관직.
명위장군(明威將軍)	고려 때 종 4품의 무산계(武散階).
무공랑(務功郎)	조선 때 정 7품의 문반 관계로 종친 및 의빈에게 내린 벼슬.
문사(文師)	고려 때 유수관(留守官)이나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소속된 9품의 관직.
문하녹사(門下錄事)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에 소속된 정 7품의 관직.
문하사인(門下舍人)	고려 때 문하부(門下部)에 소속된 정 4품의 관직.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고려 때 문하부에 소속된 정 2품의 관직.
문하시중(門下侍中)	고려 때 문하성에 소속된 종 1품의 관직.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	고려 때 문하부의 관직으로 문하시중을 고쳐 부르는 말.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고려 때 문하부의 관직으로 문하시중을 고쳐 부르는 말.
문하주서(門下注書)	고려 때 문하부의 종 7품의 관직으로 첨의주서(僉議注書)라고도 한다.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고려 때 문하부의 정 2품의 벼슬로 찬성사(贊成事)라고도 한다.
문하평리(門下評理)	고려 때 문하부 소속으로 종 2품의 관직.
밀직판원사(密直判院使)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종 2품의 관직.
밀직원사(密織院事)	밀직지원사(密織知院事), 밀직사의 종 2품의 관직.
밀직부사(密直府事)	밀직사의 소속으로 정 3품의 관직.
방어사(防禦使)	조선 때 지방 관직으로 각 도(道)의 요지를 방어하는 병권(兵權)을 가진 종 2품의 벼슬.
백호(百戶)	고려, 조선 때 5, 6품의 무관직으로 청백하고 무술이 능한 관원.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고려 정 1품의 품계(品階). 벽상공신(壁上功臣)의 무관.
별장(別將)	고려 때 정 7품의 무관직. 조선 때 각 영에 소속된 종 2품의 무관직.
별제(別提)	조선 때 6품의 관리로 6조(曹)에 속해 있었다.
별좌(別坐)	조선 때 정 5품 또는 종 5품의 관리.
별효장(別驍將)	조선 때 수원(水原) 총리영(總理營) 소속의 정 3품의 군인.
별후부천총(別後部千總)	조선 때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된 정 3품의 군인.
병마사(兵馬使)	고려 때 동, 북 양계(兩界)의 군권을 지휘하는 정 3품의 벼슬.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조선 때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 2품의 무관직.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선 때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중 2품의 무관직.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조선 때 각 고을 수령이 겸직하는 군사직.
병부상서(兵部尙書)	고려 때 병부(兵部)의 장관. 지금의 국방부 장관과 같다.
병절교위(秉節校尉)	조선 때 중 6품에 속하는 무관의 관계(官階).
병조판서(兵曹判書)	조선 때 병조(兵曹)의 우두머리로 지금의 국방부장관과 같다.
병직랑(秉直郎)	조선 때 종친(宗親)에 주던 정 5품의 동반관계(東班官階).
보공장군(保功將軍)	조선 때 무관의 관계(官階)로 중 3품의 벼슬.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고려 때 정 2품의 무산계(武散階).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조선의 정 1품의 품계.
보 덕(輔 德)	조선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를 가르치던 중 3품의 벼슬.
보신대부(保信大夫)	조선 초기에 종친에게 주던 중 3품의 관계(官階).
봉렬대부(奉烈大夫)	조선 때 정 4품의 관계(官階).
봉사(奉事)	조선의 중 8품 관직.
봉상대부(奉常大夫)	고려 때 정 4품의 문산계(文散階).
봉상시정(奉常寺正)	조선 때 봉상시 소속의 정 3품 관원.
봉선대부(奉善大夫)	조선의 정 4품의 문산계(文散階)
봉성대부(奉成大夫)	조선의 중 4품의 관계로 종친에게만 하사하였다.
봉순대부(奉順大夫)	고려, 조선 때 정 3품의 문관 품계(品階).
봉어(奉御)	고려 때 각 관청 소속의 정 6품의 관직.
봉의랑(奉議郎)	조선 때 중 5품의 문관 관계(官階)
봉익대부(奉翊大夫)	고려 때 중 2품의 문산계(文散階). 영록대부(榮祿大夫).
봉정대부(奉正大夫)	조선 때 중 4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봉직랑(奉直郎)	조선 때 중 5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봉헌대부(奉憲大夫)	조선 때 정 2품으로 의빈(儀賓)에게 준 품계(品階).
부신금(副愼禽)	조선 때 정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중 8품의 잡직.
부신수(副愼獸)	조선 때 궁중의 정원을 관리하던 중 9품의 잡직.
부위(副尉)	조선 때 의빈부(儀賓府)에 속한 정 3품의 관직이며 조선말의 무관.
부윤(府尹)	조선 때 정 2품의 지방 관직으로 부(府)의 우두머리.
부응교(副應敎)	조선 때 흥문관에서 경서와 사적(史籍)을 관리하던 중 4품의 관직.
부장(部將)	조선 때 무관직으로 오위에 속한 중 6품의 벼슬.
부장(副將)	조선 말의 무관으로 정 2품이며 상장(上將) 밑의 관직.
부전수(副典需)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중 6품의 관직.
부전악(副典樂)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일을 한 중 6품의 관직.
부전율(副典律)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일을 한 중 7품의 관직.
부전음(副典音)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일을 한 중 8품의 관직.
부정(副正)	고려 때 각 관청 소속의 중 4품 관직. 조선 때 각관청의 중 3품 관직.
부정자(副正字)	고려와 조선 때 도서관(校書館)과 승문원(承文院)의 중 9품의 벼슬.
부제조(副提調)	조선 때 각 기관에 소속된 정 3품의 관직.
부제학(副提學)	조선 때 흥문관(弘文館)의 정 3품의 관직. 제학(提學)의 다음 벼슬.
부사(府使)	고려, 조선 때 지방 관직으로 각 부의 수령을 말한다.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 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중 3품)를 칭함.
부사(副使)	고려 때 사(使)의 다음가는 관직으로 5-6품을 가르킨다.
부사과(副司果)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중 6품의 벼슬.
부사맹(副司猛)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중 8품의 벼슬.
부사소(副司掃)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중 9품의 잡직(雜職).
부사안(副司案)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중 7품의 잡직(雜職).
부사약(副司)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중 6품의 잡직(雜職).
부사용(副司勇)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중 9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정(副司正)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중 7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직(副司直)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중 5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포(副司)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정 8품의 잡직(雜職).
부수(副守)	조선의 종친부(宗親府)에서 종실과 종친에 관한 일을 보던 중 4품의 관직.
부수찬(副修撰)	조선의 흥문관(弘文館)에서 내외(內外)의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에 관한

	일을 맡아본 중 6품의 벼슬.
부승지(副承旨)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 소속의 중 6품, 밀직사로 고친후 정 3품이 됨.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 3품 관직,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차장급.
부직장(副直長)	고려 때 정 8품 관직. 조선 때 상서원(尙瑞院) 소속의 정 8품 관직.
부창정(副倉正)	고려 때 각 군현(軍縣)에 소속된 지방 관직.
부첨사(副詹事)	조선 말의 관직으로 왕태자궁의 주임관(奏任官) 벼슬.
부총관(副總管)	조선 때 5위도총부(五衛都總府)에 속한 정 2품의 무관직.
부총제사(副總制使)	고려 말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에 속한 정 2품의 무관직.
부호군(副護軍)	조선의 5위(五衛)에 속했던 중 4품의 무관.
부호장(副護長)	고려 때 호장(戶長) 아래 관직이며 대등(大等)을 바꾸어서 부르는 말.
분순부위(奮順副尉)	조선 때 무관의 관계(官階)로 중 7품.
비서감(秘書監)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 소속의 중 3품 관직.
비서관(秘書官)	관청의 장관(長官)에 직속되어 기밀사무를 맡아보는 관리.
비서랑(秘書郎)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소속된 중 6품의 관직.
비서승(秘書丞)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소속된 중 6품의 관직.
빈객(賓客)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에게 경서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던 정 2품의 관직.
사(師)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에게 경서와 사기(史記)를 가르치던 정 1품관으로 영의정을 겸임하였다.
사간(司諫)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 소속으로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논박(論駁)하는 일을 한 중 3품의 관직.
사경(司經)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정 7품의 벼슬.
사과(司果)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에 속한 정 6품의 무관직.
사공(司空)	고려 때 삼공(三空)의 하나로 정 1품의 벼슬.
사도(司徒)	고려 때 삼공(三空)의 하나로 정 1품의 벼슬.
사맹(司猛)	조선 때 오위(五衛)에 속한 정 8품의 벼슬.
사사(司事)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중 2품 벼슬.
사서(司書)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정 6품의 관직.
사성(司成)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중 3품의 관리.
사알(司謁)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되어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던 정 6품의 관직.
사업(司業)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정 4품의 관리.
사에(司藝)	조선 때 성균관 소속의 정 4품의 벼슬.
사용(司勇)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에 속한 정 9품의 무관직.
사의(司議)	조선 때 장예원(掌隸院)에서 노예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정 5품의 벼슬.
사의대부(司議大夫)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 4품의 관직.
사인(舍人)	신라 때 사지(舍知:13등급)에서 대사(大舍:12등급)를 총칭하는말.
사재(舍宰)	조선의 관직으로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정 2품)을 말한다.
사자(司者)	부여와 고구려의 관직으로 정 3품에서 정 5품까지 다양했다.
사정(司正)	조선의 오위(五衛)에 속한 정 7품의 관직.
사지(司紙)	조선 때 조지서(造紙署)에서 종이 제조에 관한일을 맡은 중 6품의 벼슬.
사직(司直)	조선의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에 속한 정 5품의 부관직.
사평(司評)	조선 때 장예원(掌隸院)에 소속된 정 6품의 관직.
사포(司圃)	조선 때 사포서(司圃署)의 정 6품으로 궁중의 채소, 원예를 관리함.
사포(司鋪)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의 소속으로 정 8품의 관직.
산사(算士)	조선 때 호조(戶曹), 산학청(算學廳)의 소속으로 중 7품 관이며, 지금의 계리사.
산원(散員)	고려와 조선 초기의 군관 의 계급으로 정 8품의 관직.
산학교수(算學教授)	조선 때 호조(戶曹)에 소속되어 회계(會計)를 담당한 중 6품의 벼슬.
산학박사(算學博士)	신라 때 산술(算術)을 가르치던 교수이며, 고려 때 중 9품으로 국자감(國子監)에서 산술을 가르치던 교수이다.
삼공(三公)	고려 때 사마(司馬). 사도(司徒). 사공(司空)의 총칭으로 정 1품. 조선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총칭으로 정 1품의 벼슬.
삼도수군통제사	조선 때 해군 총사령관.

(三道水軍統制使)	
삼도육군통어사 (三道陸軍統禦使)	조선 말기의 무관직으로 육군의 총수.
삼사(三師)	고려의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를 말하며 임금의 고문 또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으로 정 1품의 벼슬이다.
삼사사(三司使)	고려 때 삼사(三司)에 속한 정 3품의 벼슬.
상경(上卿)	정 1품과 중 1품의 판서(判書)를 가르키는 말.
상경(尙更)	조선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임금의 시중을 들던 정 9품의 벼슬.
상다(尙茶)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 3품으로 임금의 시중을 들었다.
상당(上堂)	신라 때 내마(奈麻:11등급)에서 아찬(16등급)에 해당하는 벼슬.
상대등(上大等)	신라 때 최고관직으로 모든 정사를 총괄했다.
상례(相禮)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된 중 3품의 관리.
상만호(上萬戶)	고려 때 군직으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다음의 벼슬이다.
상문(尙門)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중 8품의 벼슬.
상서(尙書)	고려 때 6부에 두었던 정 3품의 관직으로 판서, 전서 등으로 변경 되었다.
상서령(尙書令)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의 우두머리로 중 1품의 벼슬.
상서좌우승(尙書左右丞)	고려 때 중 3품의 관직으로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속한 벼슬.
상선(尙膳)	조선의 內侍府)에 소속된 중 2품의 벼슬로 궁중식사를 담당한 벼슬.
상세(尙洗)	조선의 內侍府)에 소속된 중 2품의 벼슬로 주방일을 담당하였다.
상시(常侍)	고려 때 좌산기상시(左散驥常侍). 우산기강시(右散驥常侍)를 통틀어 산기상시(散驥常侍)라하고 약칭 상시라 하였다.
상약(尙藥)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중 3품의 관직이며, 궁중의 약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상원수(上元帥)	조선 때 무관직으로 출정하는 군대의 총수.
상위사자(上位使者)	고구려의 관직으로 정 6품의 관직이다.
상장군(上將軍)	신라 때 대장군(大將軍) 밑의 무관직.
상좌평(上佐平)	백제의 16관 등급중 좌평의 우두머리.
상주국(上柱國)	고려 때 정 2품의 훈계(勳階).
상호(尙弧)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 5품의 벼슬.
상호군(上護軍)	고려의 무관직. 조선 때 5위에 속한 정 3품의 무관직.
서윤(庶尹)	조선 때 한성부(漢城府). 평양부(平壤府) 소속의 중 4품의 벼슬.
서장관(書壯官)	조선 때 관직으로 연행사(燕行使)의 일행인 기록관.
서학박사(書學博士)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서 글씨를 가르치던 중 9품의 벼슬.
선략장군(宣略將軍)	조선 때 중 4품의 무관계로 경력, 첨정(僉正). 부호군 등이 되었다.
선무사(宣撫使)	조선 때 재해나 병란이 발생시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
선부(膳夫)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중 7품의 벼슬.
선용부위(宣勇副尉)	조선 때 중 7품의 무관직.
선위사(宣慰使)	조선 때 사신을 영접하던 임시직. 3품이상의 당상관이 임명.
선위장군(宣尉將軍)	고려 때 중 4품 무관의 관계(官階).
선의랑(宣議郎)	고려 때 중 7품 문관의 관계(官階).
선전관(宣傳官)	조선 때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정 3품에서 중 9품의 관리.
선절교위(宣折校尉)	고려 때 정 8품의 무산계(武散階).
선절부위(宣折副尉)	고려 때 정 8품의 무산계(武散階).
선직랑(宣職郎)	조선 때 동반(東班)의 정 6품의 토관직(土官職).
선화(宣畫)	조선 때 도화서(圖畫署)에 소속되어 그림을 담당하던 중 6품의 관직.
선회(善繪)	조선 때 도화서(圖畫署)에 소속되어 그림을 담당하던 중 7품의 관직.
선휘대부(宣徽大夫)	조선 때 종친과 문관에게 주던 정 4품의 관계(官階)
설경(說經)	조선 때 경연(經筵)에 속했던 정 8품의 벼슬.
성록대부(成祿大夫)	조선 때 의빈(儀賓)에게 내리던 정 1품의 관계(官階).
세마(洗馬)	고려 때 동궁(東宮)에 속한 중 5품의 관직이며, 조선 때 정 9품의 관직.
세자부(世子傅)	고려 때 세자의 스승.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 속한 정 1품의 벼슬.
세자사(世子師)	고려 때 세자의 스승.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 속한 정 1품의 벼슬.
소감(少監)	신라 때 무관직. 고려 때 4~5품의 관직. 조선 때 중 4품의 벼슬.
소경(少卿)	고려 때 중 4품의 벼슬. 조선 때 4품의 벼슬.

소덕대부(昭德大夫)	조선 때 종친과 문관에 주던 중 1품의 관계(官階).
소윤(少尹)	신라 때 지방관직. 고려 때 중 4품의 벼슬. 조선 때 한성부(漢城府). 개성부(開城府) 소속의 정 4품의 관직.
소의대부(昭儀大夫)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중 2품의 벼슬.
소첨사(小詹事)	고려 때 첨사부(詹事府)의 중 3품의 벼슬.
수국사(修國史)	고려 때 감수국사(監修國史) 다음으로 2품이상인 겸임하는 사관이다.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조선 때 수군을 통솔한 중 2품의 무관직.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조선 때 수군을 통제하기 위해 둔 정 3품의 무관직.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조선 때 진(鎭)의 수군을 지휘한 중 3품의 무관직.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대신(大臣).
수어사(守御使)	조선의 수어청(守禦廳)의 장관. 광주유수(廣州留守)가 겸임한 정 2품의 벼슬.
수의도위(守義徒尉)	조선 때 중 7품으로 토관계(土官階)로 문관직.
수의부위(守義副尉)	조선 때 중 8품의 무관에게 준 관계(官階).
수임교위(修任校尉)	조선 때 문반의 정 6품에 속하는 잡직계(雜職階).
수직랑(修職郎)	고려 때 7품의 문산계(文散階).
수찬(修撰)	고려 때 예문관(藝文館)에 속한 사관(史官)으로 정 2품의 관직이었으나 후에 정 8품이 되었다.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의 정 6품.
수찬관(修撰官)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 소속의 3품 이하가 겸직한 사관(史官). 조선 때 춘추관(春秋館)의 정 3품의 관직으로 부제학(副提學)을 겸함.
순무사(巡撫使)	고려 때 안무사(按撫使)를 개칭한 것으로 지방관을 감찰하는 관직.
순위관(巡衛官)	고려 때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에 소속된 참상관 밑의 벼슬.
숭덕대부(崇德大夫)	조선 때 의빈(儀賓)에게 주던 중 1품의 관계(官階).
숭록대부(崇祿大夫)	고려와 조선 때 중 1품의 문산계(文散階).
숭정대부(崇政大夫)	조선 때 문관(文官)에게 주던 중 1품의 관계(官階).
숭헌대부(崇憲大夫)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 2품의 관계(官階). 후에 문관에게도 주었다.
승(丞)	고려와 조선 때 각 관청에 소속된 정 5품~정9품의 관원.
승무랑(承務郎)	조선 때 중 7품의 잡직관계(雜職官階).
승봉랑(承奉郎)	고려 때 중 8품의 문산계(文散階).
승사랑(承仕郎)	조선 때 중 8품의 문산계(文散階).
승선(承宣)	고려 때 왕명의 출납을 맡아본 정 3품의 관직이며 승지(承旨)의 다른말.
승의랑(承議郎)	조선 때 정 6품의 문산계(文散階).
승의부위(承義副尉)	조선 때 정 8품의 무관의 관계(官階).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조선의 선전관청에 소속돼 왕의 명령을 전달하던 무관.
승지(承旨)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이다.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로 정 3품.
승훈랑(承訓郎)	조선 때 정 6품의 관직으로 종친과 의빈(儀賓)에게 주던 관계(官階).
시강관(侍講官)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 4품.
시독관(試讀官)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 5품.
시독사(侍讀事)	고려 때 동궁(東宮:세자궁)에 소속된 관직.
시랑(侍郎)	신라 때 각 부의 차관(次官)이며 내마(柰麻:11등급)에서 아찬(6등급)까지 해당 하는 벼슬. 고려 때 각 부의 정 4품 관리.
시사랑(試仕郎)	조선 때 중 7품으로 동반(東班:문관)의 토관직(土官職).
시중(侍中)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의 최고 벼슬로 대아찬(5등급)에서 이찬(2등급)까지이며, 고려 때는 수상(首相)으로 중 1품
신과(愼果)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중 7품의 벼슬.
안렴사(按廉使)	고려 때 집야장관으로 절도사. 안찰사라고도 한다. 지금의 광역시장. 도지사.
안무사(按撫使)	고려. 조선 때 지방에 파견되어 수령을 감찰하는 임시 외관직.
약장랑(藥臚郎)	고려 때 동궁(東宮:세자가 기거하는곳)에 속한 정 6품의 관직.
어모교위(禦侮校尉)	고려 때 중 8품의 위에 있는 무관품계(武官品階).
어모장군(禦侮將軍)	조선 때 정 3품의 무관(武官) 품계(品階).
어사(御使)	고려 때 각 조(曹)의 장관 또는 수서원(修書院)의 장(長).

어사대부(御使大夫)	고려 때 정 3품으로 어사대(御史臺)의 장관. 조선 때 대사헌에 해당함.
어사잡단(御使雜端)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에 속한 중 5품의 벼슬.
어사중승(御使中丞)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에 속한 중 4품의 벼슬.
어영대장(御營大將)	고려 때 어영청(御營廳)의 으뜸가는 벼슬로 중 2품의 무관직.
어영장군(御營將軍)	고려 때 어영청(御營廳)의 당관(將官)으로 중 4품의 무관직.
역학(譯學)	조선 때 중 9품으로 번역, 통역을 맡은 관리.
영문사(廉問使)	고려 때 지방관리의 재판행정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한 2품 관직.
영(令)	신라의 각 부의 장관. 고려 때 3품~9품 관직. 조선 때 중 5품 관직.
영도첨의(領都僉議)	고려 때 수상(首相)급의 관직. 영도첨의부사의 약칭.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조선 때 영돈령. 돈령부(敦寧府)의 장으로 정 1품의 관직.
영록대부(榮祿大夫)	고려 때 중 2품의 문산계(文散階).
영사(領事)	고려 때 삼사(三司), 춘추관(春秋館)의 장(長), 조선 때 홍문관, 예문관, 경연청, 춘추관, 관상감, 돈령부의 장(長).
영사복시사(領司僕侍事)	고려 때 중 2품의 벼슬로 복시사(僕侍事)의 으뜸 벼슬.
영선공사사(領繕工寺事)	고려 때 선공사(繕工司)의 장(長)으로 중 2품의 관직.
영의정(領議政)	조선 때 최고의 중앙관청인 의정부(議政府)의 최고관직으로 정 1품이며,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였다.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고려와 조선 때 춘추관의 으뜸벼슬로 영의정이 겸했다
영홍문관사(領弘文館事)	조선 때 홍문관의 으뜸벼슬로 정 1품의 관직.
예의판서(禮儀判書)	고려 때 예의사(禮儀司)의 으뜸벼슬로 정 3품의 벼슬.
오위장(五衛將)	조선 때 오위(五衛)의 으뜸가는 중 2품 벼슬. 후에 정 3품.
요무교위(耀武校尉) 요무부위(耀武副尉) 요무장군(耀武將軍)	고려 때 정 6품의 무산계(武散階).
우대언(右代言)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정 3품 관직.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 3품 벼슬.
우보궐(右補闕)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정 6품 벼슬.
우복야(右僕射)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소속되어 상서열(尙書令) 다음가는 정 2품의 관직.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소속된 중 2품의 벼슬.
우부대언(右副大言)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조선 때 승정원에 소속된 정 3품.
우부빈객(右副賓客)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중 2품의 벼슬.
우부수(右副守)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 7품의 무관직.
우부승선(右副承宣)	고려 때 중추원의 소속으로 정 3품이었다가 후에 중 6품으로 되었다. 조선 때 승선원 소속의 관직.
우부승지(右副承旨)	조선 초기 중추원의 정 3품 벼슬이며, 후에 승정원의 정 3품.
우부승직(右副承直)	고려 때 내시부에 속한 중 6품의 관직.
우빈객(右賓客)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 속한 정 2품의 관직.
우사(右使)	고려 조선 때 삼사에 속한 정 2품의 벼슬. 우복야를 고친 이름
우사간(右司諫)	고려 때 중서문하성에 소속되어 간쟁을 맡아본 정 6품의 벼슬이었으나, 뒤에 우헌납으로 고치면서 정 5품으로 하였다가 다시 중 5품으로 바꾸었 다.
우사낭중(右司郎中)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소속된 정 5품의 벼슬.
우사어(右司禦)	조선 때 세자익위사 소속의 중 5품의 무관.
우사원외랑(右司員外郎)	고려 때 상서도성에 소속된 정 6품의 벼슬.
우상시(右常侍)	고려 때 중서문하성 소속의 정 3품의 벼슬.
우승(右丞)	고려 때 상서도성의 중 3품의 벼슬. 조선 초 삼사의 정 3품의 벼슬.
우승직(右承直)	고려 때 내시부에 속한 중 5품의 벼슬.
우시금(右侍禁)	고려 때 액정국 소속의 정 8품의 벼슬.
우시직(右侍直)	조선 때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정 8품의 관직.
우윤(右尹)	조선 때 한성부(서울시청)에 소속된 중 2품의 관직.
우의정(右議政)	조선 때 최고행정 기관인 의정부에 소속된 정 1품의 벼슬로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괄하며 여러 관직을 겸함
우익위(右翊衛)	조선 때 세자익위사 소속의 정 5품의 무관 벼슬.
우익찬(右翊贊)	조선 때 세자익위사 소속의 정 6품의 무관 벼슬.

우찬성(右贊成)	조선 때 의정부에 속한 벼슬로 삼의정(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다음가는 벼슬로 종 1품의 벼슬.
우참찬(右參贊)	조선 때 의정부 소속의 정 2품의 관직.
우첨사(右詹事)	고려 때 왕비부(王妃府)에 예속된 관직.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고려 때 정 3품의 무산계(武散階).
원보(元輔)	영의정의 별칭.
원사(院使)	고려 때 종추원 소속의 종 2품의 벼슬
원상(院相)	조선 때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사를 다스리던 관직.
원외랑(員外郎)	고려 때 각 기관의 정 6품의 관직.
위(尉)	고려 때 정 9품의 무관직.
유격장군(遊擊將軍)	고려 때 종 5품의 무산계.
유기장군(遊騎將軍)	고려 때 종 5품의 무산계.
유덕대부(德大夫)	조선 때 종친에게 주었던 종 1품계(品階).
율학교수(律學教授)	조선의 형조. 율학청에서 법률을 연구하던 종 6품직.
율학박사(律學博士)	고려 때 상서형부와 국자감에 소속된 종 8품직.
율학훈도(律學訓導)	조선 때 형조. 율학청에 소속된 정 9품의 관직.
응교(應敎)	고려 때 예문춘추관에 속한 정 5품의 관직.조선 때 홍문관. 예문관에 속한 정 4품의 벼슬.
의덕대부(宜德大夫)	조선 때 문관과 종친에게 주는 종 1품의 관계(官階).
의동삼사(儀同三司)	고려 때 정 1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익례(翊禮)	조선 때 통례원에 소속되어 의식을 맡아본 종 3품직
익선(翊善)	고려 때 정 5품의 관직. 조선 때 세손강서원에 소속된 종 3품직.
익찬(翊贊)	조선 때 세자익위사에 소속되어 세자를 호위한 정 6품의 무관직.
익휘부위(翊麾副尉)	고려 때 종 7품의 무산계(武散階).
인의(引儀)	조선 때 통례원 소속의 종 6품의 벼슬.
인진부사(引進副使)	고려 때 각문(關門)에 소속된 종 5품의 관직.
인진사(引進使)	고려 때 각문에 소속된 정 5품의 관직.
자덕대부(資德大夫)	고려 때 종 2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자신대부(資信大夫)	조선 때 종친과 1 문관에게 주던 종 3품의 관계(官階).
자의(諮議)	고려 때 정 6품의 관직. 조선 초 삼사에 속한 정 4품의 벼슬.
자의대부(資義大夫)	조선 때 의빈과 문관에게 주던 종 2품의 관계(官階).
자헌대부(資憲大夫)	조선 때 초기에는 문. 무관, 말기에는 종친. 의빈에게 주던 정 2품계.
장교(將校)	조선 때 각 군영에 속했던 군관.
장군(將軍)	신라 때 시위부의 으뜸벼슬. 고려 때 정 4품의 무관직이며 조선 때는 종 4품의 무관직.
장령(掌令)	고려 때 사헌부. 감찰사의 종 4품의 관직. 조선 때 사헌부의 종 4품의 관직.
장무장군(將武將軍)	고려 때 정 4품 하(下)의 무산계(武散階).
장사(長史)	고려 때 종 6품의 무관 벼슬.
장사랑(將仕郎)	고려와 조선 때 종 9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장원(掌苑)	조선 때 장원서에 소속된 정 6품의 벼슬.
재부(宰夫)	조선 대 사옹원에 소속된 종 6품의 잡직.
저작(著作)	조선 때 정 8품의 관직.
적공교위(迪功校尉)	조선 때 무관의 잡직으로 종 6품의 벼슬.
적순부위(迪順副尉)	조선 때 무관의 정 7품 관계(官階).
전근랑(展勤郎)	조선 때 종 9품의 문관 계통의 잡직.
전력부위(展力副尉)	조선 때 종 9품 무관 계통의 잡직.
전부(典簿)	조선 때 종친부에 속한 정 5품의 관직.
전수(典需)	조선 때 내수사에 속한 정 5품의 관직.
전악(典樂)	조선 때 장악원에 속한 정 6품의 관직.
전율(典律)	조선 때 장악원에 속한 정 7품의 잡직.
전적(典籍)	조선 때 성균관에 속한 정 6품의 관직.
전첨(典籤)	조선 때 종친부에 속한 정 4품의 관직.

전한(典翰)	조선 때 홍문관에 속한 종 3품의 관직.
전화(典貨)	조선 때 내수사에 속한 종 9품의 관직.
전회(典會)	조선 때 내수사에 속한 종 7품의 관직.
절도사(節度使)	고려 때 지방장관, 뒤에 안무사(按撫使)라고 했다. 조선 때 각 지방 군권의 총 책임자였던 무관직으로 2품관.
절제도위(節制都尉)	조선 때 절도사에 소속된 종 6품의 무관직.
절제사(節制使)	고려 때 원수(元帥)를 개칭한 이름으로 각 주(州). 부(府)의 장관직. 조선 때 각 지방에 두었던 정 3품의 무관직
절충장군(折衝將軍)	조선 때 정 3품의 당상관으로 무반관계(武班官階).
정당문학(政當文學)	고려와 조선 초기의 종 2품의 관직. 고려 때 내사문학성 소속이며 조선 때는 문학부 소속이었다.
정덕대부(靖德大夫)	조선 때 의빈에게 주었던 종 1품의 관계.
정랑(正郎)	고려와 조선 때 6조(曹) 소속의 정 5품 벼슬.
정략장군(定略將軍)	조선 때 종 4품의 무반관계(武班官階).
정봉대부(正奉大夫)	고려 때 종 2품의 문산계(文散階).
정순대부(正順大夫)	고려 때 정 3품의 문산계 조선 때 의빈의 정 3품 벼슬.
정언(正言)	고려 때 중서문학성에 속한 종 6품의 관직. 뒤에 정 6품이 되었다. 조선 때 사간원에 속했던 정 6품의 벼슬.
정윤(正尹)	고려 때 종친에게 종 2품, 훈신(勳臣)에게 정 3품으로 내리던 봉작(封爵).
정원장군(定原將軍)	고려 때 정 5품의 무산계.
정의대부(正義大夫)	조선 때 정 4품의 문관품계(文官品階).
정헌대부(正憲大夫)	조선 때 문무관의 품계로 후에 종친. 의빈의 품계와 병행.
제거(提舉)	고려 때 관직. 조선 때 사옹원의 3품 벼슬.
제조(提調)	조선 때 관직으로 도제조는 정 1품. 부제조는 정 3품.
제학(提學)	고려 때 정 3품의 벼슬로 대제학 다음 벼슬. 조선 때 종 1품 또는 종 2품의 벼슬.
조교(助教)	신라 때 국학박사(國學博士) 다음가는 벼슬. 고려 때 태의감. 국학에 소속된 벼슬.
조기(調驥)	조선 때 사복시에 소속된 종 7품의 잡직.
조봉대부(朝奉大夫)	조선 때 종 4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조봉랑(朝奉郎)	고려 때 종 5품의 문반품계.
조부(調夫)	조선 때 사옹원에 소속된 종 8품의 잡직.
조산대부(朝散大夫)	고려 때 4품 또는 5품의 문관품계. 조선 때 종 4품의 문관품계.
조산랑(朝散郎)	고려 때 종 7품 하(下)의 문관품계(文官品階).
조열대부(朝列大夫)	고려 때 종 4품 하(下)의 문관품계(文官品階).
조의대부(朝議大夫)	고려 때 정 5품 상(上)의 문관품계(文官品階).
조의랑(朝議郎)	고려 때 정 6품 상(上)의 문관품계(文官品階).
조전원수(助戰元帥)	고려 말기의 무관직, 도원수. 상원수를 돕는 구실을 담당.
조청대부(朝請大夫)	고려 때 정 5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조청랑(朝請郎)	고려 때 정 7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조현대부(朝顯大夫)	고려 때 문반품계.
종사랑(從仕郎)	고려 때 7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종순랑(從順郎)	조선 때 정 6품의 문반품계이며 종친의 위계(位階).
종정경(宗正卿)	조선 말의 종친부(宗親府) 소속으로 종 2품 이상의 벼슬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고려 때 정 4품의 관직위계(官職位階). 조선 때 정 3품.
좌대언(左代言)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 3품의 벼슬.
좌랑(左郎)	고려와 조선 때 6조(六曹)에 소속된 정 5품의 벼슬.
좌보궐(左補闕)	고려 때 시대에 따라 정 5품에서 정 6품의 벼슬.
좌복야(左僕射)	신라 때 관직. 고려 때 상서도성 소속의 정 2품의 벼슬로 상서령(尙書令) 다음의 관직.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속했던 정 2품.
좌부대언(左副代言)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조선 때 승정원 소속의 정 3품.
좌부빈객(左副賓客)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 속했던 종 2품의 벼슬.
좌부수(左富수)	조선 때 세자익위사에 소속되어 왕세자를 호위하던 정 7품의 무관직.
좌부승선(左副承宣)	고려 때 정 3품의 벼슬. 조선말 승정원 소속의 관직.

좌부승직(左副承直)	고려 때 내시부에 속한 정 6품의 벼슬.
좌빈객(左賓客)	도선 때 세자시강원에서 왕세자를 가르쳤던 정 2품관.
좌사간(左司諫)	고려 때 문하부에 소속된 관직. 뒤에 좌헌납(左獻納)으로 개칭.
좌사낭중(左司郎中)	고려 때 상서도성에 소속된 정 5품의 벼슬.
좌사어(左司禦)	조선 때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종 5품의 무관 벼슬.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고려와 조선 초 문하부 소속의 간관(諫官).
좌상시(左常侍)	고려 때 중서문하성에 소속된 정 3품의 벼슬.
좌습유(左拾遺)	고려 때 내시문하성 소속의 종 5품에서 정 6품. 조선 초 문하부 소속의 정 6품의 간관(諫官).
좌승(左丞)	조선 초기에 삼사(三司)의 종 3품의 벼슬.
좌승선(左丞宣)	조선 말기의 승선원(承宣院) 소속의 관직.
좌승지(左承旨)	조선 때 승정원 소속의 정 3품의 벼슬. 지금의 대통령 비서.
좌승직(左承直)	고려 때 정 5품으로 내시부에 소속된 관직.
좌시금(左侍禁)	고려 때 액정국 소속의 정 8품의 벼슬.
좌시직(左侍直)	조선 때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정 8품의 무관.
좌위수(左衛守)	고려 때 춘방원 소속의 정 5품의 무관직. 조선 때 종 6품.
좌유선(左諭善)	조선 때 세손강서원에서 왕세손을 가르치던 종 2. 3품의 벼슬.
좌윤(左尹)	고려 삼사 소속의 종 3품벼슬. 조선 때 한성부의 종 2품의 벼슬.
좌윤(佐尹)	고려 때 향직으로 6품의 벼슬.
좌의정(左議政)	조선 때 의정부 소속으로 영의정과 우의정 사이의 정 1품의 벼슬로 좌규(左揆), 좌상(左相), 좌정승, 좌합(左閣)이라 하였다.
좌익위(左翊衛)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 5품의 벼슬..
좌익찬(左翊贊)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 5품의 벼슬..
좌종사(左從史)	조선 때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속하여 세자를 호위하던 종 6품직.
좌찬독(左贊讀)	조선 때 세손강서원에 속한 종 6품의 무관 벼슬.
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	고려 때 동궁(東宮)에 소속된 정 5품의 벼슬.
좌찬성(左贊成)	조선 때 의정부에 소속된 종 1품의 벼슬로 백관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의 처리. 국토계획, 외교를 맡아보았다.
좌참찬(左參贊)	조선 때 의정부에 소속된 정 2품의 관직.
좌첨사(左詹事)	고려 때 첨사부(詹事府)에 소속된 벼슬.
좌통례(左通例)	조선 때 통례원의 으뜸벼슬로 정 3품의 벼슬.
제주(祭酒)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에서 제향(祭享)을 담당한 정 3품의 벼슬.
주부(注簿)	고구려 때 종 2품 상당의 벼슬. 신라 때 내마(11등급)에서 사지(13등급)의 관직. 조선 때 각 기관에 두었던 종 6품.
주사(注事)	신라와 고려 때 관직. 조선 정 7품의 관직.
주서(注書)	고려 때 종 7품의 관직. 조선 때 문하부와 승정원 소속의 정 7품.
중대부(中大夫)	고려 때 종 4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중랑장(中郎將)	고려와 조선 초 각 영(領)에 소속된 정 5품의 무관직(武官職).
중무장군(中武將軍)	고려 때 정 4품 상(上)의 무산계(武散階).
중봉대부(中奉大夫)	고려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를 고친 정 3품의 문산계(文散階).
중사인(中舍人)	고려 때 정 5품으로 동궁의 속관관직(屬官官職)
중산대부(中散大夫)	고려 때 정 5품 상(上)의 문산계(文散階).
중서령(中書令)	고려 때 문하부 소속의 종 1품의 관직.
중서사인(中書舍人)	고려 때 중서문하성 소속의 종 4품의 벼슬.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고려 때 중서성(中書省)의 정 2품 관직.
중정대부(中正大夫)	고려 때 종 3품의 문산계(文散階).
중직대부(重直大夫)	조선 때 종 3품으로 문반(文班)의 관계(官階).
중현대부(中顯大夫)	고려 때 정 3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중훈대부(中訓大夫)	조선 때 종 3품의 문산계(文散階).
지부사(知部事)	고려 때 6부(六部)에 속한 종 3품의 관직.
지사(知事)	고려 때 각 도(道)의 도통사에 딸린 5품에서 6품의 벼슬이며 또한 각 관청의 2품에서 5품의 벼슬. 조선 때 정 2품에서 종 3품의 벼슬.

지성사(知省事)	고려 때 상서성 소속의 종 2품의 관직.
지원사(知院使)	고려 때 중추원 소속의 종 2품의 벼슬.
지제고(知制誥)	고려 때 조서(詔書), 교서(敎書) 등을 지어 왕에게 올리던 관직.
지제교(知制敎)	조선 때 왕에게 교서 등을 기록하여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부제학(정3품) 이하 부수찬(종6품)까지가 겸임.
지주사(知奏事)	고려 때 중추원 소속의 정 3품의 벼슬.
지평(持平)	고려 때 정 5품의 관직. 조선 때 사헌부에 소속된 정 5품 관직.
지후(祗候)	고려 때 정 7품의 벼슬.
직각(直閣)	조선 때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정 3품에서 종 6품까지의 관직.
직강(直講)	조선 때 성균관 소속의 정 5품의 관직.
직무랑(直務郎)	조선 때 동반(東班)계통의 종 8품으로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직문하(職門下)	고려 때 문하부에 소속된 종 3품의 벼슬.
직사백(職詞伯)	고려 때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소속의 정 4품의 벼슬.
직장(直長)	고려 때 6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 조선 때 종 7품의 관직.
직제학(直提學)	고려 때 정 4품의 관직. 조선 때 집현전(集賢殿)의 종 3품관·홍문관, 예문관의 정 3품의 관직. 규장각(奎章閣)의 종 2품에서 정 3품관.
직학(直學)	고려 때 국자감에 둔 종 9품의 관직.
직학사(直學士)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정 3품의 관직.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고려 때 종 2품의 무산계(武散階).
진덕박사(進德博士)	고려 때 성균관의 종 8품의 관직.
진무(振撫)	고려 때 도통사(都統使) 소속의 종 2품과 정 3품이 있었다.
진무부위(振武副尉)	고려 때 종 6품 하(下)의 무산계(武散階).
진무사(鎭撫使)	조선 때 진무영(鎭撫營)의 으뜸벼슬로 강화유수가 겸임을 했다.
진선(進善)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 4품의 관직.
진용교위(進勇校尉)	조선 때 정 6품의 무관관계(武官官階).
진위교위(振威校尉)	고려 때 종 6품 상(上)의 무관관계.
위장군(進威將軍)	조선 때 정 4품의 무관관계.
진장(鎭將)	고려 때 각 진(鎭)에 배치된 으뜸벼슬로 7품이상 관원중에서 임명됨.
집사(執事)	고려 때 말단관리.
집순랑(執順郎)	조선 때 정6품의 종친에게 주던 관계.
집의(集義)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의 3품관. 조선 때 사헌부의 종 3품관.
집주(執奏)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 소속의 관직.
징사랑(徵事郎)	고려 때 정 8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찬독(贊讀)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종 6품의 관직.
찬선(贊善)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정 3품의 관직.
찬선대부(贊善大夫)	고려 때 동궁(東宮:세자 궁)에 소속된 정 5품의 관직.
찬성(贊成)	조선 때 최고기관인 議政府(의정부)의 종 1품의 관직.
찬성사(贊成事)	고려 때 문하부 소속의 정 2품의 관직.
찬위(贊尉)	조선 때 親王府(친왕부)에 소속된 奏任官(주임관)의 벼슬.
찬의(贊儀)	조선 때 通禮院(통례원) 소속의 정 5품의 벼슬.
찰방(察訪)	조선 때 종 4품의 관직으로 각 역(驛)에 소속된 벼슬
참교(參校)	조선 때 承文院(승문원)에 속한 종 3품관. 조선 말 무관직.
참군(參軍)	조선 때 漢城府(한성부), 訓練院(훈련원)의 정 7품의 관직.
참리(參理)	고려 때 관직으로 참지정사(參知政事:종 2품)를 바꾼 이름.
참봉(參奉)	조선 때 각 관청에 소속된 종 9품의 벼슬.
참의(參議)	조선 때 六曹(육조)에 소속된 정 3품 벼슬.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고려 때 문하부에 소속된 종 2품의 관직.
참지정사(參知政事)	고려 때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의 종 2품의 벼슬.
참찬(參贊)	조선 때 최고기관인 議政府(의정부)에 소속된 정 2품의 관직.
참찬관(參贊官)	조선 때 經筵(경연)에 속한 정 3품의 관직.
참판(參判)	조선 때 六曹(육조)에 속했던 종 2품 벼슬로 지금의 차관.
창선대부(彰善大夫)	조선 때 정 3품의 堂下官(당하관)인 宗親官階(종친관계).
창신교위(彰信校尉)	조선 때 종 5품의 文官官階(문관관계).

천문학교수(天文學教授)	조선 때 觀象監(관상감) 소속의 종 6품의 벼슬.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조선 때 觀象監(관상감) 소속의 정 9품의 벼슬.
천호(千戶)	고려 때 巡軍萬戶府(순군만호부:후에 의금부)에 소속된 관리.
첨사(僉使)	조선 때 각 진영(鎭營)에 속한 3품의 무관직(武官職).
첨사(詹事)	고려 때 동궁(東宮:세자 궁)의 종 3품의 벼슬.
첨서원사(添書院使)	고려 때 중추원 소속의 정 3품의 벼슬.
첨위(僉尉)	조선 때 의빈부(儀賓府)에 소속된 3품의 관직.
첨절제사(僉節制使)	첨사(僉使)의 원래의 관직.
첨정(僉正)	조선 때 각 부서에 소속된 종 4품의 관직.
첨지사(僉知事)	조선 때 중추원(中樞院)에 소속된 정 3품의 당상관(堂上官).
체찰사(體察使)	조선 때 지방에 파견되어 일반 군무를 총괄하던 군인직.
초관(哨官)	조선 때 종 9품의 무관직.
총제사(摠制使)	고려 때 三軍都摠制府(삼군도총제부)의 관직. 후(後)이상이 많음.
충의교위(忠毅校尉)	조선 때 정 5품의 무관관계(武官官階).
치과교위(致果校尉)	고려 때 정 7품 상(上)의 무산계(武散階).
치과부위(致果副尉)	고려 때 정 7품 하(下)의 무산계(武散階).
치력부위(致力副尉)	조선 때 정 9품의 잡직관계(雜職官階).
태보(太保)	고려 때 삼사(三師)에 속한 정 1품의 관직.
태부(太傅)	고려 때 삼사(三師)에 속한 정 1품의 관직.
태사(太師)	고려 때 삼사(三師)에 속한 정 1품의 관직.
태수(太守)	신라 때 각 군(軍)의 으뜸벼슬로 중아찬(重阿)에서 사지(舍知)까지가 많음.
통덕랑(通德郎)	조선 때 정 5품의 동반(東班:문반)의 관계(官階).
통사(通事)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에 속한 9품의 벼슬. 문하부에 속한 이속(吏屬) 조선 때 통역관(通譯官).
통사(通詞)	조선 때 사역원(司譯院)에 속하여 통역에 종사 하였다.
통사랑(通仕郎)	고려 때 9품의 문관관계(文官官階). 조선 때 정 8품의 문관관계.
통선랑(通善郎)	조선 때 정 5품의 동반관계(東班官階).
통의대부(通議大夫)	고려 때 시대에 따라 정 3품에서 정 4품까지의 문산계(文散階).
통의랑(通議郎)	조선 때 동반의 정 5품의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통정대부(通政大夫)	조선 때 문관(文官). 종친(宗親). 의빈(儀賓)의 정 3품의 관계(官階).
통제사(統制使)	조선 때 3도(전라, 경남, 충청)의 수군을 통솔하던 관직.
통직랑(通直郎)	고려 때 시대에 따라 정 5품에서 6품 하(下)까지의 문관관계.
통헌대부(通憲大夫)	고려 때 종 2품의 문산계. 조선 때 정 2품의 의빈관계.
통훈대부(通訓大夫)	조선 때 문관의 정 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
판관(判官)	신라 때 벼슬. 고려 때 5품에서 9품까지의 벼슬. 고려 및 조선 때 6품 이상의 지방관직. 조선 때 5품의 중앙관직.
판교(判校)	조선 때 승무원. 교서관(校書館)에 속한 정 3품의 벼슬.
판사(判事)	고려 때 각 6부(六部)의 장(長)으로 종 1품관. 각 관청의 정 3품.
판서(判書)	고려 때 각 관청의 6조(六曹)의 으뜸벼슬로 정 3품관. 조선 때 6조의 으뜸 벼슬로 정 2품의관직. 지금의 장관.
판윤(判尹)	조선 때 한성부의 으뜸벼슬로 정 2품의 관직.
판원사(判院事)	고려 때 중추원 소속의 종 2품의 관직.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고려 때 전교시의 으뜸벼슬로 정 3품의 관직.
평사(評事)	신라 때 관직. 조선 때 정 6품의 외직무관(外職武官).
평장사(平章事)	고려 때 문하부 소속의 정 2품의 벼슬. 내사시랑평장사.
평장정사(平章政事)	고려 때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 소속의 정 2품의 벼슬.
포도대장(捕盜大將)	조선 때 포도청(捕盜廳)에서 제일 으뜸가는 정 2품의 무관직.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고려 때 종 1품의 무산계(武散階)
필선(弼善)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정 4품의 벼슬.
학사(學士)	신라 때 관직. 고려 때 종 2품에서 정 4품까지의 벼슬. 조선 초기의 중추원에 소속된 종 2품의 벼슬.
학사승지(學士承旨)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 소속의 정 2품에서 정 3품의 관직.
학유(學諭)	고려 때 국자감의 종 9품의 관직. 조선 때 성균관의 종 9품의 관직.
학정(學正)	고려 때 국자감의 정 9품의 관직. 조선 때 성균관의 정 9품의 관직.

한림학사(翰林學士)	고려 때 한림원 소속의 정 4품의 관직.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조선 때 한성부의 으뜸벼슬로 정 2품. 지금의 서울특별시장.
해운판관(海運判官)	조선 때 전함사(典艦司)에 소속되어 조운(漕運)을 담당한 관리.
헌납(獻納)	고려 때 문하부 고속의 5품의 벼슬.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의 정 5품의 벼슬.
현감(縣監)	고려와 조선 초의 지방장관으로 고려 때는 7품. 조선 때는 종 6품직.
현령(縣令)	조선 때 각 현(縣)의 으뜸벼슬로 종 5품의 지방관직.
현록대부(顯祿大夫)	조선 때 종친에게 주는 정 1품의 벼슬.
호군(護軍)	조선 때 5위(五衛)에 속한 정 4품의 무관직(武官職).
회사(會士)	조선 때 호조(戶曹). 산학청(算學廳) 소속의 종 9품의 벼슬.
효임랑(效任郎)	조선 때 각 관아에 소속된 종 6품의 잡직(雜職).
훈도(訓導)	조선 때 지방의 교육을 담당한 종 9품의 관직.
흥록대부(興祿大夫)	고려 때 정 2품의 문관품계.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 1품의 관계.
희공랑(熙功郎)	조선 때 동반(東班) 토관직(土官職)으로 정 7품의 벼슬.